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6 호 6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6 호 (151)

1958년 6월 15일

내 용

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3차 회의에서 한 연설

김 일 성

(전원 기립하여 오래 계속되는 박수 속에 등단)

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 발전 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제 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조선 인민은 해방후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하고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계획 경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10 여 년의 력사가 흘렀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은 그의 우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 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의 우월성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전쟁전 시기에나 또한 전후 시기에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에서의 계획 경제는 전쟁의 가렬한 불'길 속에서도 국내의 모든 원천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동성 있게 합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미 전쟁 전에 두 차례의 년간 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만일 원쑤들의 무력 침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당시의 2개년 계획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후의 매우 어려운 조건하에서 3개년 계획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행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최고 인민 회의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며 벌써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정치—경제 생활에 있어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가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개년 계획은 1—2년 간의 계획과는 달리 인민 경제의 더욱 장기적인 발전 전망과 더욱 장기간에 걸치는 대규모적인 건설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개년 계획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 토대를 구축함이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

니다.

전후 시기에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 밑에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허다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이러한 경제 토대를 구축하여 놓았습니다.

사실 전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 경제는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정전 직후의 우리 나라 경제 형편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재도, 세멘트도, 화학 비료도 없었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이 파괴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이 페허로 되였고 우리 인민들은 집과 가구들을 거의 다 잃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과거로 되였습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 근로자들의 헌신적 로력에 의하여 우리는 전후 불과 3—4년 간에 어렵던 인민 생활을 현저히 개선하였으며 공업과 농업을 복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금속 공업, 전기 공업, 석탄 공업, 건재 공업, 화학 공업 등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복구되였으며 새로운 기술 토대 우에서 개건 확장되였습니다.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되였으며 경공업 기지가 조성되였습니다.

농촌 경리는 협동화되고 알곡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여 인민의 식량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페허로 되였던 도시와 농촌은 새로운 면모로 일떠섰으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은 현저히 향상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 더욱 장기간에 걸치는 전망 계획인 5개년 계획에로 이행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로 되는 것입니다. (박수)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는 우리의 전후 경제 복구 건설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습니다.

만약 전후 시기에 우리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지 않고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원조와 우리의 내부 원천을 주로 인민의 개인적 소비에만 충당하여 버렸더라면 우리는 자체의 경제 토대를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오늘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장래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형제적 국가들의 원조와 우리 내부 원천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인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자립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대 우에서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였으며 오늘 그에 관한 력사적인 법령을 채택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은 전체 인민에게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명확한 전망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투쟁 강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 조선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암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1년은 고사하고 래일에 대하여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로동자, 농민, 전체 근로 인민들은 자기의 래일은 물론 광활한 앞날을 내다 보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 인민들은 1, 2년도 아니고 5년 동안이나 할 일을 미리부터 명확하게 정하여 놓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5년간에 무엇을 하여야 하며 그것을 하면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될 것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을 더욱더 고

무추동하게 될 것이며 광명한 미래와 승리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더욱더 굳게 할 것입니다.

5개년 계획에로의 이행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이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수)

전쟁전 시기의 년간 계획들이나 그 후의 2개년 계획이나 또한 전후 3개년 계획은 모두가 다 복구를 기본 과업으로 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3년 간의 가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민 경제의 발전이 수년간이나 지연되게 되였으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복구 시기가 매우 장기간을 요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있어서 전쟁 전과 전후에 두 차례의 복구 시기를 거치게 되였습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10 여년 간이나 끌게 된 어려운 인민 경제의 복구 사업을 기본적으로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물론 5개년 계획에도 복구의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3개년 계획을 수행한 결과 총체적으로는 경제 발전이 전쟁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으며 적지 않은 기술적 개건이 이루어졌고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채 복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채 복구하지 못한 공장, 기업소들을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퇴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5개년 계획에도 부분적으로 복구의 과업이 남아 있지만 그의 주되는 과업은 벌써 복구가 아니라 인민 경제의 점차적인 기술적 개건입니다.

만약 3개년 계획 기간에는 파괴된 공장, 광산, 기업소들을 복구하며 공업과 농업 생산을 전쟁전 수준에로 회복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장들을 기술적으로 개건하며 그것을 더욱 확장하며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며 공업과 농업 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올려 세우는 것이 기본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기술적 개건기에 들어 섰다고 능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전변입니다.

종전의 모든 계획과 구별되는 우리 나라에서의 5개년 계획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제 1차 5개년 계획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즉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조건하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전 인민 경제 계획들은 아직도 농촌에서 개인 농민 경리가 거의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도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수행되였습니다.

1949년에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은 공업 총생산액에서 90.7%였으며 농업 총생산액에서는 3.2%, 소매 상품 류통 총액에서는 56.5%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농촌에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는 없었으며 류통 분야에서도 개인 상업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1957년에 공업 총생산액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98.7%에 달하였으며 소매 상품 류통 총액에서는 87.9%였습니다.

현재 농촌 경리에서는 이미 총농가 호수의 98.6% 이상이 협동화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며 전체 근로자들이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자기 생활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계획 경제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포괄하게 되였으

며 경제 발전에서 자연 발생적 요인이 더욱 더 제한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촌에서 개인 농민 경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농업 계획은 국가와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농촌 경리의 발전을 조절하는 것이였지 완전한 계획 경제는 아니였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 개인 상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상품 류통을 충분히 계획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상품 경리들과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계획 경제에 지장을 주며 자연 발생성을 낳게 하는 근원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경리가 협동화되였고 사회주의적 상업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된 조건하에서 우리는 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 및 상업까지도 완전히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민 경제에서 계획성과 대립되는 자연 발생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청산되였습니다.

그러므로 5개년 계획은 종전의 계획들과는 달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완전히 포괄하는 동시에 각 부문에 더 깊이 들어 가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제 1차 5개년 계획은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명시된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작성되였습니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의 결정에서와 또한 법령 초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이 기본 과업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공업과 농업 기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혁명적 변혁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변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광활한 길을 개척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이 매우 급속한 템포로 복구 발전되였다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결과와 혹심한 전쟁 피해로 말미암아 생산력의 발전 수준은 아직도 락후합니다.

우리 공업은 현대적 기술에 의하여 충분히 장비되지 못하였으며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을만큼 발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업의 락후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아직도 주로 수공업적인 기술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였으나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는 아직 미약합니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기본적으로 승리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개조는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업, 농촌 경리, 운수, 기본 건설 등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기술적 개조 없이는 우리 인민 경제를 앞으로 더 전진시킬 수 없으며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이미 확립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 개건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서 제기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과업은 단시일 내에 실현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점차적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함으로써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기술적 개건을 점차적으로 추진시켜야 합니다.

이리하여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가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재장비하며 더욱 대규모적인 기본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결국은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의 부단한 개선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항상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로력에 의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되였던 우리 인민의 생활은 짧은 시일 내에 현저히 개선 향상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피해가 너무나 심하였던 까닭에 우리 인민의 생활은 아직도 불만족한 형편에 있으며 그들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 1차 5개년 계획에서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였습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 기간에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입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며 주택 조건을 현저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생산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개선에 따라 의식주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부단히 제고됩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장성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과업은 한 개의 5개년 계획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항구적인 투쟁 과업으로 됩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면 인민 생활이 입은 전쟁 피해는 완전히 청산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전쟁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 형편에서 이것은 거대한 전진을 의미합니다.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계속 철저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전 직후로부터 견지하여 왔으며 현실에 의하여 그의 정당성이 증명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 로선입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없으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원래 중공업의 일정한 토대가 있었으며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그것은 현저히 개건되였으며 더욱 확장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형성된 중공업 기지는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밑천입니다.

우리는 계속 중공업의 발전을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새로운 수준에로 올려 세워야 합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다시 말하면 축적과 소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합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하에서는 축적이나 소비나 다 같이 전체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축적은 장래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장, 기업소 및 기타 각종 건설에 자재와 로력과 자금을 투하하는 것은 장차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을 두고 볼 때에 축적과 소비는 서로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장래를 위한다 하여,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한다 하여 축적에만 일면적으로 치중하고 소비를 홀시한다면 인민 생활을 개선할 수 없으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업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 하여 소비에만 치중하고 축적을 소홀히 한다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인민 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축적과 소비의 옳은 균형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경제 형편과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축적과 소비에 전면적으로 고려를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자기의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 생활의 장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인민 생활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 원칙의 정당성은 실생활에 의하여 증명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축적을 계통적으로 증가시키는 토대 우에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범한 기본 건설과 기술적 개건을 진행하며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발전시킴으로써만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옳게 인식시켜야 하며 동시에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요구를 돌보지 않는 현상과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은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거대한 전진을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업, 농촌 경리 및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새로운 더욱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더 개선 향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5개년 계획에는 공업 생산의 매우 높은 장성 템포가 예견되여 있습니다.

5년 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2.6배 이상으로 장성할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공업은 전후 3개년 계획의 전 기간에 걸쳐서 생산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업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박 수)

공업 생산의 이와 같은 급속한 장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중요 공업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전력은 970키로와트시, 석탄은 1,000키로그람, 선철 및 립철은 합하여 약 90키로그람, 강철은 68키로그람, 화학 비료는 64키로그람, 세멘트는 200키로그람, 직물류는 20메터 이상, 어획고는 65키로그람에 이르게 됩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공업의 질적 구성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의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결과 1961년에 공업 총생산액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은 61.3%에 달하게 됩니다. 연료, 동력

기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원료 반제품 생산은 완제품 생산에로 전환될 것이며 기계 제작 공업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대규모적이고 특수한 기계 설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에서 다량으로 요구되는 중 소 기계 설비들과 각종 부속품들은 기본적으로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에 의하여 생산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방직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혁신시키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 공정이 더욱 기계화될 것이며 상당한 기술적 개건이 이루어질 것이며 품종이 확대되고 제품의 질이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공업이 류례 없이 높은 템포로 발전하며 그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공업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충분히 공급하게 될 것이며 장차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하기 위한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 앞에도 거대한 발전 전망이 열려져 있습니다.

1961년에 농업 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2배 이상에 달하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 알곡 총수확고는 131%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일제 시기에는 북조선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지대로 되여 있었으며 최근 년간까지만도 우리는 식량 문제의 해결에서 적지 않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면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여유 량곡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촌 경리에서 공예 작물, 목축업, 과수업, 잠업 등은 알곡 생산보다도 더욱 급속한 템포로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섬유 원료를 해결함에 있어서 특히 아마와 인조 섬유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량강도를 비롯한 산간 지대들에서 아마의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인조 섬유 원료로서 유리한 각종 나무를 대량적으로 식수하고 육성하며 서해안 지방에서 갈을 많이 재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축업에서는 협동 조합들의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되 대집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연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여 소집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민들의 개인 부업 축산을 이와 옳게 배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간에 10만 정보의 과수원 개간 운동을 제기하였는바 농민들은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알곡 생산에만 치중된 또 그것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던 락후한 경리로부터 알곡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량의 육류도 주고 각종 실과도 풍부히 공급하며 방직 공업에 상당한 원료도 공급할 수 있는 발전된 다각적인 경리로 전변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 경리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의 막대한 투자와 농민들 자체의 자금에 의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도 계속 광범한 관개 공사와 하천 제방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논은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될 것이며 밭에도 관수 체계가 도입될 것이며 농토 보호 면적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논보다도 밭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벼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동시에 밭 곡식의 수확고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밭에 관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밭 곡식의 정당 수확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밀 생산을 례로 들어 볼 때 우리는 현재까지 밀밭에서 정보당 평균 600—700키로그람의 밀 밖에 수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밭에 관수를 실시하면 2,5—3톤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옹진군 원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금년에 밀밭 120정보 중 100정보에 세 번 관수를 실시함으로써 정보당 3톤 500키로그람을 수확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 협동 조합에서는 또한 밀을 수확한 후 그 밭에 옥수수 후작을 실시함으로써 정보당 2톤 500키로그람씩 수확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밭에 관수 체계를 도입하는 결과 밭 한 정보에서 6톤의 알곡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것은 밭 곡식의 생산에서 큰 변혁입니다.

밭에 관수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하지 못하던 일을 함으로써만 더욱 행복한 새 사회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로력을 들이지 않고 농촌 경리에서 다수확을 거두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연을 개조하고 자연적 재해를 극복하여야 항상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지 면적 약 200만 정보 중에서 5개년 계획 기간내에 논 약 60만 정보를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밭 면적 140만 정보 중에서 경사지 70만 정보를 제외하고 약 70만 정보에 해당한 밭에 관수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물 원천도 많고 또한 농촌 경리가 이미 협동화된 조건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약 60만 정보의 논과 70만 정보의 밭에 완전히 관개 체계가 확립되면 우리의 농촌 경리는 흉풍을 모르며 항상 다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발전된 현대적 농촌 경리로 전변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농업에서 정당 수확고의 제고를 위하여 화학 비료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미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에 화학 비료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은 64키로그람에 달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토질에 적합하게 비료의 종류 구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작년에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보당 논에 400키로그람과 밭에 200키로그람의 화학 비료를 시비한다면 논에서 정보당 5톤, 밭에서 2톤 500키로그람의 알곡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 말에 가서 농민들의 이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 경리에서의 뜨락또르 대수는 현저히 증가될 것이며 농촌에 적지 않은 화물 자동차도 공급될 것이며 기타 각종 농기계와 농기구의 공급량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관개 체계도 확립될 것이며 화학 비료도 충분히 보장될 것이며 또한 점차적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는 5개년 계획 기간에 광범한 기본 건설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와 같이 기본 건설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나라가 락후하였고 특히 전쟁 피해가 혹심하였던 까닭에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과 기타 각종 생산 시설들을 복구, 개건, 신설, 확장하여야 하며 주택, 문화 후생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관개 공사도 하고 저수지와 제방도 많이 구축하여야 합니다.

철도와 도로를 더 많이 부설하여야 하며 항만도 복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 건설과 함께 특히 주택 건설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새로운 문화 주택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세탁소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그들이 생활을 더욱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건설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더 값싸게, 더 견고하게, 쓸모 있게 건설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건설을 조립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각종 건재 생산을 더욱 강화하며 건설 사업을 기계화하고 건설에서 기술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 전에 이 과업을 제기하였습니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건설 사업을 능히 조립식으로 할 수 있으며 기계화할 수 있습니다.

당의 호소에 호응한 평양시 건설자들은 금년에 초기의 계획보다 3배나 더 많은 주택 건설을 결의하였으며 이미 자기의 결의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 건설에서 전반적으로 조립식 건설에로 이행하여야 하며 공장 건설에서도 이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쎄멘트와 철근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고 건설 부재와 각종 부록크 생산을 강화하며 건설 기계를 더 많이 공급하고 건설 기술자들을 더욱 많이 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업, 농촌 경리 및 기타 인민 경제 각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은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의 대비는 현저한 변화를 가져 오게 됩니다.

전쟁전 1949년에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비중이 46.7%였다면 1956년에는 60%로 되였으며 1961년에는 약 70%에 달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될 것입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더욱 확대 공고화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될 것입니다.

개인 농민 경리는 완전히 협동화될 것이며 개인 상업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될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착취 제도는 종국적으로 청산될 것입니다.

로동자, 농민, 전체 인민은 누구도 착취하지 않고 누구도 착취를 당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다 같이 일하며 다 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이 더 풍부하고 더 문화적이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제 1차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의 광활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전망을 쉽게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난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지난 전쟁 시기와 전후 경제 복구 시기에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영웅적 투쟁으로써 원쑤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 시기에 그와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더욱 발전시켰으며 령락되였던 인민 생활을 현저히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국제 반동의 반소 반공 깜빠니야가 심하였으며 국내적으로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파괴 암해 활동이 더욱 격화되였으며 당내에서는 또한 반당 종파 분자들이 당을 공격하여 나선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대중을 동

원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나아감으로써 우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어떠한 힘도, 어떠한 난관도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전진 운동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조성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협동화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가 있습니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각계 각층 인민의 단결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에서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간고한 투쟁과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인민들은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였으며 자기의 위대한 힘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인민 대중은 자기들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는 우리 당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습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자기의 운명을 우리 당에 위탁하고 있으며 당이 제기하는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과 인민의 깨뜨릴 수 없는 통일, 광명한 미래와 승리에 대한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이것은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가 있습니다. 형제적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이 나라들로부터의 원조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여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 왔습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에서와 국가 경제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1957년에 무비의 창발성과 재능과 로력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긴장된 공업 생산 계획을 117%로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1957년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44%나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록적인 발전 템포입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 우리 로동자들의 로력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으며 그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1.4 분기 공업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고 2.4 분기 계획도 역시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13만 6천 톤의 능력을 가진 흥남 질안 공장을 1년 간이나 앞당겨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로동자들은 완전히 자체의 힘으로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25만 톤의 능력을 가진 웅장한 용광로와 30만 톤의 능력을 가진 해탄로를 황해 제철소에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의 호소에 호응한 평양시 건설자들과 청년 학생들의 로력적 열성에 의하여 민주 수도 평양시는 나날이 그의 면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건설자들은 5월 한 달 동안에만도 2천 313 세대에 달하는 주택을 완공하였으며 금년내에 2만 세대의 현대적 다층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궐기하였습니다. 사회주의의 길에 확고히 들어 선 수백만 농민들은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민들은 수십년래의 혹심한 가물을 이겨내고 3백 20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 없던 다수확입니다.

금년에 농민들은 랭상모와 면화 영양단지 가식법을 비롯한 각종 선진 영농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업 협동조합들에서는 파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내기를 끝내여 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모내기를 빨리 끝내며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생산적 앙양과 함께 문화 혁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열성에 의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벌써 중등 의무 교육제는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려는 기풍은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와 마을, 직장과 가정을 깨끗이 거두며 더욱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을 즐기며 서로 도와 주며 다 같이 일하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덕의 미풍이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한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높은 긍지와 미래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기적으로 억압 받고 멸시되여 온 조선 인민의 지혜와 재능과 창발성과 열성은 오늘 전면적으로 꽃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고조에 들어 섰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전체 면모는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급속히 변혁되고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당의 위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대중은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도시와 농촌에서, 공장과 광산에서, 어장과 목장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세와 로력적 열성은 비상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일대 혁명적 고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쥔 인민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 동안 봉건 왕조의 압박을 받아 왔으며 또한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노예 생활을 겪은 기억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박과 착취에서 신음 받던 인민의 각오가 더 빠르다고 하여 무엇이 신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각오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정권을 가져 보지 못하고 천대 받던 우리 인민들이 정권을 일단 자기 손에 틀어 쥔 이상 이 정권을 수호하며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건설하자고 덤벼드는 그 기세에 대하여 어찌 우연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본래 어렵게 살던 데다가 전쟁에서 파괴되여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남보다 못 살고 뒤떨어진 우리 인민들이 잘 살기 위하여, 남만 못 하지 않게 살기 위하여 달려 나가며 달려 나가도 부족해서 더 빨리 달려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렁찬 박수)

참말로 우리는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대중의 의지이며 요구입니다. 이와 같은 대중적 혁명 의지는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대고조는 우리의 5개년 계획을 틀림없이 기한 전에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과업은 5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조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옳게 조직하며 향도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하며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대중의 뒤꼬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장에 서야 하며 대중의 모든 열성과 창발성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그들을 새로운 더욱 큰 승리에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 때에는 승리와 영광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과업이 아무리 방대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선 인민은 반드시 그것을 완수할 것이며 기한 전에 완수하리라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북반부 인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주 독립을 지향하는 전체 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5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우리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과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립적 경제 토대의 확립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더 고무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장차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기초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믿음직하게 수호할 것이며 동방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5개년 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 번영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년, 학생, 기업가, 상인——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스러운 투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더 없는 영예입니다.

전체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로력 투쟁에서 모든 재능과 정력과 열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원 총기립하여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혜산시 군중 대회에서 한 연 설

김 일 성

천애하는 동무들!

친애하는 혜산시민 여러분!

나는 다른 동무들과 함께 이번에 량강도를 방문하고 도내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량강도의 산천과 마을 또한 이 근방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보는 것마다 다 반갑고 감개무량한 것들 뿐입니다.

이 근방 인민들은 과거로부터 훌륭한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우리 항일 빨찌산 부대는 백두산 기슭을 근거지로 하여 장기간에 걸치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일 빨찌산 투쟁은 일제의 폭압 밑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던져 주었으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 빨찌산은 항상 인민들과 특히 이 근방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 밑에 그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으면서 투쟁하였습니다.

이 근방 인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빨찌산에 참가하여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고통을 극복하며 자기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많은 빨찌산 대원들은 바로 당신들의 친부모 형제들이였으며 량강도 일대 인민들 속에서 키워난 영웅들이였습니다.

이 지방 인민들은 자기들의 훌륭한 아들딸들을 길러내여 빨찌산의 대오를 부단히 보충하고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인으로부터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빨찌산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원조하여 주었습니다.

인민들은 일제 경찰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산에서 싸우는 우리 빨찌산들에게 많은 식량과 의복 및 의약품 등을 공급하여 주었으며 적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으며 전투후에는 탄약을 수집하여 주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빨찌산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빨찌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호였습니다.

우리 빨찌산과 인민들은 그야말로 혼연 일체가 되였습니다.

빨찌산은 항상 인민을 위하여 싸웠으며 인민에 의거하여 싸웠습니다. 인민들은 빨찌산을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모든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었으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보천보 전투는 일제의 폭압 밑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에게 해방에 대한 희망과 광명을 주었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우

리 빨찌산의 불굴의 투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전투는 빨찌산과 인민간에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굳은 련계를 보여 주는 좋은 실례로 됩니다.

당시에 보천보 인민들은 압록강에 떼'목으로 다리를 놓아 주었고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하여 주었으며 적들을 쳐부시고 보천보 거리에 들어 간 우리 빨찌산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며 전투가 끝난후에는 산에까지 짐을 운반하여 주었습니다.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는 우리 빨찌산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습니다.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빨찌산은 그와 같이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15 여 성상이나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었으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항일 빨찌산의 고귀한 혁명 전통과 함께 그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그를 적극 원조한 이 근방 인민들의 투쟁 업적은 조선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력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량강도내 인민들은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해방후에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또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다른 모든 지방에서와 같이 량강도에서도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선에 나아가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커다란 공훈을 세웠습니다.

또한 후방 인민들은 전선을 돕기 위한 로력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였으며 적들의 일시적 강점 시기에는 빨찌산을 조직하여 적들의 후방을 교란하며 치안대를 처단하는 등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량강도 인민들은 전쟁 피해를 급속히 회복하고 지금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높은 로력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를 리용하여 빨찌산 투쟁 시기에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나 또한 전후 경제 복구 시기에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훌륭히 싸운 애국자들과 혁명 렬사 가족들과 량강도 내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박수)

동무들!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정전후 우리 당은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농업도 경공업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광범한 기본 건설 사업도 전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후 시기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복구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전쟁 피해로 인하여 매우 어렵게 되였던 우리 인민 생활은 짧은 기간에 회복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한 경제 토대도 닦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명백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전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 경제는 류례 없이 파괴되였지만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고무된 전체 인민의 헌신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전후 불과 3—4년 간에 우리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 생활을 현저히 개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무참하게 파괴되였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고 많은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되여 전쟁 전보다 약 3배나 더 많은 공업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 경리는 분산된 개인농 경리로

부터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로 전변되였으며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은 급속한 템포로 장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320만 톤의 알곡 수확을 냄으로써 곤난하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은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그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더욱더 높아 가고 있습니다.

공장과 광산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건설장과 벌목장들에서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커다란 전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서 착취와 압박이 없고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제 1차 5개년 계획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방대한 강령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행하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의 공업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장차 우리의 공업, 농촌 경리, 철도 운수, 기본 건설 등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인 기계 기술로써 장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공업 및 농업 생산력은 새로운 수준에로 발전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될 것입니다.

인민 생활의 개선 향상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서 기본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가서는 각종 직물이 인구 1인당 18메터 이상 차례지게 될 것인바 이렇게 되면 입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식량은 완전히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육류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며 물'고기는 인구 1인당 60키로그람 이상 공급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에 30만 세대의 현대적 주택과 농촌에 20만 세대의 문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을 가져 오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반부에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힘으로 됩니다. (박수)

오늘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리 승만 역도의 파쑈 테로 통치 제도 밑에서 갖은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략탈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경제는 더욱더 파산되여 가고 있습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을 마음대로 략탈하며 학살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 인민은 미국 살인 강도들을 우리 땅에서 물러 가게 하고 하루 속히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미국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퇴케 하고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평화적 통일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며 민주 기지를

더욱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북반부에서 자립적인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우리 인민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풍부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북반부와 같은 행복한 사회 제도를 요구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구국 투쟁에 더욱더 용감히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민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합니다. (**박수**)

물론 5개년 계획의 수행은 방대하고도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능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미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제를 승리적으로 초과 완수하였으며 두 번째 해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면 우리는 전체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조선 인민은 자기 앞에 제기된 5개년 계획의 과업을 반드시 초과 완수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동무들!

일제 시기에 량강도 일대는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 발전이 가장 락후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가장 낮은 산간 벽지였습니다.

해방후 당과 정부의 배려와 도내 인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량강도의 면모는 점차 개변되였으며 특히 전후 시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삼수 갑산이라 하면 사람들이 감자나 겨우 파 먹고 옷도 없이 헐벗고 사는 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삼수 갑산은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오늘의 삼수 갑산은 인민 생활이 개선되고 인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적 삼수 갑산으로 전변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번 량강도의 각지를 본 데서 얻은 커다란 인상은 량강도도 다른 평지대의 도들만 못하지 않게 경제가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전체 조선 인민의 커다란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5개년 계획 기간에 도내 근로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량강도의 경제와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량강도의 자연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게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협동 경리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문제입니다.

산간 지대인 량강도에서는 다른 어느 도보다도 협동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량강도에서는 알곡만을 가지고는 농업 생산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 먹으라》는 구호는 량강도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공예 작물, 목축, 양봉, 작잠 등을 옳게 배합하여 경영하며 각종 부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협동 경리의 수익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름이 짧고 기후가 찬 량강도에서 랭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농산물의 수확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아마, 감자, 호쁘 등 랭해에 잘 견디고 이 지방에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다량적으로 재배하며 종자는 조숙종을 선택하여 파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동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랭해를 극복함으로써만 농업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해 동안에 전체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량강도 농민들도 주어진 자연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경리를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면 자기의 생활을 능히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협동화가 거의 다 완성된 조건에서 협동 경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조합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경리 형태는 이미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으나 농민들의 의식과 문화 수준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사상 의식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들의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겠습니다.

매개 농민들을, 착취 제도를 증오하며 적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며 협동 경리의 공동 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인민들과 특히 젊은 후대들에게 일제를 반대한 빨찌산과 인민들의 투쟁 업적을 잘 알려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혁명 전통을 옳게 계승하며 더욱 발전시키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협동 조합들에서 혁명가.유가족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원호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일체 락후하고 비문화적인 것들을 퇴치하고 우리 농촌을 문화적인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 주택들을 아름답고 쓸모 있게 건설하며 우물을 개조하고 목욕탕, 세탁소 등도 건설하며 보건 위생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량강도는 우리 나라에서 림산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서 유명합니다.

광범한 기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입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인조 섬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막대한 목재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량강도 내에서는 산림 자원을 애호하며 육성하는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산화를 미연에 방지하며 산림을 람벌하는 현상들과 투쟁하며 식수 조림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림산 자원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림업 부문 로동자들은 벌목 운재 사업과 목재 가공 사업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벌목한 목재를 산에 사장시키거나 벌목 가공에서 목재를 랑비하는 현상들과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무아지로부터 나무껍질이나 톱밥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버리거나 랑비함이 없이 목재를 가장 합리적으로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량강도에서는 지하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량강도 일대에 걸쳐 지질 탐사 사업을 광범히 진행함으로써 각종 지하 자원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개발된 갑산 광산을 더욱 확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산 광산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갑산 광산에서는 매장량을 더욱 탐사하며 광석 채취률과 선광 실수률을 제고하며 동 채굴량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내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량강도에서 인민들에게 요구되는 각종 소비품들을 전부 타 지방에서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지방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만 지방 자원을 광범히 동원 리용할 수 있으며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과 목재 가공에서 나오는 폐품들을 리용하여 각종 소비품들을 다량적으로 생

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문화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며 그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량강도에서 특히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초중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초중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하여 교사를 건설 확장하며 교원들을 재교양 및 새로 양성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량강도에서도 어린 세대들이 모두가 다 초중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가까운 년간에 도내 전체 근로자들이 인민 학교 또는 초중 이상의 지식을 소유하게끔 성인 교육 사업을 강화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선진 과학과 기술 지식을 광범히 보급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농촌들이 분산되여 있는 형편을 옳게 고려하여 인민들이 문화 생활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량강도 일대의 산과 물, 나무와 풀들에는 항일 빨찌산과 그를 돕던 인민들의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량강도 내 전체 인민들은 의의 깊은 자기 향토를 더욱 사랑하며 그것을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항일 빨찌산의 훌륭한 혁명 전통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여 과거와 같이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직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볼가리야 공산당 제 7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58년 6월 3일)

엔. 에쓰. 흐루쑈브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전체 우리 당과 쏘베트 인민의 명의로 불가리야 공산당 제 7차 대회와 불가리야 공산당원들과 전체 불가리야 인민에게 열렬한 형제적 축하를 보내며 귀 대회 사업에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 전원 기립)**

우리 당과 쏘련 인민들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불가리야 공산당이 제 7차 대회에 이르기까지에 이룩한 빛나는 제반 성과를 당신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한다.

불가리야 인민은 자기 공산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사회 건설 도상에서 거대한 일보 전진을 이룩하였다. 쏘련 근로자들은 불가리야 인민이 달성한 력사적 승리에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한다. **(계속되는 박수)**

쥡꼬브 동지가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결 보고에서 명백히 보여 준 바와 같이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경제의 급격한 장성, 인민의 물질적 복리의 부단한 개선과 문화 수준의 향상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뚜렷이 확증하여 준다. **(계속되는 박수)**

부르죠아지의 종복들은 소위 자유 기업 체계의 있지도 않은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어 대기를 좋아 한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 체계는 인간 념원의 절정이고 더 좋은 것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은 여기에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선 나라들처럼 그러한 짧은 기간에 그와 같은 현저한 성과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달성한 자본주의 나라를 하나도 들지 못하는가? 불가리야의 린방인 희랍과 토이기를 례로 들어 보자. 통계 자료는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선 인민 불가리야가 자국의 경제 및 문화의 앙양에서 린방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박수)**

총괄적으로 사회주의 제 국가에서는 공업 생산량이 전전 수준에 비하여 4배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발광적인 군비 경쟁과 기타 《경기 진흥》 방법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량은 2배도 장성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공업 생산의 속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량에 있어서도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앞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굳게 확신한다. **(박수)** 우리의 이러한 확신은 현실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쏘련은 공업 총생산량에 있어서나 인구 1인당 제품 생산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에 이미 현저하게 접근하였다. **(박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과는 이미 일반이 다 아는 바이다. 현재 쏘련은 인구 1인당 제품 생산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라 잡고 앞서 나갈 데 대한 기본 경제 과업을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내에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박수)** 현재 중화 인민 공화국은 강철 및 기타 중요 공업 제품 생산량에서 15년 동안에 영국을 따라 잡고 앞서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박수)** 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은 인구 1인당 강철 생산에 있어서는 이미 서전과 불란서와 서부 독일을 앞섰고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불란서와 이태리를 앞섰다. **(박수)**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고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됨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그 의의로 보아 극히 중요한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이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주인답게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사회주의 제 국가의 경제적 협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언급하려고 한다.

얼마 전에 모쓰크바에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참가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또한 중국 공산당, 조선 로동당, 월남 로동당 및 몽고 인민 혁명당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회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가 현저히 확대 강화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경제적 협조의 형태를 가일층 완성하며 인민 경제의 호상 련결된 부문들의 생산을 더욱 철저히 전문화하며 협동화하는 문제들이라는 일치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사회주의 제 국가의 국제적 분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심화하기 위하여 이 회의가 작성한 제반 대책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은 우리 매개 나라에서 자연 부원과 경제적 자원의 가장 합목적적인 리용,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및 인민 복리의 가일층의 장성을 보장하여 줄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경제적 협조의 합리적 조직은 의심할 바 없이 매개 나라의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주의 진영 전반의 경제적 위력의 강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11월 회의는 물론, 최근의 모쓰크바 회의도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불패의 통일을 시위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기들의 대가정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협조를 발전 개선시킬 데 대한 그들의 깊은 관심을 시위하였다. **(계속되는 박수)**

부르조아 이데올로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 및 공고화가 이 진영에 가입한 나라들의 자주성과 민족적 독립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형성된 이래 사회주의 제 국가의 협조를 발전시켜 온 일체 경험은 다름아닌 바로 사회주의가 인민들에게 진정한 국가적 자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립증하여 준다. 사회주의 진영——이는 평등하고 자주적인 국가들의 자원적 동맹인바 이 동맹내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권리나, 특전이나, 우월성을 찾고 있지 않으며 또 획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매개 사회주의 나라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자국의 협조 형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일에는 여하한 강요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이 나라들이 제각기 단독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게 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에 있는 풍부한 가능성들을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완전히 리용할 수 있겠는가? 만일 사회주의 나라들이 따로따로 행동하게 된다면 현 국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전취물의 믿음직한 수호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할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 제 국가의 통일만이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새 전쟁 방지를 위한 투쟁에서와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힘과 위력을 증대시킨다. 생활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통일의 공고화가 이 나라들 중 그 어느 나라의 민족적 리익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이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주권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보여 주었다. **(우렁찬 박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오직 사회주의 제 국가의 단결,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한 그들 간의 전면적 협조와 형제적 호상 원조의 강화만이 사회주의 경제의 공동적 앙양을 보장하며 종전에 락후하던 나라들을 선진 국가의 수준에까지 올려 세울 수 있게 하며 과거로부터 유산으로 물려 받은 경제 및 문화 발전 정도상의 실제적 불평등을 청산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단결은 무엇보다도 먼저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검열된 확고부동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에 의하여 보장된다. 매개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제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원칙들을 자기 나라 조건에 구현하는 가장 합목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들을 강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리론과 실천에,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수)**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웨. 이.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과 새 사회 제도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들을 창조하며 발전시키며 완성함에 있어서의 대중의 혁명적 창발성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맑스주의는——하고 웨. 이. 레닌은 썼다——객관적 사태의 분석과 객관적 진화 행정의 분석에 있어서의 완전한 과학적인 랭정성이 대중들…의 혁명적 정력, 혁명적 창발성, 혁명적 주동성이 갖는 의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인정과 훌륭히 결합되여 있는 점에서 기타 모든 사회주의적 리론들과 구별된다》(전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제 13권, 28페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발전은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계급의 모든 혁명적 당들의 사업으로 된다. **(박수)** 례하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자국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실천과 훌륭히 결합시키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의 리론과 실천에 얼마나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아는 바이다. 또한 구라파 및 아세아의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의한 과도기 문제의 창조적 구명, 특히 사회주의적 원칙 우에서 진행된 농촌 경리의 재건에 대한 불가리야 공산당의 경험도 역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박수)**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에서 강구되고 적용된 농업 생산 협동화의 형태들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불가리야의 구체적 조건 및 특수성과 옳게 결합시킨 모범의 하나로 된다. **(박수)** 귀 당의 경험은, 어떠한 민족적 특수성이 존재하던 간에 광범한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에 인입함에 있어서는 실생활을 통하여 검열된 레닌적 협동화 계획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었다. **(계속되는 박수)**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의 결정이 가지는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은 이 결정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의 기원을 열어 놓았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자본주의 제 국가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현 정세하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의 형태와 방법들을 강구함으로써 레닌적 사회주의 혁명 리론을 풍부히 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되여 있다: 《생활의 경험에 의하여 검열된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의 창조적 적용과 각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각이한 형태 및 방법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집체적 공헌으로 된다》. 이러한 집체적 공헌 속에는 매개 공산당의 몫이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경험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수)**

이 선언이 가지는 힘과 의의는 이 선언에서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경험,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 세계 민족 해방 운동의 경험이 일반화되여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력사적 문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들이 우리 시대의 제 조건에 적응하여 더욱 더 창조적으로 발전되였다.

우리는 현 조건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발전에 대하여 말할 때 유고슬라비

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에 포함되여 있는 원칙상 옳지 않은 주장들을 묵과할 수 없다. 이 초안에서는 마치 《맑스주의 사상이 최근 수십년 동안에 현대 사회 발전에서 뒤떨어》진 듯이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현대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가일층의 과학적, 맑스주의적 해명에서, 특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제 합법칙성과 모순에 대한 해명에서 많은 공백들이 생기게 되였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수십년 동안에 쏘련 공산당이 그리고 또한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새로운 것을 그렇게도 많이 기여한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년간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발전이 특히 과도기의 합법칙성을 구명하는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년간에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되였으며(우렁찬 박수),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공산당의 령도 밑에 정권이 로동 계급의 수중에로 혁명적으로 넘어 가게 되였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새로운 형태인 인민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발전하였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다. 중국 공산당과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형제 당들은 광범한 규모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개조를 실현하였으며 레닌적 협동화 계획을 실현하는 독특한 형태들을 발견하였다.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조국 전선 또는 민족 전선과 같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근로 대중을 단결시키는 형태가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발전을 보게 되였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에는 소위 《공백들》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현실과 모순되며, 또 그런 주장은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과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립증하여 줄 뿐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제 7차 대회에서 한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연설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들을 실용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마 유고슬라비야 동지들은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경제 및 문화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보장하는 실제적 대책들을 강구 실행하는 데 자기의 주력을 돌리고 있는 것을 실용주의라고 리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익과 사회주의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근로 대중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정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생산 수단이 누구의 수중에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하며 인민 경제 발전의 결과와 과학 및 기술의 성과에 의해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과 복리가 어떻게 장성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우렁찬 박수) 바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리론 및 실천상 문제의 구명이야말로 맑스—레닌주의의 진정한 창조적 발전으로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 리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자기의 모든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이는 우리의 라침판이며 우리의 향도성이다. 맑스—레닌주의의 힘은 그것이 생활, 사회 발전 과정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데 있다. (박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로 인민은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아직 가지기 전에 사회주의를 동경하게 된다. 로동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로부터, 그의 불치의 재난과 악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암흑으로부터 나오는 출구를 찾는다. 그리하여 과학적 공산주의 리론으로 무장한 혁명적 당이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를 옳게 조직하여 그들을 새 생활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인도하는 때에만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가장 광범한 근로 대중이 알 수 있고 리해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맑스주의 당은 근로 대중을 혁명 투쟁의 실천에 인입시키며 사회를 개조하는 구체적인 과업의 해결에로 그들을 인도함과 동시에 이로써 또한 로동자와 농민들로 하여금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리성에 의해서 리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조성한다.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 기초하여 리론상 원칙들이 가일층 발전한다.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맑스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공산당의 령도 밑에 근로 농민과 동맹하여 1917년 10월에 나라의 경제와 일체 생활을 사회주의적 원칙 우에서 재건하기 위하여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일찌기 쏘베트 정권 초기에 위대한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 계획을 작성하면서, 모든 인민 경제 부문들을 앙양시키는 기초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가장 중요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레닌의 지도 밑에 우리 나라를 전기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되였는바 이 계획을 레닌은 당의 제 2 강령이라고 불렀다. 과연 이것은 레닌이 사회주의 건설의 리론과 실천 문제를 그것들의 불가분리의 통일 가운데서 고찰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로동 계급이 정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쥔 후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 및 문화 건설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구현되며 가일층 발전한다.

쏘베트 국가 창건 이후 40년 간에 우리 당은 쏘베트 인민의 창조적 노력을 사회주의 사회 창건에 돌리면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쏘련 공산당이 최근에 해결한 몇 가지 문제들을 례로 들어 보자. 당은 공업 및 건설 관리의 개편을 위하여 큰 사업을 하였는바, 이것은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은 리론상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천상 문제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것은——거대한 실천 및 리론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 분야에서 일련의 큰 대책들을 실시하였는데, 이 대책들이 실현된 결과에 우리 나라에서는 거대한 예비와 가능성이 개발되였다. 쏘련의 농촌 경리는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1955년 초에 축산업 발전 6개년 계획이 작성되였다. 사회주의 경리 운영의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이 작성한 대책들이 실시된 결과에, 또한 대중이 이 대책의 필요성을 심오히 리해한 결과에 우유 및 우락 제품 생산 6개년 계획은 기한 전에 즉 3년 간에 완수되였다. (박수)

1년 전에 쏘련의 선진 꼴호즈와 쏩호즈들은 당 중앙 위원회가 지지한 과업 즉 육류, 우유 및 빠터의 인구 1인당 생산에서 가까운 시기에 미국을 따라 잡고 앞서는 과업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리라고 확신한다. (박수)

그러면 이것은 실천상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리론상 문제인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실천상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라의 인민 경제가 번영하며 해마다 사회적 재부가 증대되며 사람들이 로동에 대하여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며 근로자들의 복리가 증대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사회주의의 진지가 공공히 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제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들은 큰 리론상 문제들인 것이다. (박수)

얼마 전에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발기에 따라 꼴호즈 제도의 가일층의 발전과 농기계 뜨락또르 임경소의 개편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지금 기계들이 직접 꼴호즈에 매도되고 있으며 엠. 떼. 에쓰는 기계 수리소로 개편되였다. 꼴호즈들에서의 춘기 전야 작업의 진행은 이 시책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꼴호즈들에서 뜨락또르 및 기타 농기계들은 엠. 떼 에쓰에서보다 나쁘지 않게, 아니 더 잘 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지 실천상 문제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리론상 문제에 불과한가? 그렇

지 않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리론상 문제이기도 하며 실천상 문제이기도 하다. **(《옳소!》라는 웨침. 박수)**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5월 전원 회의에서는 쏘련 화학 공업 발전의 방대한 계획이 채택되였다. 이 계획의 수행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많은 부문들의 가일층의 기술적 진보를 보장할 것이며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할 과업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일견 이 모든 문제들은 특히 실천상의 문제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문제들은 동시에 리론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개 전일체의 두 측면인 리론과 실천을 보게 된다. 우리는 공업, 농업 및 문화의 발전에서 거둔 자기의 제반 성과를 통하여 우리의 리론적 사고의 우월성을, 사회주의 사회가 립각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힘과 생활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 리론을 실천에 적용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미래로 가는 새 길을 개척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혁명적 리론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수백만 사람들의 경험으로써 풍부히 하고 있다.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실천상 문제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발전에 직접 관련되는 리론상 문제이기도 하다. 량자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실천 없는 리론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는 꽃과 같다.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가. 즉 뜰에 꽃이 피게 되면 사람은 꽃피는 나무를 보고 기뻐한다. 그는 가을이 오면 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여 그가 들인 품의 대'가를 받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꽃피는 시절이 지나서 사람은 꽃이 진 다음에 자방(子房)이 맺히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열매는 달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은 선량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결국 기만을 당하였다고 느낀다. 뜰에 꽃이 피고 향기를 풍기자 그는 기뻐했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뜰은 그에게 이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들인 품은 허사로 돌아갔고 사람이 가꾼 뜰은 그의 노력에 대하여 보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리론가들에게서도 심한 환멸을 느낀다. **(장내에 웃음)** 공담을 일삼는 일부 리론가들의 화려한 연설들과 론의들을 듣고 사람들은 왕왕 기뻐하며 그러한 사람들의 요란한 공담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미사려구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장내가 흥성거린다. 박수)** 미사려구는 생활과 동떨어진 빈 약속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리론가들》의 미사려구란 자방(子房) 없는 꽃이고 요설이며, 따라서 실속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자 그들은 이러한 《리론가들》과 그들의 《리론》에 외면하게 된다. **(《옳소!》라는 웨침. 계속되는 박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리론이 백전 백승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리유는 다름 아니라 이 리론이 생활 및 사회 발전 과정과 긴밀히 련결되고 이 생활 속에서 력사적인 검열을 거쳐 왔다는 데 있다. **(박수)**

선질적인 혁명적 리론에 의하여 천명되지 않은 실천은 암중 모색하는 형편에 처하기 마련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실천적인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길을 밝혀 준다. **(박수)** 그러나 한갖 실천이 없는 리론은 생명이 없고 결실이 없는 것이다. 웨. 이. 레닌은 생활에서 유리되여 추상적인 리론적 론의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을 조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대중적* 로동 운동의 실천이 리론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게 중요하며, 따라서 오직 이 실천만이 우리의 원칙을 착실하게 검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한다. 〈여보게, 리론은 회색이고, 푸른 것은 영원한 생의 나무일세〉》 **(박수)**(전집, 제20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678페지).

인류 사회의 력사상에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생활 자체로부터 흘러 나오지 않았고 실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리론적 명제들이 제기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 그러한 리론적 명제들은 인류에게 아무러한 리익도 줌이 없이 곧 사멸하여 버렸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생활력은 이 리론이 로동 계급의 투쟁 행정에서 발생하고 실천과의 불가분리의 련계 속에서 발전하면서 가장 긴절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인류에게 준다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 명제들의 정당성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 실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론증되고 있다. 그 정당성은 우리 당과 사회주의 나라들의 전체 형제 당들의 극히 풍부한 경험에 의하여 확증되고 있다. 그 정당성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들의 경험에 의하여 확증되고 있다. 그 공산당들은 혁명적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투쟁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란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그것은 즉 착취 계급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절할 필요성이며, 창조된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가 사회적 재산으로 되며, 따라서 이 재부들을 창조한 사람들 자신이 자기 의사대로 이것들을 처리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며 요구에 따라 받으면서 자기 로동의 온갖 복리를 향유하는 그러한 사회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이것은 광명한 미래이며, 인류는 그것을 지향한다. **(우렁찬 박수)**

일부 《리론가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실천 활동을 백방으로 폄하하려고 시도하며 이 활동을 《실용주의》라고 경멸적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은 어째서 자기들이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 동냥을 받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는 리론의 견지에서도, 실천의 견지에서도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내가 흥성거린다. 《옳소!》라는 웨침. 우렁찬 박수)**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써는 사회주의적 경제를 일며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자각적인 근로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사회주의의 성과가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련한 리론가들은 자기들이 내놓은 《리론》이 로동 계급의 위업에 어떠한 해독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때때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한편 제국주의 계층은 바라는바를 잘 알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들에게 도움으로 되는 것을 지지하고 고무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할만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나는 그 누구를 모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에 도처에서 성실한 공산주의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도 없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말살해 버리며 공산주의 운동을 압살해 버리려고 애쓰는 제국주의 우두머리들이 어째서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나라들 중의 한 나라에 자금을 공급하며 특혜 그레지트와 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가? **(웃음. 박수)** 하나는 세계 반동의 지독한 증오를 받는 사회주의, 또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용납되고 그들에게서 원조와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 이러한 두 가지의 사회주의가 세계에 존재한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장내에 웃음. 박수)**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단지 《눈이 곱다고 해서》 그저 돈을 주는 일은 결코 없다. 즉 그들은 리익이 많이 나리라고 기대되는 기업에만 자기의 자본을 투하한다. **(장내가 흥성거린다. 박수)**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원조》를 주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미국 독점 계층이 사회주의의 강화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장내에 웃음. 박수)** 이 나라의 대표자들은 마치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물러 서고 그들이 옳은 립장에 서 있다는 듯이 주장한다. 여기서 아주 괴이한

명제가 나온다. 즉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통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장내에 웃음)** 여기서 베벨이 한 다음과 같은 적절한 말을 상기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원쑤가 너를 칭찬한다면, 네가 어떤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장내에 웃음. 계속되는 박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로동 계급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힘을 끌어 모으고 있는 때에 사회주의를 위한 투사로 자칭하는 일부 활동가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의지를 약화시키며 로동 계급의 선봉대인 공산당과 로동당들을 약화시키며 그 당들의 경각성을 무디게 하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동맹자들》을 고려에 넣은 부르조아 침략 계층은 정말 그 어떤 기대를 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그들의 시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리라는 데 대하여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이 허망한 기대도 파탄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과 또 제국주의자들이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통일을 약화하려는 자기들의 타산을 시도했을 때마다 매번 그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기업》에 투하한 자금도 수포로 돌아 가고 말리라는 것을 특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 《옳소!》라는 웨침. 대회의 대표들과 래빈들은 일어 서서 《쏘련 공산당!》, 《쏘련 공산당!》, 《쏘련 공산당!》 하고 소리를 맞추어 웨친다)**

공산당들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눈'동자처럼 보호 유지하고 있다. 공산당들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들의 주되는 화력은 물론 제국주의 진영의 정탐인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트로이의 말(馬)에 관한 고대 전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적들이 포위와 돌격으로써 트로이시를 점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트로이 사람들에게 목마(木馬)를 《선사》하였는데 그 속에는 밤에 성문을 열 자기편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다.

현대 수정주의——이것은 일종의 트로이의 말이다. **(《옳소!》라는 웨침. 박수)**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적 당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통일을 파괴하며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분렬과 혼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어림 없소!》 라는 웨침. 박수)**

동지들!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자기의 력사적인 선언에서 일치하게 수정주의를 신랄히 평가하고, 수정주의는 현 조건하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위험성이라고 언명하였다. 수정주의——이것은 우경 기회주의이며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발현으로서 그것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정력을 마비시키며 자본주의의 유지 또는 회복을 요구한다. 선언에는 아주 정당하게 다음과 같이 강조되여 있다: 《부르조아적 영향의 존재는 수정주의의 내'적 근원이며 제국주의의 압박에 대한 투항은 수정주의의 외'적 근원이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제 국가 형제 당들의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을 열렬히 찬동하였으며 이 선언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강령적 문헌으로 인정하였다. 이 문헌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사회 발전의 기본 법칙들이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분석되여 있으며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제 과업이 특히 명백하게 규정되여 있다.

전체 공산당들과 로동당들 가운데서 단 하나의 당 즉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만이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명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전체 맑스—레닌주의 당들에 자신을 대립시켰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이러한 립장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에서 또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제 7차 대회 사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였다. 전체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의,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되는 수정주의적 명제들과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그릇된 립장을 단호히 규탄함으로써 완전한 일치성을 보여 주었다.

대표 동지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쏘련 공산당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간의 관계에 관하여 몇 가지 소감을 이야기하고저 한다. 내가 귀 대회에서 이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쏘련 공산당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간의 관계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형제 당들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간의 관계에도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제 당들의 선언에서는 그 당들의 일치한 견지가 표명되였으며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그 당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명시되였다.

맑스, 엥겔스, 레닌은 항상 과학적 공산주의의 사상적 제 원칙의 순결성을 위한 투쟁에 제 1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그들은 로동 계급의 전투적 리론에서 혁명적 정신을 빼내려는 온갖 시도에 대하여 비타협적이였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과학적 공산주의 리론은 로동 계급이 자신을 해방하며 공산주의적 원칙에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주되는 사상적 무기로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동도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웨. 이. 레닌이 혁명적인 창조적 맑스주의를 고수하면서 국제 수정주의와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등등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얼마나 거대한 투쟁을 진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비타협적인 사상 투쟁을 통하여 로동 계급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장성 강화되였고 단련되였으며, 이 당들은 오늘날 국제 로동 운동의 위력 있는 조직적 및 고무적 력량으로 되였다.

우리의 스승들과 수령들의 유훈에 충실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 제 원칙의 순결성을 경각성 있게 수호하고 있으며, 이 당들은 이 원칙들에 대한 어떠한 외곡 또는 리탈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형제적 공산당들의 통일을 약화하며 각국의 로동 계급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파괴하며 그들의 혁명적 투쟁을 와해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반대하여 철저하고 단호하게 나서고 있다. 혁명 운동에 있어서 특히 위험한 것은,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칭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로동 운동에서 계급적 원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리론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며, 맑스—래닌주의를 수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이다. **(박수)**

우리 당들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간의 관계에는 일정한 력사가 있다. 이 력사의 몇몇 중요한 시기들을 지금 상기하게 된다.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1948년 이전에는 유고슬라비야와 쏘련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여 있었다. 이 관계는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의 파씨스트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또 전후의 첫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제국주의 반동이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강한 공격을 개시했던 1947년 9월에 쏘련,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공산당들과 그리고 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의 일부 공산당들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보도국을 조직하였고 그 상설 기관들은 초기에 벨그라드에 있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일정한 단계에서 보도국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력량을 단결시킴에 있어서, 공고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운동의 력사에서 일정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는 박수)**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은 쏘련 공산당과 기타 일련의 형제 당들과 더불어 보도국의 조직자의 하나였으며, 초기의 그 활동의 적극적인 참가자였다. 1948년 이전의 사태는 이러하였다. 그 후 유고슬라비야 공산당과 기타 형제 당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였다.

1948년에 보도국 회의에서는 《유고슬라비야 공산당내의 정형에 관하여》라는 결의문을 채

택하였다. 그 내용은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의 활동을 정당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결의문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것이였으며 혁명 운동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였다. 그 후 1949—1953년간에 유고슬라비야 공산당과 기타 형제 당들 사이에는 알륵이 조성되였으며, 그 당시 투쟁 행정에서 약간의 오유를 범하였고 우리의 공동 위업에 해를 끼친 간극이 나타났다.

우리의 나라들과 인민들에 대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느낀 쏘련 공산당은 이 알륵을 청산하며 우리 나라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쏘련 공산당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간의 접촉과 협조를 설정할 것을 발기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발기에 의하여 1955년 5—6월에 쏘련과 유고슬라비야 량 대표단 간에 회담이 진행되였고 이 회담은 벨그라드 선언의 조인으로써 결속되였다. 벨그라드 회담시에 찌또 동지가 과거를 뒤적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새 기초 우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이 주장에 즐겨 동의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친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 때 우리는 우리 량 당간에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상의 의견 상위가 남아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우리측에서는 원칙적인 기초 우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기초 우에서 견해의 일치를 달성하려고 많이 참고 견디였다.

그러나 생활은,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여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릇된 립장을 버리고 맑스—레닌주의 립장에 확고히 설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에도 계속 반쏘적 성명을 들고 나왔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형제적 공산당들을 반대하여 독설을 퍼부었다. 특히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웽그리야 사건 시기에 한 자기들의 공개적인 연설들과 자기들의 행동들로써 사회주의 위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부다베스트에서의 반혁명적인 폭동시에 유고슬라비야 대사관은 사실상 웽그리야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으킨 자들의 근거지로 되였으며, 나지 —로숀찌 투항—반역 집단의 피난처로 되였었다. 찌또 동지가 뿔라에서 한 전례 없는 연설을 상기해 보라. 그 연설에서는 웽그리야의 폭도들이 옹호되고 웽그리야 인민에게 준 쏘련의 형제적 원조는 《쏘베트적 무력 간섭》이라고 불리웠다. 그 연설에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일정한 세력에게 소위 《유고슬라비야의 로선》을 따르라고 로골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지들, 이 로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이 로선을 따라 보라.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립장에 진실하게 서 있는 당들은 그 로선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박수)** 우리 사회주의 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라는 라침판이 가리키는대로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고히 나아가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이러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득이 그들의 견해와 행동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전체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원칙적인 맑스—레닌주의 립장에 서 있는 형제 당들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나라들과 형제 당들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분렬적인 행동으로써 유고슬라비야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을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으로부터 고립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그 후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1957년 8월에 부카레스트에서 쏘련과 유고슬라비야 대표단들의 주지된 회합이 진행되였다. 이 회합에서 우리는 웽그리야 문제와 기타 문제들에서의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정책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쌍

방간에는 이데올로기상 문제들에 있어서 일정한 의견 상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회담의 결과에 현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다.

부카레스트 회합에서 우리는 의견상 일치를 보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친선적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개척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만일 그들이 앞으로도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와 형제 당들을 반대하여 공격한다면 그러한 어떤 시도도 우리의 응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솔직히 언명하였다. 용감성과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에 대한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 형제적 불가리야 공산당 앞에서 나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언명하는 바이다.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

부카레스트 회합에서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대표단이, 준비중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 형제 당들의 회의와 그리고 이 회의의 명의로 되는 선언의 초안 작성에 참가할데 관한 합의가 달성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된 사변들은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이 합의된 립장으로부터 물러 섰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선언에 서명할 것을 거부한 후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정강 즉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일치한 견해와 모순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위한 강령적 문헌으로 되기를 참망하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을 들고 나오기로 하였던 것이다.

물론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들 내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강령 초안이 다른 나라 당들과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하여 고의적이며 모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원리를 수정하고 있는만큼 우리 당은 이 문헌의 반맑스주의적 론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자기의 직접적인 의무로 간주하였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서한들과 우리 나라 당 출판물에 게재된 우리 당의 원칙적인 립장은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으로부터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형제 당들의 동지적이며 원칙적인 비판을 거부하였으며 자기의 그릇된, 반맑스주의적 견해를 계속 완강히 고집함으로써 또 다시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을 곤경에 처하게 한 제 원인을 신중히 분석할 대신에 형제 당들이 그들에 대하여 비객관적으로 대하며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내부 문제에 간섭한다고 비난하려 하고 있다. 실로 이것이야 말로 《적반하장》 격이 아니겠는가! **(장내는 흥성거린다)**

일부 유고슬라비야 동지들은 자기의 오유에 대한 개별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평가 가운데서 차이점을 찾아 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쏘련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의 오유들을 자기류로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좀 유달리 취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에 대한 형제 당들의 비판 가운데서 그 어떠한 차이점을 찾으려는 시도들은 헛수고일 것이다. 모든 형제 당들은 이 점에서 일치되여 있다. 우리는 중국 동지들이 다른 형제 당들과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의 수정주의적 론제들을 전적으로 정당하게 또 신중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제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이 원칙적인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회주의의 력량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은 수정주의와의 투쟁에서만 즉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순결성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다. **(계속되는 박수)**

최근에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기관지인 주간 잡지 《꼼무니스트》에는 벨그라드 선언 조인 3주년에 제한 론문이 게재되였다. 일견 이 론문은 부드러운 어조로 씌여져 있으며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과 다른 형

제 당들 간의 관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목적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론문은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그릇된 립장을 정당화하려 하는 아주 옳지 못한 론문이다. 례컨대 이 론문은 평화를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본 내용인 것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투사가 평화 위업의 철저한 투사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평화 위업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제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인사들도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개별적 보수주의자들, 종교인들 및 각종 부르죠아적 사회 정치 활동가들도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물론 우리들은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전 노력을 그들과 단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화를 위한 투쟁에는 각이한 견해와 각이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 및 단체들이 단합될 수 있으며 또 단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 론의의 대상으로 될 때에는 문제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로동 계급과 자본가들, 그리고 공산당들과 부르죠아 정당들의 공동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맑스—레닌주의의 립장에 선 로동 계급의 당들의 견해의 일치, 그들의 행동 통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철저한 실시, 그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인민들의 형제적 호상 원조를 요구한다. (**박수**)

우리는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국가들 간의 협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립장을 고수해 왔으며 또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공화국과도 이러한 관계를 견지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자로서 더 큰 것을 원한다. 즉 우리는 당적 면에서 호상 리해와 협조에 도달할 것을 원한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들은 적지 않은 혁명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의 공동의 계급적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 유고슬라비야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은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에 파씨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물론 우리들은 당적 면에서 협조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면에서 유고슬라비야와의 정상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들은 이데올로기 문제들에 있어서의 외곡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통일을 수호하며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언명하는 바이다.

동지들! 나는 1956년에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주고 받던 한토막의 이야기가 회상된다. 나는 그 때에 우리들의 의견 상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원칙적인 기초 우에서 보다 조속히 의견 일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형편과 우리들의 호상 관계를 보다 심오히 분석하며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는 데 옳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하여 찌또 동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나는 여기에서 《전 중대가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병사만은 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알려진 비유를 상기시키면서 누가 누구의 보조를 맞춰야 하는가 즉 중대가 병사의 발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병사가 중대의 보조를 맞춰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장내는 흥성거린다**) 이 담화에 참가하고 있던 꼬차 뽀뽀비치는 《그런데 누가 중대이고 누가 병사입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이 반문에 대하여 《누가 중대이고 누가 병사인지 당신 자신이 생각해 보시요》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계속하여 《어쨌든 중대는 어디까지나 중대이고 한 병사는 이 중대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대가 병사의 발에 보조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매개 병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내는 흥성거린다. 박수**) 만약 당신들이 다른 립장에 서 있다면 당신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으면서 보조를 맞추어 자이좋게 나아가고 있는 이 공산주의 중대에 속하는 병사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시요》라고 하였다. (**계속되는 박수**)

우리는 공산주의를 위한 투사들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인 우리의 국제적 군대의 통일을 언제나 성스럽게 수호할 것이다. 쏘련, 중국, 불가리야 및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의 형제적 공산당들과 전 세계 공산당들은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으며 그들은 현대 수정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백전 백승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이 영광스러운 기치 밑에서 자기의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가고 있다. (**계속되는 박수**)

동지들! 불가리야 공산당 제 7차 대회는 불가리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시기를 총화하며 금후 불가리야가 사회주의에로 전진해야 할 그 길을 규정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당신들이 제기하는 새 과업들은 당신들의 전투적인 공산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불가리야 인민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불가리야 로동 계급과 전체 불가리야 인민은 자기의 공산당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다. (**우렁찬 박수**) 불가리야 공산당은 수십년에 걸치는 제국주의적 반동 및 파씨즘의 세력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단련되였으며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을 자유로운 사회주의적 불가리야를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당신들의 당의 적지 않은 훌륭한 아들들이 로동 계급의 위업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당신들의 당은 지미뜨르 블라고예브, 게오르기 지미뜨로브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그것으로부터의 여하한 퇴각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으로 교양되였다. 이와 같은 훌륭한 품성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체 사회주의 나라들, 공산당들 및 로동당들의 불패의 친선 및 단결을 위한 불가리야 공산당원들의 완강한 투쟁에서 새로운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가리야 공산당은 그의 레닌적인 국제주의적 정책과 우리들의 공동 위업에 대한 충실성으로 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모든 형제 당들의 대렬 속에서 크나 큰 존경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박수**)

불가리야 공산당과 항상 긴밀히 련결되여 온 형제 당인 우리 쏘련 공산당은,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 문제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 문제에 대한 불가리야 공산당의 옳은 로선과 정책은 그 지도의 맑스—레닌주의적 능숙성과 맑스—레닌주의 제 원칙을 창조적으로 연구하며 실천에 적용하는 그 중앙 위원회의 수완에 대한 증거로 된다는 것을 기쁘게 지적한다. (**계속되는 박수**)

우리는 불가리야 공산당이 이 세련된 지도부 주위에 자기의 대렬을 더욱더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더 큰 승리를 달성하며 또 항상 그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첫 대렬에 서서 나아가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렁찬 박수**)

쏘련 공산당과 불가리야 공산당 사이의 호상 관계는 언제나 가장 훌륭하고 참으로 형제적인 관계였으며 또 현재도 그러하다. 이 관계는 불가리야 공산당 지도부의 선두에 불가리야 인민의 위대한 아들 게오르기 지미뜨로브가 서 있던 당시에 그러하였고 또 이 관계는 그의 서거후 불가리야 공산당과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의 지도부에 지미뜨로브의 충실한 후계자들,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을 선두로 한 충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서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계속 그러하다.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

나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명의로 우리 량 당과 우리 량국 간에 언제나 또 모든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호상 리해와 형제적 동맹이 유지되여 온 데 대하여 우리의 기쁨을 전하고저 한다. 우리 호상간에 어떠한 문제가 토의되든 간에 형제적 불가리야 공산당의 대표들이 쏘련 공산당과 같은 견지——맑스—레닌주의의 견지에 서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온 사실을 우리는 항상 보아 왔다.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 찬동하는 웨침. 전원 기립)

우리의 공통적 제 과업에 대한 우리의 이와 같은 리해는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의 확고한 실천에 기초하고 있는바, 자기의 정치국과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쉽꼬브 동지를 선두로 한 불가리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이 원칙들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우렁찬 박수)

국가적 방면에서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과의 우리의 관계는 특히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량국, 우리 량 당 사이에는 그 어떠한 의견 상위도 있어 본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상위의 그림자도 없었다. 유고브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자기 인민, 자기 국가의 긴절한 리익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리익을 지침으로 삼으면서 국내 발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와 국제 관계 분야에 있어서 이 로선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박수) 우리는 불가리야 동지들과 결코 상이한 견해를 가져 본적이 없었으며 우리의 견해와 평가는 항상 일치하였다. 이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맑스—레닌주의의 견지에,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간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형제적·련계를 강화하는 견지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견지에 확고히 서 있는 당들이 우리 나라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통일, 우리의 단결——이것은 구호나 호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 및 단결——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또 부단히 강화되고 있는 힘이다. 이 통일과 단결은 우리의 모든 당들의 본질적인 요구로 되였다. 매개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견지에 서 있는 당들의 통일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목적인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100 여년 전에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이 제시한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라는 위대한 호소를 이렇게 리해하며 실천하고 있다. (계속되는 박수)

우리의 대렬을 공고화하며 위력한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원칙들과는 인연이 없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어떤 당의 대표자들이 일삼고 있는 비방을 격분으로써 배격한다. 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론의하고 있다. 즉 만약 형제적 공산당들 사이에 의견 상위가 없다면 그것은 어느 한 당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당들에게 강요하며 이 당들이 한 당에 예속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소원대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을 파괴하며 당들 사이에, 매개 당이 분산적 개별적으로 행동하며 매개 당이 축적한 경험을 무시하는 그러한 호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호상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하며 결국에 가서는 의견 대립을 초래하는 데 이르게 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일정한 계층들은 바로 이것을 원하고 있는바 그들은 각종의 뢰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 자기의 동맹자들과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자기 사상의 보급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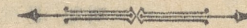
물론 이와 같은 정책이 우리의 원쑤들을 즐겁게 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 하면 그러한 정책이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 위업 전체에 막대한, 그야말로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원쑤들에게 그들이 즐거워할 근거를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고 충실한 국제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당들은 공산당들 간의 친선의 강화에 반대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들로부터 리탈되는 그 어떠한 정책이고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항상 충실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충실할 것이며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자, 장성 강화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약화시키는 자들을 반대하여 항상 불'길을 돌려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박수)

공산주의자—레닌주의자들은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력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또 근로 대중의 전위인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원쑤들의 어떠한 책동이고 이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소위 《공산주의자들》과는 구별된다.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의 형제적이며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는 현재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그 위대한 목적 즉 지구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강화 발전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오래 계속되는 박수)

(《쁘라우다》 1958년 6월 4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의 획기적 조치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리 신 형

오늘 우리 혁명은 비약적인 앙양기에 들어서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유일적인 지배를 쟁취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부면에서는 매일과 같이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들에서는 락후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재롭고 선진적인 것을 조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문화 혁명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공업과 협동화된 농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민 생활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는바 주민들의 실질 수입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으며 그 수요 구성도 변동되고 있다.

전후 짧은 기간에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된 도시와 농촌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우리 생활에 아직 남아 있는 낡은 생활 양식과 락후한 관습을 철저히 제거하고 보다 풍부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맛 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쓸모 있고 다종다양한 가공된 식료품과 일용품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보다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새롭고 보다 높은 문화적 생활을 지향하는 우리 생활 자체가 제기하는 현실적 요구이며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금번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의 중요 측면의 하나로서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전 당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전후 인민 경제 발전의 총로선에 립각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공업 특히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고 그의 생산 발전을 촉진할 것을 신중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 때 이 문제는 오늘과 같이 그의 해결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에까지 성숙되지 못하였었다.

당시 우리에게는 식량이 부족하였으며 입는 문제도 자체의 생산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곤난한 형편에 놓여 있었다.

사실 이 때에 우리 나라에는 경공업 기지가 거의나 없었다.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로 경공업 기지가 미약한 데다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도발한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해방후에 우리가 건설한 경공업 시설들은 전면적으로 혹심한 피해를 당하였었다.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가 계속 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토대마저 파괴 당한 인민들의 령락된 생활은 급속히 회복되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경공업 특히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성숙된 문제로써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형편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현실 생활은 이 문제를 일정에 올려 세우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공업 특히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시설들을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중공업이 있으며 전후 시기에 창설 공고화된 경공업 기지들도 있다.

유일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계하에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농촌 경리는 식량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곡 생산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여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이 현저히 증대되고 따라서 인민 생활이 더욱 윤택하여 지고 있는바 주식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조건하에서 주민들의 가공된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장성되고 있다.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인민 경제의 장성 정도에 따라 더 잘 입고 더 잘 먹을 것을 원하고 있으며 입고 먹는 문제를 더 간편하고 손쉽게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의 발전된 공업과 농촌 경리는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더욱 다양하게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물질적 복리 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어 주고 있다.

금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 근로자들의 생활 자체가 제기하는 현실적 요구를 타산한 기초우에서 현 시기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당의 이 조치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줄 뿐만 아니라 낡은 생활 양식과 락후한 관습을 철저히 제거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물질 경제적 조건을 조성하여 주게 될 것이다. 특히 녀성들을 과중한 부엌일로부터 해방하여 더 많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 문화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 토의 결정한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결정은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아주 시기 적절한 조치이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부문의 력사적인 락후성을 극복하고 강력한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당은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근 년간에 평양 방직 공장, 청진 방적 공장을 위시한 대규모의 방직 공장들과 룡성 육류 가공 공장, 신포 어류 통조림 공장, 평양 곡산 공장을 비롯한 식료품 가공 공장들과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 평양 목재 가구 공장을 위시한 많은 일용품 공장들을 신설 복구하였으며 그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였다.

더우기 금년에 평양, 청진, 함흥, 북청 및 남포 등지에 육류 가공 공장, 옥수수쌀 생산 공장, 제유 공장들과 소채 가공 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조업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의 식료품 가공 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은 도영 기업소들과 생산 협동 조합들을 지도 방조하여 경공업 제품 생산

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여 왔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각종 직물 생산을 인구 1인당 20 메터 이상 생산 공급하며, 식료품 가공 공업을 4배 이상으로 장성시켜 1961년에 가서는 육류 가공품은 5만 톤, 수산물 가공품은 14만 톤, 옥수수쌀 생산은 41만 5천 톤, 과실 가공품은 2만 톤, 채소 가공품은 15만 톤, 식물섬유 생산은 3만 5천 톤 이상에 도달케 할 수 있는 정도로 경공업 기지가 강화될 것이며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오늘 재봉기, 자전거, 시계, 라지오, 축음기와 같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필수품들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식료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은 아직도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년산 50—60만 톤 이상의 물'고기와 기타 많은 농산물과 축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식료품 가공 공업의 발전이 굼뜬 데로부터 다양한 수산물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축산 및 농산물의 가공 사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과실 및 야생 과실 가공 사업에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김치 생산의 공업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 시기에 다층 주택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여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이 현저히 변화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아주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리고 옥수수쌀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것을 강조한 당의 지시도 원만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료품 가공 공업은 락후한 형편에 처하여 있는바 1957년도의 식료품 가공 공업에 있어서 원료 원천이 풍부하고 인민들의 수요가 많은 소채 가공, 과실 가공, 어류 가공, 옥수수 가공 등은 아직도 락후한 형편에 놓여 있다.

일용품 생산도 역시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국영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철재, 목재 등 폐설물들과 각종 부산물들을 리용하면 능히 수천 종에 달하는 각종 일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지방적 특색을 가지는 가정용품들과 토산물을 비롯한 각종 일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풍부한 지방 원료 원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영 기업소들에서는 일용품 생산 직장을 조직하라는 당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대함으로써 일용품 생산을 조직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도 일'군들은 이 사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 운영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다.

례컨대 성진 제강소에서는 폐설물을 리용하여 년간 35만 개의 식사 도구류와 125만 개 이상의 건구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설비를 2년 전에 수입하여 오고도 지금까지 그를 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둠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림업성에서는 목재 부산물을 리용하여 가구, 문방구, 완구 등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품 생산을 조직하지 않고 일부 목재 부산물을 화목으로 충당하여 버리는 랑비 현상을 발로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은 장성하는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비약적 템포로 발전하는 우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비하여 볼 때 가장 락후한 부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일부 성, 중앙 기관들과 지방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일'군들이 당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데로부터, 또한 일부 도, 시, 군당 위원회들과 당 단체 일'군들이 이 사업을 차요시하고 관심을 적게 돌림으로써 우리에게 지어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이 미약한 데 기인되고 있다.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의 촉진은 우리 나라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공 처리하여 맛 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과 쓸모 있고 알뜰한 일용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 향상시키고 더 풍부하게 하여 주는 동시에 생산된 생산물을 부패, 변질, 랑비함이 없이 더 잘 리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의 혁신은 일'군들의 사상 관점,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충실성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은 어물, 과실, 가금류는 생산되는 현장에서 제때에 가공하라는 당의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량의 어물과 과실들을 인민 생활에 유효하게 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일부 지도 일'군들은 지방 원료 원천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노력할 대신에 국가 자재에만 의거하여 하기 쉽고 금액이 높은 제품만을 계속 생산하려는 안일한 사업 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용품 생산 직장을 광범히 조직하고 폐설물과 부산물을 모조리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을 다량 생산할 데 대한 당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일용품이라도 리익이 적은 것이면 관심 밖에 두고 금액상으로 사소한 물품이면 시끄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일부 일'군들의 옳지 않은 관점이 이 사업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례컨대 평남도 내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1957년에 당과류와 과자류의 생산 계획은 넘쳐 실행하면서도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부식물의 생산은 자기 계획을 9.5% 밖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결과에 도내 식료 가공 공업의 총생산액 중 당과류와 과자류의 생산 비중은 4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부식물의 생산 비중은 0.8%에 불과한 형편에 처하게 되였다.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강화할 데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일'군들이 사업하는 곳에서는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생산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창발적인 생산 경험이 묵살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지방 원료 원천들이 충분히 탐구 동원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애국적 열성에 의하여 이미 시작품 생산에서 성공한 것조차 생산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 발전의 락후한 원인은 이 외에도 필요한 규격 제정, 제품의 가격 사정 등 제 조건들이 제때에 해결되지 못하고 해당 기관들의 이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의 미약, 기계 및 화학 공업 부문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지도 일'군들이 맡은 바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되고 있다.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발전을 저애하는 이상과 같은 결함들과 부족점들은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시책을 관철시키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조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저애하는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시급한 시일내에 퇴치 시정하는 동시에 이 부문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당의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부문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우리 혁명의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혁명적인 열정과 전개력을 가지고 이 부문 사업의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는 제반 조건과 가능성을 철저히 리용하며 근로 대중의 비등된 창조적 적극성을 능숙하게 조직 동원하기 위한 지도 방법과 사업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당 단체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강화를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치적 방향과 기본 내용을 정확히 파악시키기 위한 사상 동원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정책을 파악하고 그의 관철 행정에서 제기되는 기술 경제적 난관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열성을 발양하도록 추동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식료품 가공 공업을 4배 이상으로 장성시켜 인민들에게 맛 좋고 값싸고 다양한 식료 가공품들을 풍족히 공급하게 될 것이며 일용품 생산에서는 가구 및 가정용품, 문방구, 문화 용품, 완구, 토산물, 공예품 등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대량 생산을 보장하여 인민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 ※

식료 가공품을 더욱 많이 생산하여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식료품 가공을 일부 성 및 기업소들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전 인민적 운동으로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경공업성은 물론 수산성, 농업성 등 관계 성들과 도영 공업, 생산 협동 조합, 국영 농목장, 농업 협동 조합, 수산 협동 조합들과 각 공장, 기업소들이 이에 적극 참가하여야 할 것인바 그것은 대규모적인 공업적 방법과 중 소 규모의 수공업적 방법 및 이동식 가공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 원료 원천과 인민 경제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 리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식료품 가공 공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물질, 경제 기술적 조건들을 더욱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식료품 가공 기지를 정비 강화하며 일체 내부 예비를 광범히 동원하여 생산 능력을 더욱 제고시키며 생산 시설이 지역적으로 불합리하게 배치되였거나 일부 지역에 편중된 현상들을 시급히 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료 원천지와 소비지에 적당한 규모의 식료품 가공 공장을 신설하며 도 소재지들과 로동자 지구들에 육류, 곡물, 채소, 과실 등의 가공 시설들을 신설하여 생산 능력을 계속 확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랭동 시설들과 곡물, 육류, 과실 및 채소 가공용 기계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제작 공급하여야 하며 기타 경제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식료품 가공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간편한 기계 설비들을 대량 생산 공급함으로써 식료품 가공 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식료품 가공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그에 필요한 기술 경제적 조건들을 더욱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원료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농업성과 지방 정권 기관들에서는 중요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변에 과실, 채소, 육류 등 원료 기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무우, 배추는 물론 도마도, 오이 등 기타 많은 가공용 채소를 재배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채소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도록 할 것이며 온천 또는 공장, 기업소들의 여열을 리용하여 채소의 온실 재배를 조직하고 그를 계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농산물 및 축산물의 수매 체계를 개선 강화하고 예약 수매제를 광범히 도입하며 식료품 생산 기관들에서 직접 수매를 조직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료품 가공 공업을 혁신시킴에 있어서 포장을 개선하는 문제는 가장 긴급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은 용기 문제의 해결을 식료품 가공 공업 발전에서 선차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제함재(製函材)와 목통을 비롯하여 유리 및 도자기 용기, 종이함, 토기, 싸리

광주리 등 각종 용기들을 시급히 대량 생산하는 동시에 포장을 개선하여 상품의 문화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식료품 가공 공업과 함께 일용품 생산을 급속히 강화 발전시켜야 하는바 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용품의 품종을 부단히 확대하고 그의 대량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량적으로 소요되는 품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 설비들과 기술로써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점차 새로운 품종들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대량 생산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공업성은 물론 기타 생산 기업소들에서 품종 확대 협의회를 광범히 진행하는 한편 인민들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현실에 가장 알맞는 일용품들을 다량 생산하기 위한 시험 연구 사업과 시작품 생산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며 그를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용품에 대한 인민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종을 부단히 확대하는 동시에 그를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와 특히 경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기업소들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 대량적으로 소요되는 일용품들의 생산을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일용품 생산을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각 성 산하 해당 기업소들의 일용품 생산 직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용품 생산 직장을 아직까지 조직하지 않은 기업소들에서는 시급히 이를 조직할 것이며 이미 조직된 기업소들에서는 그를 더욱더 정비 강화하여 폐설물과 부산물을 남김 없이 일용품 생산에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용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도영 공업과 생산 협동 조합의 역할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 일용품 생산액 중 도영 공업과 생산 협동 조합의 생산액이 68.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도영 공업과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풍부한 지방 원료 원천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지방적 특색을 가지는 가정용품들과 토산물을 비롯한 각종 일용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지방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일용품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식료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은 다른 어느 생산 부문보다도 지방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식료품 및 일용품 생산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도영 공업, 생산 협동 조합, 수산 협동 조합, 농업 협동 조합들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식료품은 맛 있고 값이 싸고 깨끗해야 하며 일용품은 아름답고 쓸모 있고 알뜰해야 한다》. 식료품 가공 공업 및 일용품 생산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량적 장성과 아울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는 문제는 극히 중요하다. 식료품과 일용품 생산 부문에서는 현재의 형편하에서 능히 만들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되고 있는 일부 제품들도 그 질이 높지 못하여 인민들의 기호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 생산 기업소들에서 거칠고 쓸모 없고 원가가 높은 제품이 나오는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계획의 량적 달성으로서 자기 공명을 내세우려는 그러한 그릇된 현상은 허용될 수 없다. 해당 부문 일'군들은 이상과 같은 주인답지 못한 사업 태도를 시정하고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식료품과 일용품의 질을 높이며 그의 문화성

제고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식료품 생산에서의 문화 위생 조건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이다.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원료의 선별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을 질서 없이 진행함으로써 매 공정에서의 위생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식료 가공품들을 생산하는 매개 일'군들과 직장들에서는 항상 깨끗하고 문화 위생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능히 자체의 힘으로 생산 공정들을 문화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위생 조건을 보장할 만한 설비 기구들이 있다. 그러므로 식료품 가공 공장에서는 공장 구내외의 환경을 생산 공정의 문화 위생 조건에 적응하도록 정비하며 청소 미화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식료품 생산에서 위생 조건의 준수는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문화 혁명의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심중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식료품과 일용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이 부문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일층 제고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이 부문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제고됨이 없이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모든 원료 원천들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여 같은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보다 많이 생산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은 기술 전습 사업을 일층 개선하며 로력 후비 양성 체계에 의한 기능 일'군들의 양성 사업과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전반적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식료품 및 일용품 생산에서 규격 제도를 확립하며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에서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며 제품에 대한 검사 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 *

이상과 같은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료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사업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현실 발전에 일부 지도 일'군들의 지도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창조적 열정에 불타는 근로 대중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강령——제 1차 5개년 계획의 리정표를 향하여 천리마로 달리는데 일부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은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락후한 부문으로 남아 있는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 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특히 도, 시, 군당 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커다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도, 시, 군당 단체들은 해당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예비와 원천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정권 기관, 경제 기관, 협동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정책,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이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 수행한다는 긍지와 당적 책임감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이 당의 의도를 파악하고 당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투쟁에 궐기할 때 거기서는 반드시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현 시기 당 상업 정책의 기본 요구

한 대 영

최근 소집되였던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는 력사적인 제 1차 당 대표자회 결정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상업을 전 당적 력량과 주의를 집중하여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비상히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거대한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이 이를 토의한 것은 중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전후 시기 조선 인민은 당이 펼쳐 준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천하면서 실로 세인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적 성과들을 달성하여 왔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전전 수준을 2배로 릉가하였으며 사회주의적으로 전변된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알곡 생산에서 1949년 수준을 8%나 릉가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5개년 계획의 실행에 착수한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전례 없이 고도로 앙양되였다.

5개년 계획의 가장 어려운 고비인 올해에 들어 서면서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고 있는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인민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그 생산 수준을 벌써 1961년에 도달하게 될 수준에 접근시키고 있다.

금년 3월 말 현재 농업 협동 조합에는 총농가 호수의 98.6%, 전체 농민 경리 면적의 99.1%가 망라되였다. 이것은 이미 우리 농촌에서도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민들은 지금 새로운 생산 관계의 우월성을 백방으로 리용하면서 가물을 극복하고 395만 여 톤의 알곡 증산 결의 실천을 위하여 대중적 영웅주의를 남김 없이 보여 주고 있다.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기초하여 전쟁으로 말미암아 집과 가구들마저 거의 다 잃어 버리고 극도로 령락되였던 근로자들의 물질—문화 생활은 급속도로 화려하게 피여 오르고 있다. 당의 계속되는 배려하에 1956년 말에 벌써 전전 수준을 릉가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계속 장성되고 있는바 1957년 한 해 동안에만도 43%나 제고된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은 1958년 1월부터 다시 평균 10%가 인상되였다. 농민들의 생활도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업 상품과 농산물 및 부업 산물의 상품 원천을 대량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으며 인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그들의 수요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후 단시일내에 그 면모를 일신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오늘 문화 혁명이 눈부시게 진척되고 있다.

《물론 생산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개선에 따라 의식주에 대한 인민의 요구는 부단히 제고된다. 그러므로 부단히 장성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과업은…우리의 항구적인 투쟁 과업으로 된다》(김 일성, 《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이

현저히 개선 향상된 오늘 나라의 소비 류통 분야를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 상업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가장 성숙된 문제로써 제기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상업을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발전을 더욱 성과 있게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인민의 생활을 가일층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서 우리 나라 상업은 급속히 장성하여 왔다.

전후 시기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경제 발전의 총로선을 확고히 관철시키면서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상업의 급속하고도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확한 지도를 주어 왔다.

특히 우리 나라 상업 발전 도상에서 1957년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였다.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제 3차 당 대회가 제시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에 립각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하면서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 필수품의 증산과 함께 상업 부문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뒤이어 소집되였던 1957년 1월 24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며 수매 활동을 강화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상업의 개선 강화를 위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상업망들은 급속히 복구 건설되였다. 새로 형성된 도시 주민 지대들과 로동자 지구들에는 수 많은 상점, 식당들이 포치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농촌 리들에는 1개 이상의 상업망이 들어 앉아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1957년 말 현재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은 정전 직후인 1953년에 비하여 실로 227%로 증가되였다.

상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도 현저히 정비 강화되였다.

1957년도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 총액은 대비 가격으로 1956년에 비하여서는 156%, 전쟁전 1949년에 비한다면 187%로 장성하였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급속한 발전은 국내 시장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령도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강화케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상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문 사업에는 일련의 본질적 결함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의 부단한 개선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은 6월 전원 회의에서 상업 부문에 존재하는 일련의 결함들을 심오하게 분석 비판하고 이를 급속히 개선 발전시킬 것을, 현 계단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긴절한 혁명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업은 력사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본질과 역할은 생산 방식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다.

《기만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구호밑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상업은 자본가들의 최대 리윤을 위하여 존재하며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써 자본가들에게 복무한다. 근로 대중으로부터 마지막 푼전까지 다 빨아내기 위하여 온갖 사기적 방법과 비렬한 수단을 다 동원하는 자본주의 상업의 특성은 제국주의 계단에서 더욱 뚜렷하여지며 더욱 심하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상업이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업에 복종하며 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해방후 북반부에서 새로운 생산 방식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그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온 우리 나라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은 바로 이러한 상업으로서 그의 본질과 역할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상업과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상업은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인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강화 발전시키는 강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는 도시로부터 산간 오지에 이르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을 동일한 사회주의적 상업권내에 포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며 모든 지역 주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즉 상업은 도시와 농촌간,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의 기초로 되는 로농 동맹을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상업은 장성하는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에 적응하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사회주의적 공급 체계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생산의 목적은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생산된 소비품을 사회 성원들 간에 공급하는 기본적 형태인 상업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때 이 목적의 실현은 이러저러하게 저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상업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생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작용함으로써 생산의 확장을 자극하는 것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상업은 사회주의적 재생산 과정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의 증대와 사회주의 축적의 강화에 기여한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가 전일적인 사회주의적 체계하에서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사회적 재생산 행정에 대한 상업의 반작용은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우리 상업이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고리의 하나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우리 상업은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역할을 논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바 그들은 이 화폐적 소득을 가지고 필요한 소비품들을 구매하게 된다. 상업은 그들의 화폐적 소득과 소비품과의 교환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리하여 로력에 의한 분배는 상업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상업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업이 화폐 류통과 불가분리의 련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가 국가의 화폐 제도를 건전하게 보장하며 자금의 회전 속도를 높여 생산을 더욱 유리하게 보장함에 있어서와 자금 축적에 있어서 주요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자금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보는 바와 같이 상업은 국가의 전반적 경제 생활에 복무하는 것이며 우리 인민 경제를 장성 발전시킴에 있어서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상업의 이러한 본질과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에 종사하는 일'군들이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될 것을 요구하며 사회주의적 상업 체계 및 활동 방법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금번 전원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의 상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그의 우월성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상업에서 사회주의적 체계 및 방법을 확립할 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로 제기하였다.

상업 일'군들이 확고한 군중 관점으로 무장되며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강한 계급성의 소유자로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상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첫째가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업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편의와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상업의 본질과 사명을 더욱 깊이 리해하면 할수록, 또 그들이 상업을 잘 관리 운영하여 얻는 국가 수익성이 곧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체 인민의 생활 향상에 직접 기여한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지난 시기 일부 상업 일’군들이 상업망의 포치 및 상품 공급 체계와 수매 체계 조직에 있어서, 상점들의 판매 활동 및 봉사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리익을 침범하며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지 않는 등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지장을 주는 각종 편향들을 발로시킨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사회주의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던 사정과 크게 관련될 것이다.

또한 적지 않은 당 단체들과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이 상업 일’군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극히 적은 주의를 돌려 온 사정이 오늘 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긴절한 것으로 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아직도 일부 상업 일’군들 가운데는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을 똑바로 리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상업을 경시하고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지 않으며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경향들과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

상업 일’군들이 당적 사상 체계로 확고히 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이 관철될 수 없으며 아무리 정연하게 개편된 사회주의적 상업 체계가 보장되고 훌륭한 상품이 풍부하게 보장된다 하더라도 상업에서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 및 상업 기관 지도 일’군들은 전체 상업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상과 고상한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하며 그를 철저히 집행하는 믿음직한 투사가 되도록 육성 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필연코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 사업 태도와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과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항상 새 것을 적극 지지하고 락후한 요소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최 창익, 윤 공흠 등 반당, 반혁명 도당이 상업 부문에 남긴 사상 여독을 철저히 청산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반당, 반혁명 도당들의 죄악과 그 본질은 이미 우리 당에 의하여 철저히 폭로 분쇄되였다. 그러나 그들이 상업 부문에 끼친 여독은 아직도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어 우리 상업의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강조할 것은 일부 일’군들에게서 발로되고 있는 상업의 《신비성》 운운하는 경향, 즉 《상업은 복잡한 일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예민한 두뇌와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지껄이는 경향과 용서 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문제이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우리 상업에 자본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며 그를 부식 전파시킴으로써 우리 상업을 파괴하고 우리 혁명을 파탄시키려는 그들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이 《구호》를 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 상업에는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며 국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기술과 경험》도 요구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적 경험》은 우리 시대의 상업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상업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는 이 부문내에 견고한 핵심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상업의 전반적 초소들에 당의 견고하고 믿음직한 핵심들이 서 있다면 우리 상업은 보다 단기간 내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며 당 정책이 정확하게 집행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에 충실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우리의 기본 핵심들—애국 렬사 가족들과 사회 사업에 열성적인 일’군들을 대담하게 진출시킴으로써 이 부문내 간부 구성과 핵심 대렬을 부단히 강화하며 후비 양성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전체 상업 일’군들 속에 사회주의 사상 체계를 확고히 수립함으로써만 우리는 상업망을 주민 지대에 더욱 접근시키고 상품 공급의 균형성을 옳게 보장할 수 있으며 도시,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과 농산물 수매 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사회 급양 사업을 대중적 공동 주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체 상업 일’군들을 사회주의적 사상 의식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모든 상업 기관들에서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 시기 각급 당 단체들과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 *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상업에서 사회주의적 조직 형식과 활동 방법을 확립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에 있어서 현 시기 우리 나라의 상업망 포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의 물질—기술적 장비를 부단히 강화하며 상품 공급 체계와 수매 체계를 보다 완성하는 한편 이 부문내에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일련의 도시 상업망들은 그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거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포치된 것이 아니라 다수 경우에 자본주의하에서의 상업망들과 같이 번화한 대통로와 시장내에 편중하여 포치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한편 상업망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와 통제를 보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 기간 상업 지도 일’군들이 상점들의 물질—기술적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면에 대하여 거의나 주목을 돌려 오지 않은 결과 대부분의 상업망은 그 규모와 구조로 보아 상업을 문화적으로 전개하기에는 극히 불충분한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상업망 건설에서는 그의 기본을 량적 증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품 운동의 정확 민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상업망의 포치를 개편 정비하고 그의 물질—기술적 장비를 적극 개선하도록 함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매망들에 대한 상품 공급의 기본적 고리로 되는 도매 상업의 조직에서 현존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는 도매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품을 제멋대로 내려 먹임으로써 상품 공급에서 불균형 상태를 발생시키며 지어 상품을 체화 또는 품절케 하는 등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급히 주문제로 대담하게 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서 소매 상점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당 단체들은 도, 시, 군, 리들에서 상업 지도 위원회의 조직과 그의 역할 제고를 옳게 보장하며 사회주의적 상품 공급 체계를 정비함에 있어서 전변을 가져 오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현 조건하에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게 농산물 수매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협동화된 농업 생산 각 분야에서 거대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고 있는 조건하에서 농산물 수

매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문제는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농 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시기에 작성된 수매 체계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타파하고 상품화되는 농산물의 실현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 협동 조합의 역할을 제고시켜 그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농산물의 기본적 공급자로도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에서 사회주의적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는 이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질서와 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와 크게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규률과 제도를 철저히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매우 불만족하게 실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상업 부문에서 국가 재정 및 재산을 귀중하게 취급하며 모든 상업 활동에서 부정적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각종 규정과 제도를 현실에 알맞게 개정하며 그의 철저한 준수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전원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도시,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 사업과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상업의 부대 조건들을 해결하는 문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시급히 완성할 데 대한 문제 등 일련의 중요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상업을 경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적 지도를 보장하지 않는 그릇된 경향을 발로시켰다.

우리 당이 이미 루차에 걸쳐 이를 심각히 분석 비판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관습은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상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서는 당적 지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인민 대중의 적극적 지원과 통제가 이와 결합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주의 상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각급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 임무의 하나이다. 이것은 특히 대다수 주민이 사회주의 건설자로 구성되고 있는 도시들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각급 지방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은 상업이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여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백방으로 보장하도록 이에 대한 지도에 최대의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상업에 대한 지방 정권 기관들의 지도를 보장하고 상업 기관내 당 단체들의 자립성을 더욱 제고하는 동시에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상업 일'군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상업을 혁신함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의 령역에서도 전일적인 사회주의 체계를 급속히 완성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이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상업 일'군들은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우리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당의 상업 정책을 영예롭게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생활에서의 문화성 제고는 현 시기 우리 나라 문화 혁명의 중요 과업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고조에 따라 오늘 우리 앞에는 생활 습성 및 도덕 품성 분야에서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전체 인민의 생활에서 문화성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이 문제는 현 시기 우리 나라 문화 혁명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성숙된 중요 과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이 성숙된 당면 문제로 제기되였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층 높은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는 것을 특징 지어 준다. 즉 이것은 우리 나라 사상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 변혁이 일층 심화되고 있음을 말하는 동시에 인민의 물질 생활 수준이 급속히 장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에 선행한 다른 모든 사회 제도들과 함께 소위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어떠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전체 인민의 문화성 제고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으며 또 제기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소위 《문화 생활》이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문화적 생활을 위한 일체 수단이 소수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여 있으며 그들의 착취와 향락의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그 반면에 수백 수천만의 근로 대중은 고통스러운 강제 로동, 만성적인 실업, 기아 및 질병 등을 강요 당하고 있다. 일찌기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한 극단에서는 부가 축적되고 다른 한 극단에서는 예속과 빈궁, 무식과 도덕적 타락이 증대되는 것이 자본주의 제도의 본성이다.

이것은 오늘 수백만의 기아민, 실업자, 거지, 각종 질병 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남조선의 현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문명》의 최 우위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날마다 실업군이 불어 가고 워싱톤, 뉴욕과 같은 거리에서 빈민굴, 거지, 깽패 등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지 않는가!

수백만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로써 포만해진 극소수 분자들의 사치와 랑비, 향락과 방탕, 서로 속이고 물고 뜯고, 빼앗고 빼앗기며, 근로 대중이 기아에 신음하고 질병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 등등 ——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르죠아적 소위 《문화 생활》이며 도덕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실천적 경험은 오직 사회주의 제도만이 전체 인민에게 진정한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벌써 이 문제가 해결의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시위로 되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구현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생활의 문화성 제고—— 이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우리는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일하고 휴식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에 상응하게 더 문명하고 위생적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자는 것이며 낡은 사회의 정신적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풍부한 정신 생활과 고상한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발생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상, 사회주의 생활 관습, 사회주의적 도덕을 철저히 확립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분야에서의 낡은 사상 잔

재와의 완강한 전투—사상 투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특히 현 시기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거리와 마을, 직장과 가정을 더 깨끗이 꾸리며 전염병과 토질병을 근절하는 등 위생 문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문명하게 위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성숙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적 사상, 문화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사상, 문화를 확립하는 문화 혁명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변혁에 동반되면서 진행된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매개 단계마다에서 문화 혁명은 더욱 전진하게 된다.

우리 당과 정부는 해방 첫날부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토대를 변혁하며 문화 혁명을 추진시키는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전쟁전 시기에 벌써 당은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한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켜 인민 대중의 물질적 복리 증진을 위한 토대를 축성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 혁명을 위하여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조직 전개하며 각급 교육망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민족 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였으며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제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대중적 문맹 상태를 퇴치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을 전개하며 각종 문화 교양 기관들을 확장하여 대중 속에서 문화 계몽 사업과 교양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전에 벌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문화성은 해방전에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당과 정부는 인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돌려 왔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와 인민들의 생활 토대를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정전 직후 우리 나라 경제 형편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우리에게는 강재도, 세멘트도, 화학 비료도 없었으며 식량과 의류조차 매우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파괴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은 폐허로 되였었다. 따라서 그 때에는 인민 생활에서 문화성 제고 문제가 오늘과 같이 당면하게 제기될 수 없었으며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조건이 달라졌다. 중공업 발전을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전체 근로 대중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전후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인민 경제는 복구를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 우리의 금속 공업, 전기 공업, 석탄 공업, 건재 공업, 화학 공업 등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복구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서 개건 확장되였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 제작 공업과 경공업 기지들이 창설되였다. 기계 공업과 경공업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소요되는 의류, 신발 등등의 생활 필수품 뿐만 아니라 라지오, 재봉기, 자전거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문화 기재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고 알곡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여 식량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촌 경리 앞에는 알곡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더 많은 육류와 더 많은 과실, 그리고 공업에 더 많은 원료를 공급하여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발전된 우리의 중공업, 건재 공업에 의거하여 폐허로 되였던 도시와 마을들은 고층 건물과 문화 주택을 가진 새로운 면모로 복구되고 있으며 수 많은 교육 문화 기관, 보건 및 사회 급양 기관들이 화려하게 일떠서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는 벌써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 모든 경제 부문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와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3차 회의는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더 일층 높은 수준에로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광활한 전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5개년 계획을 완수하면 우리 나라의 중요 공업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즉 전력은 970키로와트시, 석탄은 1,000키로그람, 선철 및 립철은 합하여 90키로그람, 강철은 68키로그람, 화학 비료는 64키로그람, 세멘트는 200키로그람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의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의 담보로 되는 것이다. 5개년 계획 말에는 인구 1인당 직물은 20메터 이상, 어류는 65키로그람 이상 차례지게 될 것이며 농업 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당이 제기한 이 장엄한 강령은 벌써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공장과 광산에서, 어장과 목장에서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로력적 열성은 비상히 고조되고 있다. 근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재능과 창조적 열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매일과 같이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대고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을 더 문명하게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성숙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경제의 앙양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문화 혁명도 깊은 심도와 넓은 폭을 가지고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등 의무 교육제에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열성에 의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벌써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남녀 로소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보통 지식 수준을 전반적으로 초등 교육 졸업자의 수준에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 속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전문 기술 및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모든 근로자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유선 및 무선 방송망들이 확장되고 있으며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문화 교양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및 문화적 변혁과 앙양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인습들은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새로운 생기 발랄한 사회주의적 문화와 생활 방식이 발전 공고화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과 소양을 갖춘 새 인간들이 창조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사회주의적 관계가 확고히 되여 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 생활에서 낡고 락후하고 쓸모 없는 것들은 청산되여 가고 있으며 새로운 것,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발생 발전하여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비문화적, 비위생적, 비도덕적 현상들을 결정적으로 근절하고 문화성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가 충분히 성숙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생활에서 비문화적, 비위생적 및 비도덕적 현상들은 착취 제도의 산물이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 착취 받고 억압 당하면서 살아 왔다. 하루에 세끼니는 고사하고 두끼니의 호구지책도 보장되지 않아 기아와 빈궁에서 헤매던 그 때에 우리 근로자들이 과연 문화성에 대한 문제를 론의할 수 있었겠는가! 그 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 지주와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비문화적이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강요 당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며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물질적 근거가 청산되였으며 완전히 소멸되여 가고 있다.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였으며 모든 령역에서 착

취가 근절되고 있으며 교육 문화, 보건 위생, 과학, 예술 및 상업 등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급속한 템포로 장성되는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부는 그 창조자들인 근로자들 자신의 소유로 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 속에는 아직도 생활에서 비문화적이고 비위생적이며 비도덕적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남아 있다. 몇 가지의 실례만 들어 보자.

당과 정부는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 위생 시설을 확장하고 전염병과 토질병을 근절할 데 대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는 동시에 위생 문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가까운 자기 가정 주위의 청소, 미화 사업도 등한히 하며 현대적 문화 주택에서 비위생적이고 비문화적 현상이 발로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터와 마을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교통 부문, 사회 급양 부문, 공원, 극장, 영화관 등 부문에서 일하는 일부 일'군들에게서는 이 현대적 문명 시설들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며 그 사명에 상응하게 청결하고 문화적으로 관리 운영하지 못하며 인민들에 대한 봉사성이 미약한 현상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한편 이 시설들을 리용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도 공중 도덕과 공중 위생을 준수하지 않는 문명치 못한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례들은 이 외에도 아직 적지 않다.

자기 존재의 사회—경제적 근거를 이미 상실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아직 존재하며 발현되는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생활 인습에서 오는 것이며 낡은 사상 잔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리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 생활에서의 부정적인 낡은 인습의 청산 등은 낡은 경제적 토대의 청산, 물질적인 변혁보다 뒤떨어진다. 이러한 데로부터 아직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 불가피하게 아무러한 전망도 가지지 못하고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던 생활 인습과 일제에게 억압 받고 착취 당하던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 여기로부터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오늘에 있어서도 부분적이나마 인민들의 문화—도덕 생활에서 비문화적, 비위생적, 비도덕적인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본질 자체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적대적 사상의 반영이며 낡은 제도의 유물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진에 장애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상, 사회주의적 생활 관습 및 도덕 등의 확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제 건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이미 경제, 문화의 령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고 우리 근로자들이 더 문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오늘날 생활에서 비문화적 비위생적 현상이 더는 묵과되여야 할 리유와 근거가 없다. 그것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 합법칙적으로 제기되는 요구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사회 경제적 령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 생활 습성, 문화 수준 등의 사회주의적인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상 및 생활 습성, 도덕적 품성 분야에서의 낡은 잔재를 극복하고 생활에서의 문화성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는 우리 나라 문화 혁명에서 성숙된 당면 중요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상 분야에서의 계급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몇 개의 행정적 지시문이나 행정적 조치만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하루 이틀의 깜빠니야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한 조직적 대책들과 함께 대중 속에서의 인내성 있는 사상 교양 사업과 사상 투쟁이 요구되며 전 인민적 운동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위생 문화 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적 도덕을 확립할 데 대한 해당한 조직적 대책들을 제시하고 이를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모든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 및 당원들이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당의 정책을 대중 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키며, 인민 생활에서의 문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이 제기한 방침의 실천에로 전체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고 지도하는 데 있다.

당 단체들은 근로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상 문화 교양 사업과 함께 과학 지식 보급 및 위생 선전 사업을 더욱 광범히 조직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특히 과학 지식 및 위생 상식 보급 사업이 불만족하게 진행되였다.

일부 인민들 속에서의 과학 지식 및 위생 상식의 부족은 생활에서의 문화성 제고와 위생 방역 사업, 토질병의 근절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의 하나로 되고 있다.

대중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사상, 문화 교양 사업과 함께 과학 및 위생 지식을 광범히 보급함이 없이는 또 비문화적, 비위생적, 비도덕적 현상과의 사상 투쟁이 없이는 인민 생활의 문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추진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이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사업에서 직맹, 녀맹, 민청 등 근로 단체들과 각종 문화 교양 기관들, 보건 기관들과 그의 일'군들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매개 근로자들이 자기의 사상 문화 수준, 과학 및 위생 지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문화적이고 비위생적이며 비도덕적인 것, 온갖 낡고 쓸모 없는 것들이 도처에서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되고 극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한 상 두

조선 인민에게 광활한 전망을 열어 준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파악되여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고도로 앙양된 근로 대중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비상히 고조되고 있는바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부면에서 문자 그대로의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 직업 동맹 단체들 앞에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은 당의 지도하에 근로 대중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킴으로써 당의 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시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그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의 경제 정책을 실생활에 구현하려는 대중의 애국적, 로력적 발기인 증산 경쟁 운동을 백방으로 발전시키며 그것을 보다 높은 단계인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인민 민주주의 사회 경제 체제가 확립된 조건하에서 발생 발전하게 된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은 그 시초부터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애국적 운동으로서 전개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증산 경쟁 운동은 그에 상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는바 그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증산 경쟁 운동은 전후 시기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와 조건하에서 개개의 혁신자 운동의 발전에 기초하여 새롭고 한층 더 높은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 기술에 기초한 집단적 혁신 운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기술적 혁신을 통하여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는 혁신자 운동과 동일한 형의 운동이다.

그러나 이 량자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지난 시기 전개되여 온 개개의 혁신자 운동이 주로 새로운 기술적 기준량 창조를 위하여 로력하였다면, 집단적 혁신 운동은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총명과 애국적, 창조적 로력에 기초한 기술적 혁신에 근거하여 하나의 집단—브리가다, 쩨호 나아가서는 전체 기업소의 성원들을 생산 혁신자들이 달성한 높은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대중적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다.

그러므로 집단적 혁신 운동의 주요 특징은 생산 혁신자들의 선진적 경험을 집단적으로 해당 부문에 확대 보급시키며 로동자들 속에서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제안들을 더욱 발양시킴으로써 기술적 기준을 부단히 갱신시키며 전반적 로동자들의 평균 기술적 기준을 루진적으로 제고하여 전반적 혁신을 가져 오게 하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어떤 개별적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또는 우연히 발생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새 기술이 요구되며 새로운 기술적 기준을 부단히 창조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형편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도시와 농촌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경제적 관계에서의 이러한 근본적 변혁은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혁신을 요구한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오늘 우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의 가일층의 발전은 결정적으로 기술적 진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에 기초한 생산의 높은 장성 템포의 보장은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의 발전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선진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조건 짓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비단 물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요소를 개조하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사람들의 낡은 사상 의식과 낡은 생활 관습을 개변시키며 그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문화 및 기술 혁명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은 거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행복한 사회주의 사회는 오직 수백만 근로 대중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서만 건설될 수 있다》(동상,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직업 동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은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애국적 열성에 기초한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건설의 전개된 강령——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1956년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은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 발전에서 새 시기를 열어 놓은 전환점으로 되였다.

《증산하여 절약하자!》는 당의 전투적 구호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은 완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근로자들 속에 침투되여 기적을 창조케 하고 있다.

당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전투적 구호를 받들고 궐기한 근로자들은 증산 경쟁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여 수 많은 생산 예비를 동원하였으며 애국적 발기들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증산과 절약 예비를 탐구 동원하여 1957년 한 해 동안에 공업 총생산액을 전년에 비하여 44%나 더 장성시키고 230억 원의 국가 수입 초과를 보장케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투쟁 과정에서 증산 경쟁 운동은 새로운 면모를 띠고 발전하게 되였다.

최근 시기 증산 경쟁 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생산 혁신자들의 애국적 발기들과 선진 기술의 도입,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 운동 등이 해당 부문의 개별적 선진 로동자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브리가다, 쩨호 나아가서는 전 산업 부문에 광범히 도입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그것이다.

례컨대 공화국 2중 로력 영웅 김 직현 동무

가 발기한 《고속도 굴진 운동》은 금년 1. 4 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123개의 브리가다에 보급되여 수년래 락후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석탄 공업 부문으로 하여금 국가 계획 뿐만 아니라 증산 과제까지 초과 수행케 하는 혁신을 가져 오게 하였다.

승호리 쎄멘트 공장 로동자들은 집체적인 지혜에 기초하여 소성로의 무사고 가동일수를 40—50일로부터 100일에까지 높이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50일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희천 공작 기계 공장 로동자들은 《480분 합리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한편 선진 절삭 공구를 광범히 도입하여 절삭 속도를 지난 시기 30—40메터였던 것을 금년 1. 4 분기에는 평균 83메터로 높였다. 그리고 기계 부문에서의 절삭 속도는 전반적으로 지난 해 평균 실적에 비하여 147%로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일련의 부문들에서는 이미 선진 국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집단적 혁신 운동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적 혁신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대중적 운동인만큼 필연적으로 선진 기술을 광범히 도입 보급하는 사업과 함께 대중적인 창의 고안, 발명 및 합리화 운동을 동반하게 되며 또한 이 운동의 성과에 기초하여 집단적 혁신 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오늘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창의 고안, 발명 및 합리화 운동이 대중적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건수는 급격히 장성하고 있다.

년 도	제기된 창의 고안 건수
1956	15,716
1957	24,896
1958, 1.4분기	11,059

증산 경쟁 운동 발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사실은 이 운동이 보다 높은 형태인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증산 경쟁 운동이 한층 더 높은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과 그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증산 경쟁에 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이 비상히 앙양되고 있으며 또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이 최신식 기술 설비로 장비되였으며 믿음직한 야금 공업 및 기계 공업 기지가 창설되여 우리 나라에서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데 있다.

정전후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전후 인민 경제 발전의 총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원상 그대로 복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적 개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소들에 신설된 기계 설비들은 물론 기존 설비들도 최신 기술에 의하여 기술적 개건이 이루어졌으며 일련의 기계 제작 공장들이 신설 또는 개건 확장되여 기술적 개건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였다.

그리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기술적 개건과 혁신에 필요한 각종 설비품, 부속품, 선진 공구들을 자체로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금년 4월 30일 우리 인민들의 환호 속에 조업을 개시한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와 해탄로가 우리 기술자들의 설계에 의하여 우리가 만든 설비로 우리 자체의 손에 의하여 복구 건설되였다는 사실은 조선 로동 계급의 위대한 창조력을 시위한 거대한 사변으로 될 뿐만 아니라 장성된 우리 나라의 기술 수준과 기계 공업의 면모를 보여 주는 뚜렷한 표현의 하나이다.

집단적 혁신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우리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최신 기술 설비들과 선진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기술 인재가 수 많이 양성되였다는 데 있다.

당과 정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필요한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미 전쟁 시기에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들에 수천 명의 류학생과 실습생을 파견하여 해당한 기술을 습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는 각종 대학, 중등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 등 상설적인 기술 교육망을 신설 확장하는 한편 각종 직장 기술 학교, 강습회, 통신 교육을 광범히 조직하는 등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기술, 기능자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3개년 계획 기간에만도 1만 1천 명의 기사, 기수와 3만 여 명의 기능자들이 양성되였으며 선진 기술을 광범히 도입 보급하며 기술적 진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 진지를 구축하게 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이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계급적 각오 정도, 혁명 과업 수행에 충실하려는 그들의 적극성, 창조적 열성이 높아진 데 있다.

우리 당은 그 창건 첫 시기부터 근로 대중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변되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 과업 수행에서 훈련되고 단련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 시기의 체험을 통하여 오직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인민 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과 정부는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도 인민 경제의 장성 정도에 따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을 계통적으로 장성시켰으며 여러 차례의 물가 인하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57년도의 근로자들의 화폐 임금은 1956년에 비하여 143%로 장성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은 현저히 개선 향상되였다.

이러한 현실 생활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자기의 로동이 착취 계급의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조국의 번영을 위한 영광스러운 것이며 생산이 증대되면 될수록 자기들의 생활이 보다 향상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체득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실생활 속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체험하고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많은 생산 부문에서 낡은 기준량을 타파하고 새롭고 높은 기술적 지표들을 창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증산 경쟁 운동이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56년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총화는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이 앙양되고 당의 지도가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였을 때 그것은 큰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여 생산의 각 부문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공화국 창건 10주년 경축 증산 경쟁 운동에 궐기한 근로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증산 경쟁의 확대되는 성과가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 경축 증산 경쟁 운동에 궐기한 공화국 북반부의 근로자들은 년초에 결의한 증산 의무보다 4.9% 더 높은 59억 3천만 원(그 중 외화 획득 5억 1천 140만 원)의 생산품을 더 생산하며 29억 원(그 중 외화 절약 4억 6천 753만 원)의 절약 예비를 탐구하여 냈다. 또한 그들은 외화를 절약하고 더 많이 획득하여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1,154대의 뜨락또르와 869대의 자동차를 보낼 것을 결의하였다.

* *

현 시기에 있어서 증산 경쟁 운동 앞에 나서는 기본 임무는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당의 구호를 실현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 앞에 당이 제시한 정책적 요구의 관철을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 장성 템포를 년 평균

21.5%로 제고할 것을 규정하면서 로동 생산 능률을 공업에서 165%, 건설에서 152% 이상 제고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전하고 있는 집단적 혁신 운동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의 강화, 선진 기술의 도입, 창의 고안, 발명 및 합리화 운동의 발전, 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의 개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등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와 체계적인 원가 저하를 보장하며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적 혁신 운동은 기술적 진보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새 것을 지향하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인 전진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일'군들의 심각한 사상 투쟁——새 것과 낡은 것, 선진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과의 투쟁 속에서 발전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는 비단 물질적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에서도 거대한 변혁을 가져 오고 있다.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를 관철시키며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는 비상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은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낡은 사무실적 사고 방법과 낡은 기술에 포로되여 새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현상을 발로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변천을 보지 못하며 대중의 거대한 창조적 력량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군들은 현실의 발전이 제기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지 못하며 그 실현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수 없다.

만일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 지도 일'군들이 보수주의와 완고성에 사로잡혀 새 것과 선진적인 것을 조장 발전시키지 않고 장엄한 현실의 전진 앞에서 겁을 먹는다면 그 지도는 선도적 의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저애하는 제동기적 작용을 하는 장애로 될 것이다.

사실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일부 지도 일'군들의 보수주의와 완고성으로 인하여 로동자들의 창발적 제의가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채 묵살되고 있으며 또한 공명주의와 기관 본위주의에 물젖은 일부 기업소 지도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은 다른 기업소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과 선진 작업 방법을 신속히 도입하려 하지 않고 《보다 큰 것》, 《새로운 것》만 《창조》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지도 일'군들의 새 것에 대한 과소 평가, 그의 보수성과 소극성, 낡은 사무실적 사고 방법은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저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의 혁명 과업 수행에 난관을 조성하는 해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오늘과 같은 혁명의 앙양기에 있어서 이러한 편향은 용허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 편향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보다 높은 자각성과 특히는 집단내에서 개인과 집단과의 밀접한 결합, 동지적 호상 방조를 강화함으로써만 집단적 혁신 운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로동자들 속에 잔존하는 낡은 사상 잔재——보수성, 무규률성, 개인주의 등 온갖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요소들과의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당 정책에 대한 교양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집단적 혁신 운동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로동과 국가 재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 태도, 집단주의 사상을 배양할 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 보급하며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운동을 대중적으로 조직 전개하는 그것이다. 지금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실지 생산 행정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선진 기술과 작업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산업 부문, 동일 직종내에서 그것이 광범히 도입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지어는 한개의 기업소 내에서조차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례컨대 대유동 광산의 룡동갱에서는 고속도 굴진을 전개하여 굴진 속도가 월 100메터 이상에 도달하고 있으나 이 작업 방법이 이 광산에 전반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에 이 광산에는 지난 5월 중순까지에 금년도의 굴진 실적이 15—20메터에 불과한 굴진 개소가 30 여 개에 달하고 있다.

소수 혁신자들이 달성한 선진 기술과 선진적 작업 방법들을 광범한 대중의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자들의 우수한 경험들과 대중 속에서 발현되는 새 싹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비록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 지지 옹호하며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 경제적, 조직적 대책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선진 기술 도입 사업을 일반적인 선전과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그를 해당 직종과 부문에 광범히 일반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례컨대 구성 광산 기계 제작 공장에서는 현재 기계 공업 부문에 광범히 도입되고 있는 정형 곡선 바이트, 꼬레쏘브 바이트 등 선진 절삭 공구를 거의 도입 보급하지 않고 있다. 결과에 이 공장의 절삭 속도는 희천 기계 제작 공장의 그것에 비하여 29%에 불과하며 바이트 소비는 규모가 동일한 다른 공장에서 1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단 하루에 소비하는 락후한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1. 4 분기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리 막동 로력 영웅이 창안한 원심력 확산기는 기계 공업성 산하 기업소들의 운수 부문에 광범히 보급되여 휘발유 절약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 절약을 위하여 원심력 확산기를 더 광범히 도입하여야 할 자동차 도로 관리국 산하의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일부 일'군들의 기관 본위주의와 보수주의적 태도에 의하여 그것이 광범히 도입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금년 1. 4 분기에 평북도 자동차 도로 관리처 산하에서만도 31톤 774키로그람의 휘발유를 랑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락후한 현상은 구성 광산 기계 제작 공장과 도로 관리국 산하 일부 기업소의 지도 일'군들이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지도 방법과 지도 작풍, 그리고 사업 태도를 개선하지 못한 데 기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은 위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중의 선두에 서서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 동맹 단체들은 당의 지도하에 국가 경제 기관들과 협동하여 선진 기술과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제안들의 보급 정형을 검토 총화하고 그 일반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동을 강화하며 특히 기술자들과 지도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이다.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술 일'군들의 임무는 아주 중요하다. 제 1차 5개년 계획에 예견된 생산의 높은 장성 템포를 보장하며 가공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품종을 확대하고 생산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문제들은 주로 기술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는 이 기간에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우리 인민 경제의 기술적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 일'군들은 로동자들과의 창조적 협동을 강화하여 모든 공업 부문들에서 기술적 개조를 부단히 진행하며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며 새로운 생산 방법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증산 경쟁 운동을 개개의 혁신 운동으로부터 선진적 기술에 기초한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 일'군들은 생산 현장에 침투하여 로동자들 속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발기들을 주의 깊

게 연구하여 기술 공학적으로 체계화하며 그를 보다 기술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발기들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업소 실정에 적응하게 기술자들과 혁신자들로써 실천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기술 테타를 작성하는 한편 그 발기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성, 보급 범위 및 규모 등과 그의 급속한 보급을 위한 경제 기술적 조건들과 합리적인 방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사고 방식의 개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직도 적지 않은 기술 일'군들 가운데는 낡은 사고 방법과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협애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기술을 생산 발전에 완전히 복종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로되고 있다. 기술 일'군들은 날과 더불어 발전하는 새 현실에 눈을 뜨고 생산 현장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무진장한 힘을 믿고 그들과 같이 의논하며 그들과 함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풍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선진 기술의 도입과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제안들을 실현하고 보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무 동력 수리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문제이다.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주생산 부문에만 매달리고 이 부문에 관심을 아주 미약하게 돌리고 있다. 결과에 지난 시기 이 부문 일'군들이 증산 경쟁 운동에서 거의 제외되여 있었다.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창의 고안과 합리화 제안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이에 필요한 설비 개조, 부속품, 기계의 점검 보수들이 지체 없이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 동력 부문의 기술 력량을 강화하고 이 부문 일'군들을 증산 경쟁 운동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 조작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표준 조작법의 엄격한 준수는 제품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지 않음으로써 질이 낮은 제품과 불합격품을 제작하여 국가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적 혁신 운동은 표준 조작법을 엄수할 뿐 아니라 그를 부단히 갱신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과 병행하여 견학, 실습, 경험 교환회, 기능 경기 대회, 혁신자 학교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리용하여 그것이 선진 기술과 경험을 보급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도록 그 사업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선전의 날》을 정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기술 선전실을 더욱 완비하고 그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소들에서 선진 기술을 보급 일반화하는 근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동자들의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는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는 기본 조건의 하나이며 새 기술에 기초한 집단적 혁신 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공장, 기업소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선진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로동자들이 이를 능숙하게 [illegible]사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집단적인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현재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발전하는 인민 경제의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형편에 처하여 있으며 기업소들에서의 기술, 기능자 양성 사업이 미약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 기업소들에서의 개인 기능 전습반 체계는 산만 무질서하며 기타 많은 기술 학습망은 침체 상태에 있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에 전국적으로 기술 학습망에 망라되였던 인원수의 26%에 해당하는 로동자들이 예견된 과정안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기술 학습망에서 리탈되였다. 결과에 1957년도 기능공 양성 계획은 소정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현실은 지도 일'군들이 기술, 기능자 양성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맹 단체들은 경제 기관을 방조하여 기술 학습 체계와 기능 전습 체계를 확립하며 가까운 장래에 무기능공들을 완전히 퇴치하며 기능 등급을 한 등급씩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집단적 혁신 운동은 사상 정치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될 때에라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킬 수 있다. 로동 계급 속에서 당 정책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일층 강화하여 그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시켜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 타개하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는 혁명 투사로 교양하는 것은 직맹 단체들의 주되는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직맹 단체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당 정책 교양과 아울러 벽보, 유선 방송, 공장 신문 등 온갖 선전 수단을 다 리용하여 집단적 혁신 운동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를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이 운동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할 것이며 생산 혁신자들과 앞선 집단들의 성과와 경험들을 선전함으로써 뒤떨어진 로동자들이 선진 대렬에 들어 서려는 의욕을 자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혁신자들과 우수한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및 물질적 평가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수한 집단들에 대한 정확한 물질적 평가와 그에 상응한 상금제의 적용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들의 의욕을 자극하여 이 운동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기업소 실정에 적응하게 종합 브리가다와 내부 채산제를 광범히 도입하는 그것이다.

지난 해 석탄, 림업, 건설 부문에서의 경험은, 종합 브리가다의 옳은 조직과 운영이 로력과 로동 시간의 합리적 리용, 기능 수준의 제고, 작업에서의 동지적 협조의 강화 등으로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석탄 공업 부문에서 집단적인 혁신을 일으키게 한 고속도 굴진 운동의 성과를 종합 브리가다의 조직 운영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각이한 직종의 로동자들을 망라시켜 조직한 종합 브리가다는 협소한 교대 본위주의를 청산하게 하며 로력 공간을 없애고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케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훨씬 제고시키게 한다. 뿐만 아니라 로력에 대한 보수가 브리가다 전체의 생산 실적에 의거하게 되므로 브리가다 성원들 호상간의 동지적 방조가 강화되며 따라서 집단주의 사상을 배양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종합 브리가다를 광범히 조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공업 부문과 건설 부문에 광범히 도입되고 있는 내부 채산제는 절약 제도를 강화하며 로동자들의 국가 재산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배양함에 있어서 효과 있는 방도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여 적은 자금과 물자를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보장하는 것은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에 크게 달려 있다.

지도 일'군들은 단시일 내에 인민 경제의 많은 부문에 내부 채산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며 예견된 절약 과제를 어김 없이 실천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수준의 제고에 기초하여 근로 대중 자신의 애국적 운동으로 발생하게 된 이 운동은 당의 지도하에 직업 동맹 단체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지도에 의하여서만 대중적 운동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전변될 수 있다.

새롭고 더 높은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증산 경쟁 운동은 그에 상응한 경쟁 형태와 경쟁 지도 사업에서의 개변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직업 동맹 단체들과 지

도 일'군들은 로동자들 속에 깊이 침투하려 하지 않으며 새로 조성된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게 증산 경쟁 운동에 대한 지도 방법을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발로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종전에 해 오던 낡은 도식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채택한 경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지도 사업을 병행시키지 않고 있다.

증산 경쟁 운동은 생산의 발전을 지향하는 산 사람들의 창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은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게 지도를 개선하며 증산 경쟁에 대한 총화 평가 사업을 옳게 진행하여 일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증산 경쟁 꼬미씨야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기업소 내 경쟁 지도 사업을 개선하는 결정적 고리의 하나이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증산 경쟁 꼬미씨야를 통하여 경쟁 지도 사업에 열성자들을 광범히 망라시킴으로써 지도를 로동자들 속에 접근시켜야 한다. 증산 경쟁 꼬미씨야는 언제나 경쟁 참가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개인과 집단들의 경쟁 의무 수행 정형을 료해 장악하고 경쟁자들 자신이 경쟁 의무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내여 경쟁 의무를 초과 실행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개개의 집단을 선진 대렬에 끌어 올리는 집단적 혁신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개인 및 브리가다 경쟁에 기본을 두고 진행되는 동일 산업 부문내 기업소 간의 경쟁과 지역별 경쟁, 동일 직종별 경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오늘 동일 산업 부문내 기업소들의 기술적 장비 정도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 산업 부문내 경쟁을 보다 광범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 지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더욱 성숙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석탄 공업 부문에서의 서부 탄전과 북부 탄전간의 지역별 경쟁이 이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금후 동일 산업 부문내 기업소 간의 경쟁과 지역별 경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게 지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업 동맹 단체들과 해당 성, 국들이 협동하여 체결된 호상 경쟁에 대한 호상 검열과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상 검열은 상대방의 결함을 지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호상 경험을 교환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앞에 제기되는 이 모든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직맹 단체를 더욱 강화하며 그의 사업 방법을 대담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업 동맹내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일'군들의 당성 단련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직맹 일'군들은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 서 휘가 뿌려 놓은 악독한 사상적 독소를 청산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당의 정책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심혈을 바치는 혁명 투사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낡은 사고 방식과 사업 방법을 청산하고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배양할 수 있으며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적 혁신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집단적 혁신 운동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애국 투쟁이다.

우리는 근로 대중의 창조적 열정이 들끓는 장엄한 현실과 고조되는 혁명의 시기에 상응하게 집단적 혁신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자!

우리 당 건설에서의 당 핵심의 역할

김 국 훈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당 핵심 대렬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당의 핵심 진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심 고리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해방후 창건된 청소한 당으로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된 조건하에서 북반부에서의 새 사회 건설을 지도하며 또한 미제와 리승만 도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대중을 전취하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어려운 혁명 과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기 대렬을 조직하고 확대 공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곤난한 조건하에서 당은 준비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핵심이 아직 많지 못한 좁은 그릇에 광범한 당원들을 망라하여 교양하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소화시키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100만의 강철의 대오로 되였다. 이에 있어서 당 핵심 진지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 온 당 중앙 위원회의 대책이 가지는 의의와 당 핵심들이 논 역할은 거대하다.

※ ※

모든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의 선진 분자들의 조직된 부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그 당들의 당원들은 동일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의하여 단결되였으며 유일한 중앙 위원회의 지도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활동하는 자각적 투사들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당 자체가 로동 계급의 핵심 분자들의 조직이다. 우리 당에 관하여 말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 당 규약에는,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이 명백히 지적되여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내에서 또 핵심 진지가 필요한가?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당내에서 핵심 진지 강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게 된 것은 과거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과 우리 당 창건 및 강화 발전의 력사적 특수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그 영향하에 우리 나라에서도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로동 계급을 중심으로 한 근로 대중의 혁명 운동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장성하는 로동 운동에 기초하여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여 발전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 일정한 추동력을 주었다.

그러나 방금 발전의 첫 걸음에 들어 선 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자들의 탄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대렬내의 종파의 해독 행위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였다.

당시 조선 로동 계급은 아직 청소하였으며 따라서 당은 로동 계급 속에서 배출된 우수한 간부들로써 꾸려지지 못하였었다. 그 반면에 혁명의 일시적 동반자들과 비프로레타리아 요

소들이 당내에 적지 않게 잠입하였으며 개인리기주의, 출세주의에 사로잡힌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이 당 지도부를 좌우하게 되였었다. 그리하여 당내에서는 각종 종파 분자들에 의한 무원칙한 파벌 투쟁이 감행되였다.

당내에 진정한 공산주의적 핵심이 없은 조건하에서 더우기 일제 경찰의 추궁과 탄압이 가혹한 조건하에서 당내에서 버려진 무원칙한 파벌 투쟁은 결국 당 자체를 완전한 파멸에로 이끌고 말았다. 소위 당내 《헤게모니야》를 위한 야욕 밑에 무원칙한 파벌 투쟁을 감행한 종파 분자들은 당을 파괴하였으며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을 분렬시켰으며 후대에까지 악독한 종파 여독을 남겨 놓았다. 1920년대의 이 쓰라린 력사적 경험은 당내에 견실한 공산주의적 핵심이 없이는 당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한 전투적,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공산당을 마라먹은 후에도 계속 감행하여 온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에 의하여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받은 상처는 해방후 우리들이 체험한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간고한 당내 투쟁의 대'가로써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엄중한 것이였다.

종파 분자들의 계속되는 파벌 행동이 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의 기초 우에서 발전하는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과 로동 운동은 자체내에서 견실한 령도적 핵심을 배출하면서 1930년대부터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로동 운동의 불'길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혁명 운동 발전의 필연적 요구에 의하여 그 선두에 나선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견실한 령도적 핵심은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영웅적 항일 혁명 투쟁을 조직 지도하면서 조선에서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일찌기 레닌은 자연 발생적으로 운동에 망라되는 대중적 토대가 광범해지면 질수록 지도적 핵심이 더욱 견고하여야 하며 오직 지도적 핵심이 견고한 조건하에서만 혁명 투쟁의 견인력 있고 확고한 발전이 보장된다고 교시하였다.

1930년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자들의 파쑈적 탄압이 그전 시기에 비할 수 없이 강화되여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활동 조건은 극히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운동과 반일 혁명 투쟁이 더욱 완강한 견인력과 지향력을 가지고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 수 있은 이 사실은 혁명 운동에서의 령도적 핵심이 가지는 결정적 의의를 확증하여 주었다.

조선 인민의 혁명 세력이 가지게 된 이 견실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토대——이것은 해방전 조선 근로 대중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으며 가장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혁명적 전취물이였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과 또 해방후 고도로 앙양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급속히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가능케 한 기본 담보로 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 창건 행정에는 일련의 난관들이 가로 놓였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혁명 세력은 자기의 참모부인 통일적 당 창건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준비된 혁명 대렬을 완전히 꾸리지 못한채 8. 15 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게 되였다.

해방전에 통일적인 당이 존속되지 못한 관계로 우선 우리 나라에는 당에 의하여 육성되고 검열된 간부가 그 수요에 비하여 극히 부족하였다. 또한 당이 존속되지 못한 까닭에 종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지 못하였으며, 로동 계급의 대렬은 조직적으로 완전히 결속되지 못하였다. 더우기 반당 종파 분자들은 해방후 또 다시 무원칙한 파벌 행동을 감행하여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분렬을 획책하면서 당 창건을 저해하였다.

해방된 조선에서 정권을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이 장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비롯한 반혁명 세력이 장악하는가 하는 적아간의 판가리 싸움이 버러지는 순간에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 대렬의 분렬, 당 창건의 지연은 혁명의 운명을 파국에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였다. 이것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극악한 원쑤인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통일적 당이 없이, 준비된 혁명 세력을 완전히 꾸리지 못한 조건하에서 맞이하게 된 해방 직후의 혁명 정세는 이와 같이 혁명의 참모부인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과 전체 혁명 세력, 우선 공산주의 력량의 통일을 잠시도 유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위 《공산주의자》로 자처한 종파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밖에 국내외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적지 않은 혁명가들도 우리 나라 혁명 정세와 당 창건의 긴급성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종파 분자들의 분렬 책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반면에 당 창건에서의 난관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당 종파 분자들은 로동 계급과 혁명 세력을 분렬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중한 혼란을 조성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박헌영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방조》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우경 투항주의적 설교로써 대중에게 친미 사상을 고취하였다. 또 다른 일부 종파 분자들은 해방 직후부터 당장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좌경》 기회주의적 구호를 고창하면서 대중속에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혁명 정세가 긴급하고 공산주의 대렬내의 형편이 복잡하고 대중 속에서 정치적 혼란이 심한 어려운 순간에 오직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명확한 로선과 과업이 명시되였으며 정확한 조직 로선에 근거한 당 창건 사업이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그들에 의하여 이룩된 조직 사상적 토대 우에서 창건되였다. 해방 직후 그 복잡하고 곤난한 조건하에서 만일 견실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사업과 혁명의 운명은 또다시 엄중한 위험에 빠졌으리라는 것은 오늘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명백해졌다.

비록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창건되였지만 우리 당은 그가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과 지도적 핵심이 견고한 까닭에 처음부터 확고부동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과 혁명의 운명에 있어서 령도적 핵심이 논 역할은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과 전 인민이 그렇게도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소중히 하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의 령도적 핵심, 당 중앙 위원회를 존경하고 옹호하며 그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는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 ⁂

당 창건 이후 우리 당 건설 행정에서는 당 단체들에 핵심 진지가 요구되였으며 또 그들이 논 역할도 거대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 끼친 종파의 해독성, 이와 관련된 공산주의자 대렬의 복잡성, 혁명 정세의 긴급성으로 말미암아 당 창건에 있어서 우리 당은 이미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로써만 자기의 대렬을 구성할 수 없었다. 또한 과거 국내 국외의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당에 망라함에 있어서 사전에 다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검열 료해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데로부터 오래 동안 분산적인 지하 활동에서 자유주의, 지방주의적 경향을 버리지 못한 일부 분자들, 또는 중앙 집권적 당 규률 생활이란 해보지 못하였고 당 조직 원칙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당내에 들어 오게 되였다. 지어는 과거 《화요파》요, 《서상파》요, 《엠엘파》요 하는 등등의 각종 파벌에 속하여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 분자들이 종파 여독을 완전히 근절하

지 못한채 자기의 정체를 음폐하고 당내에 기여 들어 오게 되였다. 이미 폭로 분쇄된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을 비롯하여 최 창익 반당, 반혁명 도당에 이르는 일련의 반당 종파 분자들이 바로 그러한 례이다. 이러한 자들의 잠입과 관련하여 창건 초기의 우리 당 대렬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였다.

당내 구성이 이와 같이 복잡한 형편에서 또 우리 당은 보다 광범한 근로 대중을 자기 대렬에 조직하는 대중적 정당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물론 공산당으로부터 로동당으로의 전환은 우리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으며 또한 이것은 그 후 생활이 증명하여 준 바와 같이 조선 혁명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긍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당이 로동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당 대렬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1946년 8월 이전에 공산당원 수가 불과 27만 6,000명이였다면 그 때로부터 1년 5개월 후인 1948년 1월에 우리 당원수는 75만 명으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거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과거 오래 동안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관계로 주민의 절대 다수가 소부르죠아 성분이였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이 량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계급으로 형성된 력사가 짧고 혁명적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대규모적 혁명 투쟁에서 단련됨이 미약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당 대렬의 급속한 량적 장성은 그 질적 구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에 인용한 75만 여의 당원중 약 80% 이상은 비프로레타리아 성분으로 구성되였었다. 이리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 소부르죠아적 사상 및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자각이 미약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에 망라되였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우리 당의 《선천 부족》과 당 창건 및 그 발전의 특수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된 당 대렬 구성의 복잡성과 소부르죠아 요소의 증대 등은 당내에서 일련의 부정적 경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원으로 되였다.

종파 분자들은 당내에 잠입한 그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 우선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그의 영광스러운 지도적 핵심을 헐어 버리려고 시도하였다. 당내의 소부르죠아적 요소는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시도의 온상으로 리용될 수 있었다.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게 된 당원들의 계급적 각성의 미약성과 정치적 단련의 부족 등은 당내에서 비조직적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였다.

바로 이상과 같이 당이 일시에 광범히 확대되였으며 따라서 당 구성의 복잡한 실정에 대처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 중앙 위원회와 전 당의 통일 단결을 수호하며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원칙과 당 규률을 강화하며 전체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소화하기 위한 기본 대책의 하나로서 당 단체내에 핵심 진지 강화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당 단체내에 핵심 진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당 단체들에서 자각적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자는 데 귀착된다.

우리 당의 전통과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적 핵심은 확고부동하지만 그러나 우리 당 건설의 특수성과 혁명 발전의 복잡성에 비추어 당이 만일 당 단체들에 자각적 공산주의자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함이 없이는 당 외의 적들 뿐만 아니라 당내의 반당 종파 분자들의 침해로부터 당 중앙 위원회와 당 정책을 옹호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과 당의 조직 원칙을 고수하며 전체 당원들을 당의 사상 의지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교양하며 당내에서 종파 여독과 온갖 비프로레타리아 사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극복 청산하며 당의 튼튼한 사상 조직적 체계를 확립하는 등 중대한 과업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과 함께 당 단체들, 우선 초급 당 단체의 핵심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세포는 그 성분으로 보아 그 정치적 수준으로 보아 유일하지 않다. 한 세포내에는 정치적으로 준비된 당원도 있고 정치적으로 락후한 당원들도 있으며 세포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당원도 있고 피동적으로 참가하는 당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성 분자들로 우리 세포의 열성적 핵심을 양성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세포의 이 열성적 핵심들이 자기 사업을 통하여 세포내의 전체 당원들을 정치적 의식과 당적 각성이 높은 당원으로 만들도록 사업을 조직하여야 하겠다》(선집, 제 1권, 524—525페지).

김 일성 동지는 또한 당 핵심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대렬을 더욱 튼튼하게 하며 우리 당과 군중과의 련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 건설에서 당 중앙 위원회가 실시하여 온 당 핵심 진지 강화에 대한 대책은 당이 광범한 근로 대중을 자기 대렬에 망라하면서도 당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사상 조직적 원칙을 확고히 유지 강화하며, 달리 말하면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성을 보장하면서 자기 대렬을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근로 농민, 근로 인테리 및 모든 근로 대중 속에 확대함으로써 광범한 인민 대중을 전취하여 혁명 과업 수행을 보장하게 한 결정적 고리의 하나였다. 이것은 당이 해방후 당 활동의 유리한 가능성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당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가장 농축하게 구현한 모범으로 된다.

일찌기 레닌은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임이 장성되고 당성의 제 기본 원칙, 맑스—레닌주의적 강령 및 규약상의 원칙이 확고하고 당의 확고한 전통과 조직적 경험이 있는한, 정세 발전의 요구에 따라 당이 자기의 진지를 대담하게 확대하며 수백명, 수천명씩 당 대렬에 끌어 들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계속하여 레닌은 이 경우에 있어서 당 핵심의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살아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 온갖 정당에는 언제나 불견고성, 동요성의 요소들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잊지말라.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은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견결하고 단결된 핵심의 영향에 복종하고 있으며 또한 복종할 것이다》(전집, 제 10권, 1분책,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25—27페지 참고).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 단체들에서 자각적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로써 당 단체와 당 기관의 골간을 꾸리며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전 당과 근로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며 전체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일상적 과업으로서 진행하여 왔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 정세 발전의 요구에 따라 광범한 근로 대중 속에 대담하게 자기의 근거지를 확대하여 반동 세력의 영향을 분쇄하며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 과업들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또 보장하고 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육성되고 단련된 핵심 당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 중앙 위원회와 당의 통일 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옹호하며 그를 비방 중상하는 경향에 대하여는 추호도 타협을 모르는 가장 적극적인 당성이 강한 투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항상 당 중앙 위원회의 사상과 의지로써 사고하고 활동하며 당 정책과 지시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고 있다.

로동당 창건 초기 또는 제 4차 전원 회의 직후 시기들에서와 같이 단시일에 수십만의 당원이 증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능히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소화시켜 당의 전투력을 제고할 수 있은 것은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와 함께 당 단체 핵심 진지가 견고하였으며 핵심 당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단시일에 수십만의 근로자 출신의 당원들을 망라한 청소한 우리 당이 3년 간의 가혹한 전쟁 시기에 특히 일시적 후퇴와 같은 그 곤난한 시기에도 자기 대렬내에 혼란과 동요가 없이 무비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발휘할 수 있은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또한 우리 당이 박 헌영, 리 승엽 도당, 최 창익,

박 창옥 도당 등의 폭로 숙청과 같은 복잡한 당내 투쟁을 거치면서도 항상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은 것은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당의 핵심 진지가 견고하였고 그들을 골간으로 당 조직들이 꾸려졌기 때문이였으며 전체 당원들 및 근로 대중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을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단결시키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옹호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난관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 단체 핵심들의 선봉적 역할과 그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 핵심 진지는 모든 당 단체들과 혁명 과업 수행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 정책 관철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서, 당 중앙 위원회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옹호하는 지주(支柱)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우리 핵심 당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은 전체 당원들에 대한 고무적 및 교양적 모범으로 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의 시종일관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당내에는 이러한 핵심들이 수 많이 육성되였으며 또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불'길 속에서 새 핵심 당원들이 매일과 같이 육성 단련되고 있다. 당 대렬내에서 자각적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대량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있는 이 사실은 당의 통일 단결과 그 전투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오늘 100만의 강철의 대오로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 핵심 진지의 확대 강화 문제가 더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

오늘 당 핵심 진지의 확대 강화에 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로써 설명된다.

오늘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촉진 및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 및 북반부에 잔존하는 반혁명 세력의 최후적 발악을 야기하는 첨예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닥쳐 오는 혁명의 승리를 준비 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그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통일 단결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 요구되며 그러기 위하여 당 핵심 대렬을 더욱 확대하며 튼튼히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당내에서 종파 여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적지 않은 수의 당원들이 당에 들어 온 기간이 짧으며 또 그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그의 사상 의식 수준 및 정치적 각성 정도가 현재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또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 조선에서 각 정당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는 국제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증대될수록 우리 당을 가일층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을,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곤난하고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당적 의지로 사고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 발전시키며 대중을 이끌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할 줄 아는 자각적이고 자립적인 혁명 투사로 단련할 것이 더욱 요구된다.

《조성된 현 정세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전체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선차적인 임무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당 핵심 육성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당 핵심 대렬을 계속 확대 공고화하는 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된다. 당 단체들은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충분히 검열된 당성이 강한 당원들을 정확히 료해하고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

* *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당 핵심이란 당내의 그 어떤 직제도 아니며 또 당으로부터 특별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 받는 것도 아니다.

핵심 당원이란 다른 당원들 보다 더욱 높은 당성, 당과 혁명에 대한 충직성, 대중 속에서의 모범적 역할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 핵심은 당 단체들의 일상적 지도하에 당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실지 투쟁에서 자라나며 검열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핵심 진지를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업하는 당원들 중에서 자라나는 핵심 당원들을 정확히 료해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핵심 당원들을 료해 장악함에 있어서 정치—사상적 표징 즉 당성을 료해함이 없이 실무적 수준에만 의거하는 데로부터 말이나 잘 하고 글이나 깨끗이 쓰면 덮어 놓고 우수한 당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일시적인 《열성》이나 지어는 상부에 아첨하며 맹종맹동하는 것을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핵심 당원으로 간주하는 현상들도 있었다.

이러한 곳에는 사상적으로 불건전한 자들과 지어는 불순 이색 분자들까지 자기의 정체를 음폐하고 핵심 대렬에 기여 들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당원들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보다 당원들의 당성에 의거하여 분별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 확고한 계급적 립장, 정치 생활의 순결성, 당 규률에 대한 자각성, 부정적 현상들과의 투쟁에서의 견결한 태도, 실천적 투쟁에서의 선봉적 역할, 혁명적 군중 관점의 확립, 대중 속에서의 높은 신망, 자체의 정치 사상 수준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 등을 참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부 당 단체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분이나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으로써는 료해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루차 지적한 바와 같이 성분이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한두 번의 담화나 말과 글을 통하여서만도 료해할 수 없다. 오직 실천을 통하여, 평화롭고 순조로운 시기에만 아니라 특히는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검열하여야 하며 계통적인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료해 장악하여야 한다.

당 핵심과의 사업, 핵심을 료해 장악하기 위한 사업은 전체 당원들과의 사업의 한 부분이다. 전체 당원들과의 사업을 더 잘 하기 위하여 당 핵심이 필요하며 핵심과의 사업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체 당원들과의 사업과 분리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핵심 대렬을 계통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 당 단체들은 이미 장악한 핵심들에 의거하여 전체 당원들 속에서의 일상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례외 없이 모든 당원들을 당 사업에 인입시켜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그의 실행을 지도 검열하며 그를 통하여 매개 당원들을 료해하며 핵심들을 장악하여야 한다.

핵심 당원들을 료해 장악함에 있어서 누가 핵심이냐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개의 핵심 당원들이 도달한 정치 사상적 수준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의 핵심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 파악함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핵심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명 투쟁의 행정에서는 그 당원들의 사상 발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과거에 가졌던 인상이나 혹은 주관적 환상에만 구애되여 그 후 변화된 사실을 충분히 료해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당원의 당성을 옳게 료해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 당원을 정확히 료해 장악하자면 당 단체 지도 기관들이 당원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실천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 방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실제 사업에서 나타난 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한 데 근거하여 핵심 당원들을 분별해 내며 핵심 대렬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핵심 진지를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문건상으로 핵심 명단만 작성해 쥐고 그들과의 일상적 사업을 등한시하는 현상을 시급히 퇴치하고 이미 료해 장악한 핵심 당원들을 부단히 교양 훈련하여 그들의 당성을 제고하며 그들로 하여금 대중 속에서의 조직 교양자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지도 방조 사업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핵심 당원들이라고 하여 모두가 다 동일한 정도로 정치 사상적으로나 사업 작풍에서 완성된 당원은 아니다. 우리의 혁명 투쟁은 부단히 발전하며 다른 당원들의 수준도 계속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 그들을 항상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정치적 임무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불원간 락후될 수 있으며 계속 당의 핵심 대렬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핵심 당원들을 교양 훈련함에 있어서는 우선 혁명 발전의 매 계단에 있어서의 당 중앙 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의도를 그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의 원리를 파악하고 혁명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가지도록 개별적 또는 집체적 지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당 위원회 전원 회의, 집행 위원회, 열성자 회의, 협의회 및 기타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핵심 당원들에게 당의 결정, 지시들을 제때에 정확히 침투시키며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계발하며 당적 위임에 대한 집행 정형을 수시로 검열 총화하고 그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일상적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회, 각종 강습, 강연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들 자신이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의 정치 리론적 수준을 제고하며 자신의 당성 단련과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핵심으로 인정된 당원들이 일정한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며 열성을 발휘하였다 하여 그 후에는 그의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등한히 하거나 혹은 핵심이라 하여 그의 사업 및 작풍상에서 발로된 결함을 제때에 비판하지 않고 《자체로 시정하겠지》 혹은 《사소한 것인데》 하고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 단체들의 핵심 당원들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태도는 일부 핵심 당원들의 계속적인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된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의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한 때 당성이 강한 핵심이였던 당원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여 사소한 결함을 제때에 시정하지 못한 데로부터 후에 엄중한 과오를 초래하고 핵심 대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사실들도 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부 당 단체들이 핵심이라 하여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등한히 하며 결함을 제때에 비판하지 않고 묵과한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핵심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당적 원칙에서 교양하고 훈련하며 결함에 대하여 비판 시정하게 하면서 성과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지 찬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핵심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부분은 간부들이다. 따라서 핵심 당원들과의 사업에서 가장 주요하게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간부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루차 교시한 바와 같이 간부들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실무적 표징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주요하게는 당성의 표징에 의거하여 간부들을 선발 배치하며 그들을 육성 단련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실시 강구하는 것은 당 위원회와 당 단체들의 제1차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당 핵심을 옳게 료해 장악하고 그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자면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들을 당성이 강한 핵심 당원들로써 구성하고 그의 역할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급 당 단체는 전체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 통제하며 그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을 제고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대중 속에서 집행하는 우리 당의 기본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들이 핵심 당원들 중에서도 가장 준비된 우수한 당원들로써 구성되여야만 당 정책이 정확히 대중 속에서 실현되며 특히 그렇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진실한 당적 핵심들을 료해 장악해 낼 수 있으며 매개 당원들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시켜 핵심 대렬을 확대 강화할 수 있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만일 초급 당 위원회들이 견실한 당원들로써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한 당 핵심들이 장악되지 못하고 일부 불건실한 자들이 당 《핵심》으로 인정되며 당내 사상 투쟁이 마비되며 당원들의 당성 단련이 저애되고 당 정책이 정확히 침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핵심 당원들로써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이 꾸려지지 못하고 그의 지도적 역할이 미약한 곳에서는 당원들의 당 생활이 형식적으로 조직 지도되며 핵심 당원들의 적극적 활동이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핵심이 박해를 당하게 되며 그리하여 누가 진실로 핵심인지 또 어느 정도의 정치 사상적 수준에 있는 핵심인가를 정확히 료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 사상 생활에서와 실천적 활동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가장 우수한 핵심들로써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의 핵심 진지를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전 당, 특히 시, 군당 위원회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바 시, 군당 위원회들은 항상 초급 당 단체들로 하여금 자기 초급 당 단체에 망라된 당원들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계통적으로 교양 훈련하도록 그를 방조하며 그의 자립성과 대중 속에서의 정치 조직자적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지도 사업을 강화하며 지도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 군당 위원회는 첫째로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며 간부들을 연구 료해하며 당 핵심들을 육성 단련하는 사업에 주력하며, 둘째로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과 대중에게 사회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세째로 당 정책을 대중 속에 해석 침투시키는 사업에 자기 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1958년 3월 7일 도, 시, 군당 위원장들에게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이리함으로써 각급 당 단체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결속된 핵심 대렬을 확대 강화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전투력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보천보 전투 승리의 력사적 의의

리 재 림

1937년 6월 4일 조선 인민 혁명군의 한 부대는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령솔하에 보천보에 진공하여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전투는 해방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줄기차게 전개된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의 한 부분으로 특히는 조선에서의 혁명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작전의 한 부분으로서 진행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의 파쑈적 탄압이 극도에 달하여 조선 인민의 운명이 생사의 기로에 처하였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단행된 보천보 전투의 승리는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졌다.

15개 성상에 걸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과 보천보 전투에서 뿌린 혁명의 씨앗은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되였다. 이 영광스러운 전통의 뿌리에서 났으며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된 우리 당은 오늘 전체 인민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령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21년 전에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그의 지도하의 인민 혁명군 영웅들이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사회주의적 미래를 위하여 피흘려 투쟁한 보천보 전투 승리의 기념일을 사회주의 혁명의 고조 속에서 맞이하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자랑스럽게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말 1930년초 앙양되는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진출에 기초하여 북부 조선과 남북만의 광활한 지역을 무대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전략 전술적 기초 우에서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은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일층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 올렸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제 임무와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빨찌산 대렬내와 그의 활동 지역들에서는 당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당 핵심을 부단히 육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십만의 대중을 가진 군중 단체들을 조직하였는바 이는 빨찌산 부대의 공고한 대중적 지반을 이루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빨찌산 부대는 인민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계속 확대 강화되여 갔으며 일본 략탈자들과의 성과적인 투쟁 행정에서 장성하여 1934년 봄에는 조선 인민 혁명군으로 발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국제 공산당 제 7차 대회에서 채택된 반파쑈 인민 전선 로선에 대한 결정과 함께 조선 혁명 운동에 직접적 지도를 보장할 데 대한 일련의 방침들을 접수하고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였으며 그의 창립 선언과 력사적인 10대 강령을 선포하였다. 이 강령은 1930년대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적 제 조건과 계급적 호상 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의 장래 전망과 지향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강령으로써 조선 인민은 비로소 자기 투쟁에서 뚜렷한 목표와 신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였다. 조국 광복회의 강령은 앙양되는 대중의 반일 기세를 목적 의식화하며 조직화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였다.

광범한 대중적 지반과 정확한 로선을 가진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남북만의 광활한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유동(遊動) 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 군사적 타격을 주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무장 투쟁을 진행하면서 국내의 혁명 력량을 집결하여 그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여 왔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녕안현 남호두에서 진행된 군정 간부 련석 회의에서 채택한 방침에 따라 1935년 말 1936년에 걸쳐 장백, 무송, 림강, 안도 일대에 기동성을 가진 유격 근거지——비밀 병영(보통 《밀영》이라고 부름)들을 창설하였으며 1936년 3월 말에 조선 인민 혁명군 지휘부가 이곳에 진출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의 조선 국경 대안 진출과 장백 근거지 창설은 조선 혁명 운동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사변으로 되였다. 장백 일대를 근거로 하여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국경 일대에서 유격 운동을 대규모적으로 진행하면서 함북, 함남, 평북 등 국내 각지에 독립적인 유격 소대 및 중대들을 파견하여 활동케 하였다.

이와 함께 이 지대에서 당 조직 사업과 조국 광복회의 조직망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조국 광복회는 단시일 내에 수십만의 인민 대중을 자기 산하에 망라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공작원으로서 국내에 파견된 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 준비 사업과 통일 전선 로선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들로서 각종 반일 조직들이 확대되여 갔으며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 로선에 립각하여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국내의 광범한 혁명 력량의 결합을 달성할 수 있는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갑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박 달, 박 금철 동지들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 밑에 정확한 투쟁 로선을 확립하고 1935년에 조직하였던 《갑산 공작 위원회》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으로 개편하여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민족 해방 동맹은 자기의 하부 조직 이외에 많은 군중 단체들을 가지고 수다한 혁명 투사들을 육성 단련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 및 조국 광복회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은 혁명적 출판물을 통하여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광범한 보급을 촉진시켰고 조선 혁명의 제 과업 및 그 수행 방도들을 천명함으로써 혁명 군중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공산주의 대렬의 사상 조직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인민 혁명군 병사들과 혁명 대중을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옹호하며 반일 공동 투쟁에서 조 중 량국 인민간의 전투적인 우의와 단결을 일층 공고히 하는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이리하여 다년간에 걸친 영웅적 투쟁 행정에서 단련되였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

양되였으며 공고한 대중적 지반을 가진 불패의 군대로 장성 강화된 인민 혁명군은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개시하게 되였다.

※ ※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인민 혁명군 부대의 국내 작전은 주로 두개의 방향에서 진행되였는바 그 하나는 함북 무산 일대에로, 다른 하나는 함남 보천보 일대에로의 진공이였다.

1937년 4—5월경 조선 인민 혁명군의 한 부대는 최 현 동지의 인솔하에 안도 일대와 함북 무산 근방에서 대규모적인 유격 전투를 전개하면서 5월 하순경에는 비합법 조직들과의 련계 밑에 허항령 계선으로부터 무산 지구에 진출하여 일본 수비대 및 경찰들을 기습 소탕하고 인민들을 해방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 군사,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당황한 적들은 라남 주둔 19사단, 무산, 회령 지구 수비대를 동원하는 동시에 혜산, 신파 수비대 및 괴뢰 《만주국》의 군대와 두만강 연안 국경 지구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혁명군 부대의 포위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 기도도 역시 인민 혁명군 부대들의 령활한 작전에 의하여 분쇄되고 말았다.

인민 혁명군의 다른 부대는 적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무송 지구에서 활동하다가 기동적으로 보천보에로의 진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보천보는 함남 갑산군 보천면 소재지로서 이 곳에는 일제의 각종 기관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 곳은 혁명군 부대들의 국내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 군사 거점으로 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 대한 공격은 적들에게 막대한 정치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 전투에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조선 민족 해방 동맹 간부들과의 밀접한 련계하에 인민 혁명군의 한 부대를 인솔하고 일제가 《금성 철벽》의 《진용》을 갖추었다고 자랑하던 압록강안의 경비망을 뚫고 조국으로 진군하였다. 강을 넘어 대오를 정비한 혁명군 부대는 갑산군 보천면 산위리 부근 곤장덕 산림 속에 집결하였다. 이 곳에서 김 일성 동지는 보천보 전투의 승리적 보장을 위하여 혁명군 대오를 다섯 개의 진공대로 편성하고 각각 해당한 전투 임무를 제시하였다. 1937년 6월 4일 밤, 혁명군 부대들은 보천보 시가에로 진공하였다.

주재소에 진공한 부대들은 경찰들을 제압하고 주재소를 삽시간에 점령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른 부대들도 자기의 전투 위치에서 원쑤들의 중요한 기관들인 면 사무소를 비롯하여 농사 시험장, 산림 보호구 사무소, 우편소 및 소방대 등을 습격 소탕하였으며 그 곳에 복수의 불을 질렀다.

선전 공작대들은 시내 각 처에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조선 인민 대중에게 격함》 등의 격문과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살포하였다.

《포고;

간악 무쌍한 강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하고 20여 년 이래 총독 정치라는 식민지 통치로써 조선 동포들을 유린 학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 동포들은 놈들에게 피와 땀으로 된 재산을 모조리 략탈 당하여 비참한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우리 민족을 제 2차 대전의 선봉대로 하여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의 도구로 내몰고 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생사 존망의 최후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우리들은 자기 민족의 출로를 개척하고 자기 생활을 타개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 혁명군이다.

우리들이 6, 7년 간 만주 광야에서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과의 필사적 투쟁에서 치명적 타격을 준 것은 세인이 다 인정하는 바이다.

본 군은 조선에 있는 애국 지사와 열혈적인 본 군 용사들의 강력한 굳은 단결 우에 조선 민족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는 흡혈귀, 조선 총독부와 직접 싸울 목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함남북 일대에 원정하게 되였다.

가련한 동포, 형제들!

속히 출동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단결하여 각종 투쟁으로써 본 군의 유격 투쟁에 호응하라!

하루 속히 일제 통치를 분쇄하고 진정한 조선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매진하자!》

이러한 격문과 삐라들은 이곳 인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의 가슴 속에 자유와 독립과 해방의 신념을 북돋아 주었다.

보천보 시가에서 원쑤들을 격멸한 혁명군 부대들은 경기관총을 비롯한 군수 물자들을 로획하여 가지고 시가를 철수하였다.

인민 혁명군 부대의 보천보 진격에 당황한 적들은 함남, 함북의 경찰들과 산림 경찰대 및 정규군 부대들을 동원하여 여러 방면으로 되는 추격전과 장거리 포위 작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추격 부대들은 6월 5일 구시산에서 혁명군 부대에게 격멸되였다. 조국 땅에 진군하였던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장백현 히싸즈거우 제 2 밀영으로 개선하였다.

국내에서 대타격을 받은 적들이 반드시 《토벌 작전》을 더욱 크게 감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1937년 6월 말 600여 명의 혁명군 부대를 인솔하고 간삼봉 고지에 진출하였다.

이 때 적들은 자기들의 패배를 만회해 보려고 조선 주둔 19사단 함흥 련대와 위만군 혼성부대 등 2,400여 명을 동원하여 간삼봉 고지에로 진격하여 왔으나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였다. 보천보 전투를 중심한 이 시기 국내 작전의 정형은 이러하였다.

※ ※

장기간에 걸친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 있었던 수다한 대규모적 전투들에 비하여 보천보 전투는 그다지 군사적으로 큰 전투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급 투쟁에 있어서 매개의 군사 작전이나 파업, 시위 등이 가지는 의의는 그 규모의 대소 여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의의는 그것이 혁명 정세의 어떠한 순간에서 적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었으며 혁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보천보 전투는 그 력사적 환경, 그것이 적에게 준 정치 군사적 타격, 혁명 발전에 준 영향으로 보아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졌다.

보천보 전투가 단행된 이 시기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전 기간에 있어서 조선 인민이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대륙에 대한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군비 예산의 충당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략탈과 착취를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병참 기지로서의 조선에 대한 전대미문의 파쑈적 폭압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조선 인민의 애국자들을 모조리 검거 투옥하기 시작하였으며 언론, 출판, 결사에 대한 극단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또 그들은 소위 《국체 명징(國体明徵)》이니 《심전 개발(心田開發)》이니 《내선 일체》, 《동조 동근》 등등의 구호를 내들고 조선 인민을 영원히 자기들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려 하였다.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 폭압과 략탈의 강화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생활은 참혹한 지경에 빠지게 되였다. 일제의 군비 경쟁의 후과가 빚어낸 물가의 등귀와 함께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증가와 또한 《자원 개발》의 미명하에 감행된 혹심한 경제적 략탈의 강화로 말미암아 로동자, 농민의 생활 형편은 극도로 악화되였다. 로동자, 농민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민족 부르죠아지들도 일제의 중요 산업 통제로 인하여 파산과 몰락의 운명에 빠졌으며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절망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 시기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일제의 침략 행동에 발맞추어 《내선 일체》, 《동조 동

군》을 찬양하면서 조선 인민을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되게 하려는 반역적 죄행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또한 견실치 못한 사이비 공산주의자, 기회주의자, 동요 분자들은 투쟁 대렬에서 탈리하여 변절, 투항하거나 시정배로 전락하여 가고 있었다.

이리하여 일제 파쑈 통치의 폭압이 인민들의 머리 우를 누르고 우리 민족의 모든 우수한 것의 명맥(命脈)이 끊어진 듯이 암담한 비운이 우리 나라 전토에 서리였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인민 혁명군 부대들이 보천보에서 올린 혁명의 홰'불은 암흑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조선 인민에게 조국 해방의 서광으로 되였다. 보천보 전투는 《조선 인민은 영원히 대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두 길 중의 한 길을 택하라고 위협하는, 우리 인민의 모든 우수한 전통과 함께 말과 성(姓)까지 말살하려고 발악하는 일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대답으로 되였다. 이 전투는 조선 인민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으며 조선의 혁명 세력은 자기의 믿음직한 혁명적 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다.

보천보에서 뿌려진 혁명의 불씨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조국 해방을 위한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무한히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고통과 절망의 암흑 속에서 조국 해방의 서광을 바라 보고 용기와 신심을 얻은 인민들 속에서는 반일 기세가 급속히 높아 갔다. 여기에 바로 보천보 전투 승리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보천보 전투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는 인민 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일제 침략자들에게 거대한 정치적 및 군사적 타격을 준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일제는 중국 본토와 쏘련에 대한 침략을 로골적으로 준비하면서 후방 강화에 광분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조선 전토를 헌병, 경찰망으로 얽어 놓았으며 국경 지대에는 《수비대》, 《특별 경비대》 기타 경찰대를 증강 배치하고 후방의 견고성을 호언 장담하였다. 이러한 때에 적 후방 중심 깊이에서 진행된 보천보 전투의 승리는 적들에게 군사적 타격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적 후방을 동요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타격으로 되였다. 국경 수비대들과 특별 경비대 및 경찰들은 직접 인민 혁명군의 군사적 타격을 받고 불안과 공포심에 떨게 되였다. 당시 보천보 전투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는 인민 혁명군의 《…활동이 조직적이며 통제적인 것은 실로 한 나라의 독립된 군대와 다름이 없다》 (1937년 《함남 경우》, 함남도 경무부 발행)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천보 전투 승리로써 《김 일성 부대는 전멸되였다》느니, 《공비들은 만주 밀림 속에서 한 걸음도 나설 수 없게 되였다》느니 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허위 선전과 비방은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보천보 전투 승리는 국내 혁명 운동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후 조선 민족 해방 동맹 하부 조직들이 매우 급속하게 확대되고 그 활동이 활발하여졌다. 1937년 8월에 홍남 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조국 광복회 지부들이 결성되였고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의 격문이 함흥시 내를 비롯하여 함남북 일대에 다수 살포되여 대중들에게 반일열을 고취하였다.

국내 각지에 파견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과 종적 및 횡적인 련계 밑에 함북 일대에서 《함북 반일 동맹》을 조직하였으며 라진, 청진, 영안, 명천, 길주, 성진 등지에 공산주의적 조직체들을 건립하여 이 지대에서 광범히 활동하던 로조, 농조 운동에 대한 지도 체계를 수립하였다. 함남 일대에서는 《함남 반일 투쟁 동맹》을 조직하여 홍원, 함흥, 흥남, 신흥, 북청, 단천 등지의 로조, 농조 운동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였으며 그외 강원도와 평안남북도, 경기도 등의 중요 지대들에도 혁명적 조직망이 확장되였다.

당시 이 혁명 단체들에 집결된 조직적 지반은 매우 광범하였다. 명천 좌익 로조 및 농조의 조직 체계 하나만 들어도 그에는 5개 면 지역 위원회 산하에 47개 동 농민 위원회와 2개 면에 12개의 인민 위원회 및 그리고 어업, 탄광, 항만, 화학 등의 로조들이 망라되여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공산주의 조직체들과 민족 통일 전선체들이 확장됨에 따라 국내 조직들을 통일화하며 그에 대한 지도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의 모든 조직을 민족 해방 동맹에 포괄시키는 대책이 취해졌다.

그리하여 국내 혁명 운동은 항일 무장 투쟁과의 유기적 련계하에 공산주의적 지도 체계를 수립하고 로동 계급의 대렬을 수습하면서 목적 지향성을 띠고 힘차게 전개되여 갔다.

이상의 사실들 뿐만 아니라 일제 비밀 문건의 다음과 같은 기록들은 항일 무장 투쟁과 함께 보천보 전투의 승리가 우리 나라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또 로동자, 농민, 학생, 군인(일제에게 강제 징모된 조선인 군인) 등 각계 각층에 이르기까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다. 즉《…부산 초량 엽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부락 청소년들을 의식적으로 교양하며 조선 독립 운동에 바칠 것을 협의한 이래 그들은 수차에 걸쳐 부락 청소년 수십명을 집합시켜… 김 일성의 활동에 호응하여 일제히 무장 봉기를 일으켜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동지 획득에 노력하였다》(조선 총독부 경무국 고등 외사월보 1943년). 또한 평양에서는 《…조선 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철공소 로동자들을 동지로서 획득한 후 철공소를 설치하고 무기를 제작하여 김 일성 부대와 합류할 것을 기도》 (전 일제 평남도 경찰부 비문건 1944년)하였다고 기록되여 있다.

또한 일제의 비밀 출판물들에는 《진해 해병단 조선인 군인의 조선 독립 무장 봉기 사건의 교훈》 및 《진해 해병단 조선인 군인의 조선 독립 김 일성 부대 참가 기도》 등등의 제목하에 《…김 일성 부대에 참가하여 그 부하로서 조선 독립을 기도》 (전 일제 라남 헌병 부대 교육 자료 《첩모(諜謀)사상 사건 검거에서의 교훈》, 1944년)하였다고 기록되여 있으며 1944년 3월 관부(關釜) 련락선 《고안마루》 삼층 천정에 《김 일성 대장 만세》 라고 붉은 글자로 대서 특필한 구호가 첨부되였다(전 일제 경상남도 경찰부 비문건 1944년)는 것이 지적되였다.

보천보 전투 승리는 인민 혁명군과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일층 밀접히 하였으며 동시에 혁명군 대렬을 확대 강화시켰다. 조국에 진출한 인민 혁명군의 위용을 직접 보게 된 인민들 속에서는 《인민 혁명군으로 들어 가자》, 《인민 혁명군을 적극 원조하자》, 《국내의 우리들도 보다 완강한 투쟁으로 호응하자》는 등의 구호하에 참군 운동과 원호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수 많은 애국 청년들이 인민 혁명군 부대에 참가하였으며 인민들은 무기, 탄약, 포탄 자재, 등사판, 문화 오락 기구, 의류, 사진 재료 등을 혁명군에 조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조국 광복회 기관지 《3.1 월간》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국 서북부 각지의 열렬한 애국 용사들이 대를 만들어 매일 7—8명씩 압록, 두만 량 강을 건너 조선 인민 혁명군 김 사령 부대에 가입하였다.

그 후부터(보천보 전투 이후를 말함——필자주) 만 1개월 간에 증가한 항일 부대 전사는 90 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조선 국내의 지형과 통로 및 각지 정형을 잘 알기 때문에 무장대에서 국내 출입의 선두에 서기를 자원하였다》.

다른 여러 전투들과 함께 보천보 전투 승리는 파쑈적 침략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일제에게 그 배후에서 정치적 및 군사적 타격을 가하였으며 조선 인민이 살아 있으며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고무하고 집결한 이 점으로 보아 국제 혁명 운동에 대한 일정한 기여로 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천보 전투 승리는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였다. 이 빛나는 애국적 전통은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들을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에로 고무하여 주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의 반동적 본질

리 장 섭

현 시기의 세계 력사는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지, 맑스—레닌주의와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 부르죠아 사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거대한 승리로써 특징 지어진다.

맑스—레닌주의는 부르죠아 사상과의 부단한 비타협적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맑스—레닌주의의 적인 부르죠아 사상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맑스—레닌주의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이것은 이미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력사의 변증법이다. 《…맑스주의의 리론적 승리는 맑스주의의 적들로 하여금 맑스주의로써 자기 자신을 가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전집, 18권, 조선문 판, 744페지).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지난 시기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내에 발생하였던 모든 수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게 자기를 맑스주의자로써 가장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수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반동적이다.

현대 수정주의의 간교성과 반동성은 지난 4월에 발표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의 연설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의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반맑스주의적 립장을 음폐하며 그들의 반동적 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갖은 궤변과 기만적인 수법들을 모조리 동원하고 있다.

❊ ❊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주장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리론》들이며 다른 하나는 현 국제 관계에 대한 견해 문제이다.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문제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계급 투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당의 령도적 역할과 당의 조직적 원칙들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국제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는 특히 2대 진영에 대한 평가,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 및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쏘련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 대한 문제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과거 베른슈타인, 카우츠끼 등 제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이 사용하던 형식과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우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진화적 방법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급 투쟁을 부인하는 부르죠아 학설들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 어떤 자들은 소위 《인민적 자본주의》라는 용어로서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며 어떤 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계급이 소멸되였다고 떠든다.

현 시기 자본주의가 자연 생장적으로 사회주의에로 변질하고 있다는 견해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에 의하여 보다 더 교묘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본주의 국가는 그의 통제적 역할에 의하여 자본가들의 착취를 제한하고 점차 자본가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통하여 점차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자연 생장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진화한다고 주장한 베른슈타인이나, 《조직된 자본주의》 또는 《인민적 자본주의》의 구호를 들고 자본주의를 영구화하려고 시도하는 부르죠아 앞잡이들의 《리론》과 본질상 하등의 차이가 없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이 로동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다. 부르죠아 국가가 자진하여 자본가들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면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한다는 주장은 자본가들이 자진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버린다는 것과 본질상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지의 적대적 모순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낡은 지배 계급이 자기의 계급적 리익을 절대로 순순히 근로 인민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계급 투쟁의 무기로서의 국가의 본질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에서 부르죠아 정권의 타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의 계급적 기초를 부인하는 수정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유고슬라비야의 수정주의자들도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세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관료주의》라고 강조하면서 《관료주의》를 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키고 있으며 마치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발양되지 못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초계급적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민주주의》가 결코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틀림 없다. 이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난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을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임레 나지와 같은 혁명의 배신자들을 적극 옹호하여 준 것으로 보아도 그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이 적대 계급과 반혁명에 대한 진압을 《관료주의》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

웽그리야 인민을 배반한 임레 나지 도당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준 찌또는 지난 날 희랍 공산당이 국내 반동파의 가렬한 혁명 투쟁을 전개하였을 때에는 유고슬라비야와 희랍 변강을 봉쇄하고 희랍 공산당이 유고슬라비야 령토에 들어 오는 것을 엄금함으로써 희랍에서의 혁명의 실패를 촉진시켰다. 어째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반혁명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호의를 가지며 진정한 혁명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가?! 미국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원조》에 대한 《두터운 보답》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계급적 립장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로동 계급을 기만하며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부를 장악한 수정주의자들의 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혁명에 대한 철저한 진압이 없이는 인민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 당이,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구호 밑에 반혁명 분자들을 옹호하려고 한 반당, 반혁

명 분자들을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로써 규정하고 이를 철저하게 배격한 리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반혁명에 대한 철저한 독재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에 대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로동 계급의 선봉적 부대이며 조직적 부대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로동 계급의 령도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은 《관료주의》를 산생시키는 원인으로 된다고 주장하며 또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의한 당의 조직 원칙은 오직 《로씨야적인 것》이라고 비방한다. 그들은 당을 순전한 선전 기관 또는 정치적 구락부와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원칙은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의 본질을 반영하는 필연적이며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집권 당의 처지에서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처지에서나 로동 계급의 당 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부인한다면 실질적으로 당은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자기 강령 초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에서 당의 령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어떤 나라에서는 직업 동맹을 통해서도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서 당의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

이상 몇 가지 문제만을 들어 보아도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이 계급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립장에서 리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대 수정주의의 반동성은 국제 정세의 평가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더욱 잘 표현되고 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된 현 시기에 있어서 국제적 범위에서 적아를 옳게 구분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적에 대한 태도에서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견해와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견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보기로 하자.

사회주의의 가장 흉악한 적이며 국제 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특별한 친근성을 표시하고 있다. 찌또는 자기의 연설에서 미국의 원조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정책이 《될 수 있는대로 자주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의 정책 및 견해와 일치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의 친미 친서방 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의 큰 찬양을 받고 있다. 미국 신문들은 지금 찌또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서방측에 대한 태도는 《서방측에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유고슬라비야를 려행한 미국인은 유고슬라비야를 《작은 미국》이라고까지 하면서 찬양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야를 적극적으로 원조해 줄 것을 떠들고 있다.

적의 원조를 받으며 적으로부터 갖은 찬양을 받으며 적과의 의견 일치를 희망하는 데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진 면모는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적에 대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오늘 국제 긴장 상태가 조성된 원인이, 미제를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 국가들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라 량대 진영의

군사 쁠럭의 대립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조선이 남북으로 분리된 원인도 미제의 침략 정책에 기인된 것이 아닌 것 같이 사태를 외곡하고 있다. 이것이 반맑스주의적 견해라는 것은 론증할 여지도 없다.

조선 인민은 삼척동자라도 미제가 조선에 대한 침략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조선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부인하려는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태도는 3년 간의 가혹한 전쟁을 통하여 미제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미제는 아직도 우리 나라 남쪽 땅을 강점하고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남조선을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와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쏘련을 반대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 식민주의의 괴수인 미제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숭고한 투쟁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정당한 투쟁이 어찌하여 《조선을 남북으로 분리시키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주장은 다름아닌 바로 미제의 야수적인 침략 정책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미화하는 《리론》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 조성되고 있는 국제 긴장 상태의 《원인》을 찾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시종일관 실시하고 있는 평화 애호 정책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렬강들의 침략 정책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 량 정책의 대립을 마치도 국제 긴장 상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의 립장이 《힘의 립장에선》 정책의 조작자들의 립장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세계의 도처에 자기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대서양 동맹, 세아토 및 바그다드 조약과 같은 침략적 군사 쁠럭들을 조작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음폐하려는 것처럼 더 반동적인 태도는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공산주의의 위협》, 자국 《방위》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타국 령토내에 원자 무기를 반입하며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미국의 침략 정책을 묵과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타국을 침략한다는 허위적 선전을 옹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음폐하며 미 제국주의에 아부하는 현대 수정주의가 제국주의의 리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명백히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립장에 서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체를 음폐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야의 수정주의자들은 1957년 11월에 모쓰크바에서 발표된 《평화 선언》에는 찬성 수표를 하였다. 《평화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평화와 제 인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가? 전쟁에 관심을 가지며 전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오늘날의 군비 경쟁에서 전례 없이 치부한 자본주의 독점체들이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도 전쟁에 리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나 사회층이 없다. 이 나라들에서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로동자, 농민들이다》.

이와 같이 《평화 선언》에는 현 시기 국제 긴장 상태 조성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하여 명백히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도 찬성 서명한 것을 지금에 와서 뒤집어 놓고 있으며 괴상망칙한 《리론》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유고슬라비야의 수정주의자들이 《평화

선언》을 진정으로 지지하였다면 오늘 또 다시 자기의 강령에서 제국주의를 옹호하여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자기들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을 견지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의 허위적인 교활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공산주의자가 적아간의 계급 투쟁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것이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국주의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발광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이러한 《중립 로선》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익을 줄 뿐이다.

제국주의에 아부하는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 미국의 소위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서 민족 경제가 파산되고 실업자가 늘어 가며 경제가 군사화되여 근로 대중의 빈궁이 격화되여 가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 조선 인민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강점하고 있는 우리의 남반부가 어떻게 되여 가고 있는가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민족 산업이 여지없이 파산되고 실업자, 반 실업자가 380만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수십만의 걸식 아동들이 사선에서 헤매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모두다 미제의 《원조》가 빚어낸 것이다. 자국내의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 인민들을 착취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들을 략탈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진정으로 원조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리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생활의 근본 원리를 전도시키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원조》는 결국 그들의 활동의 최고 원칙인 착취를 목적한 《원조》이다. 이러한 《원조》에 어떻게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

최근 미국 《워싱톤 포스트》지의 토요일 석간은 미국이 유고슬라비야에 15억 딸라나 《원조》의 명목으로 투자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옳았으며 그것은 미국을 위하여 기대하였던 것보다도 더 큰 리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미국 신문은 미국의 《원조》의 대'가로서, 유고슬라비야에서 사실상 자본주의에로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북대서양 동맹에 가담한 희랍 및 토이기와 발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방 제국주의 쁠럭과의 련계를 형성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로 보아 미국의 《원조》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원조》에 보답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평화적 공존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침략 정책을 부단히 폭로하며 그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립장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정책과 부르죠아 사상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이 《평화적 공존》의 구호 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비호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적 공존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로동 계급과 사회주의의 립장을 떠난 《평화적 공존》이란 사실은 적에 대한 투항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는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은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내부적 모순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두 제도간의 평화적 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평화적 공존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정책 및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의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리탈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 자체가 필요치 않으며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일국이 타국을 《착취》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것은 적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비방하는 언행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착취》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기초한 호상 관계를 맺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단결의 원리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리로써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다만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호상 주권을 존중히 여기며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상으로서 혈연적으로 결합된 동지들 간의 생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단결의 원칙이다.

조선 인민이 미제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힘에 겨운 투쟁을 할 때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은 물심 량면으로 되는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 특히 조선 인민이 매우 곤난한 환경에 처하였을 때 중국 인민은 항미 원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조직된 지원군을 조선 전선에 파견하여 피로써 조선 인민을 원조하여 주었다. 또한 전후 시기에도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기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파괴된 경제의 복구 사업에 궐기한 우리 인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주었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은 자기의 간고한 투쟁과 시련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심각히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동지적 단결과 호상 원조는 사회주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사활적 의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온갖 수정주의적 견해는 틀림 없이 로동 계급의 립장과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확언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것을 반대할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미 주권을 장악한 나라들의 로동 계급의 단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마치 로동 계급의 해방은 좋지만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간교한 수법이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부인하는 자는 곧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일반을 부인하는 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일국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자기 앞잡이들을 추동하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데 큰 힘을 돌렸다면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환된 조건하에서는 《민족 공산주의》의 구호 밑에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며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국주의의 공격 앞에서 무장 해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오늘 국제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공고한 통일을 반대하는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립장은 제국주의자들이 선전하는 《민족 공산주의》의 립장과 다름이 없다.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인 쏘련을 비방하며 중상하는 것은 현대 수정주의의 특징이다.

쏘련은 세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장 튼튼한 성새로 되고 있다. 쏘련이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 물심 량면의 막대한 원조를 주고 있으며 자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 옹호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을 가장 증오하며 그를 비방 중상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태도는 제국주의자들의 립장과 동일하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이 쏘련을 중상하는 것은 쏘련이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이며 모든 진보적인 것의 고무자이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교활성과 반동성은 그들이 공산주의자의 가면을 쓰고 가장 악독하고 비렬한 방법으로 쏘련을 공격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쏘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제일 먼저 수행하였으며 지금 점차적으로 공산주의에로 이행하고 있다. 쏘련은 맑스—레닌주의를 가장 높은 단계에서 현실에 구현시킨 나라이다. 쏘련의 경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실천에서 검열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쏘련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다. 쏘련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는 원조를 주고 있으며 제국주의 진영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결정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쏘련은 사회주의 진영 형성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고한 통일과 단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놀고 있다.

쏘련을 비방하며 그의 거대한 선봉적 역할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맑스—레닌주의를 부인하는 자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부인하는 자이며 사회주의 진영을 부인하는 자이다.

쏘련을 무시하는 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고귀한 력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혁명적 전통을 모욕하는 것이다.

쏘련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력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모쓰크바 회의에서 한 자기 발언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응당 쏘련을 위수로 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새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제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 각국 당들과 인민들의 지나 온 력사와 생활에서 확증된 사실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쏘련을 옹호하며 지지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옹호하며 국제주의 기치를 수호하는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하고 영예로운 임무이다.

❋ ❋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 리탈하여 수정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지는 오래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방과 서방에서 발생된 많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결정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고 있던 시기(이 시기는 또한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로의 발전에서 중요한 시기였다)인 1947—1948년에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로의 발전과 식민지 체계의 급속한 붕괴에 당황한 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에 대한 발악적인 공세를 가하였으며 새 전쟁 도발을 위한 흉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결정적으로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강화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하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단행할 대신에 오히려 국내 부르죠아 세력과 타협하면서 민족 통일 전선내에서 로동 계급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거세하였으며 우경 기회주의의 길을 걷게 되였고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나가면서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및 경제적 압력 앞에 굴종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가장 중대한 력사적 시기에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배반하고 수정주의의 길을 걷게 되였다.

1957년 11월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에서 채택된 모쓰크바 선언은 《부르죠아적 영향의 존재는 수정주의의 내'적 근원이며 제국주의의 압박에 대한 투항은 수정주의의 외'적 근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유고슬라비야에서 수정주의가 발생한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48년 수개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보도국 회의는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우경 기회주의적 편향과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원칙적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미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거하면서 형제 당들에 대한 모욕과 중상으로써 이에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튼튼한 단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아끼지 않는 쏘련 공산당은 1955년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이니샤티브를 취하였으며 그 이후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각국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여 왔다. 만약에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에게 공산주의자로서의 일편의 량심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과의 동지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각국 공산당들의 이와 같은 진지한 태도와 성의 있는 노력에 보답하였어야 할 것이며 자기의 과오에 대한 심각한 자기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였다. 이것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일치한 념원이였다.

그러나 찌또를 비롯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가장 교활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써 쏘련 공산당을 비롯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진지한 노력을 무시하였다. 찌또를 비롯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의 있는 노력을 충심으로 접수할 대신에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그들의 수정주의 로선의 승리로써 대중을 기만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내에 그들의 수정주의 리론을 전파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교활한 책동은 국제 반동들의 《반쏘 반공》 깜빠니야의 개시와 함께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였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제국주의 반동들의 《반쏘 반공》의 공세에 발맞추면서 쏘련의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 중상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을 《민족 혁명》이라고 옹호하며 웽그리야 인민들에 대한 쏘련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원조를 《내정 간섭》이라고 비방 중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가소롭게도 《찌또주의》가 맑스—레닌주의 창조적 발전의 유일한 표본이기 때문에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다 그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고 떠들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과 그의 국제적 의의, 또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과 성과들을 무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과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인 동지적 충고를 주었으며 하루 속히 그들이 그러한 반맑스주의적 립장에서 떨어져 나와 확고한 립장에 설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또 다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진지한 충고와 노력을 저바리고 철두철미한 수정주의적 강령을 들고 나왔으며 거기에서 현대 수정주의의 리론을 집대성하였으며 체계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새 강령 초안에 대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동지적 비판을 접수할 대신에 도리여 그것을 유고슬라비야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떠들면서 특히 자기들에게 사심 없는 원조를 준 쏘련 인민과 쏘련 공산당에 대하여,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대하여 비방 중상하며 하등의 근거도 없는 허위와 독설로써 대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수이며 국제 반동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찬양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소위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지도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것으로 보아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에게 공산주의자로서의 일편의 량심도 없었으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친선과 단결을 념원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전 세계 로동 계급들과 근로 인민들 앞에 폭로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시종일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여 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오늘 전 세계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를 분쇄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동원되고 있다. 왜 우리는 현대 수정주의 특히는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를 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가 현대 수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10월 혁명전 맑스주의가 로동 운동에서 다만 사상적으로만 승리하였을 때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제2 국제당 내에서 발생된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등의 수정주의였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일국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에서 맑스주의가 승리하는 력사적 단계에서는 쏘련 내에서 레닌주의를 반대한 뜨로쯔끼, 부하린파, 멘쉐비크 등에 의하여 맑스주의에 대한 수정주의가 대표되였다.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발전된 조건하에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수정주의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발생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대표된다. 지금 세계 제국주의 반동들은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독립 국가의 주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와 같이 국제 반동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가 권력에 의한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탈을 쓰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이 다른 어떤 수정주의 류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반동성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의 간판을 들며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간판을 들고 맑스—레닌주의를 근본적으로 외곡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의 교활한 수법은 끝까지 폭로하며 비판하여야 한다.

유고슬라비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맑스주의와 반맑스주의와의 계선을 똑똑히 가르며 사회주의를 지지 옹호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의 진 면모를 똑똑히 보여 줌으로써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을 가일층 공고화하기 위해서이다.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는 로동 계급을 탄압하며 억압하는 외부적인 적대 계급과의 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로동 운동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온갖 수정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탈을 쓴 각종 소부르죠아 사회주의자들도 맑스주의를 공격하였고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등도 맑스주의를 부인하려고 하였고 부하린, 뜨로쯔끼주의자들도 맑스주의를 수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은 항상 맑스주의에 의하여 그의 반동성이 여지 없이 폭로되였으며 파산되였다. 이와 반면에 맑스—레닌주의는 온갖 수정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더욱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은 오직 위대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과학적 공산주의는 각종 사이비 사회주의 사상과의 투쟁을 통하여 로동 운동에서 지배적인 사상으로 발전되였으며 위대한 레닌은 제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 리론을 극복하고 맑스주의를 제국주의 시기에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위대한 10월 혁명과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발전이였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며 레닌주의를 반대하고 나섰던 멘쉐비크들은 분쇄되였으며 쏘련을 말살하려고 달려 들었던 세계 파씨스트들은 멸망되고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세계 령토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을 가지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 진영보다 비할바 없이 강대하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진보적 인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세계 력사 발전의 기본 내용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발전의 이와 같은 위대한 전환기에 발생된 현대 수정주의의 운명은 자명하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든 전 세계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일치한 배격을 받고 있다. 오늘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고화되였다. 현재 사회주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화주의의 승리는 합법칙적이며 제국주의와 그의 앞잡이인 온갖 수정주의의 패배는 필연적이다.

* *

우리 당은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명제들과 형제 당들의 경험을 조선 현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무시하거나 선진 쏘련의 경험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우리 당은 항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였으며 쏘련을 옹호하며 그와의 불패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여 왔다.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하여 끝까지 충실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정책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초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수정주의의 력사적 근원도 없으며 수정주의를 체계적으로 주장한 자도 없다. 그러나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으며 아직도 부르죠아적 영향이 적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도 현대 수정주의의 침습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반당 종파 분자들이 우리 당과 국가를 반대하기 위하여 국제 수정주의자들의 구호를 《밀수입》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낡은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어떤 복잡한 정세에 봉착하여도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있으며 그의 혁명적 기세는 류례 없이 앙양되고 있다.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 인민 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고조된 혁명 투쟁은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그의 주구들에 대한 거대한 타격으로 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영향을 끌어 들이는 현대 수정주의 사상에 대한 결정적 타격으로 된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에서의 결정적 단계

박 영 근

나라의 경제가 자립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기간적 생산 수단과 중요 소비 자료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생산의 자체 토대를 가져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생산물의 확대 재생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노는 것은 생산 수단, 그 중에서도 로동 도구의 재생산이다.

로동 도구의 우선적 장성 없이는 중공업 그 자체가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하는 경공업과 농업의 가일층의 발전도 불가능하다.

오직 로동 도구를 부단히 개선하고 증대시킴으로써만 기술적 진보가 달성되며 전체적으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공업, 그 중에서도 기술 발전의 기초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듯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 중공업의 창설이다.

그러나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것 하나만으로써는 확대 재생산의 전 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테면 중공업 부문들은 주민의 생활 소비품을 직접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비 자료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문들의 발전은 중공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도 된다. 즉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요구되는 자금의 많은 부분을 얻어 낼 수 없으며 또한 공업의 발전은 농업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과 원료를 공급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경공업 제품들——고무 제품, 피혁 제품, 목재 제품, 피대 등은 자동차, 기계 제작 공업 부문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산 수단으로도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중요 소비 자료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확립함에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결국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려면 우선 자립적 중공업을 창설 발전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후 시기 우리 당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할 것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서의 중요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 문제를 공업화의 기초 축성 행정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시켜 해결하여 왔다.

당은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이를 단순히 원상대로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주는 막대한 물질—기술적 원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의 해결과 직접 련

결시켜 진행하여 왔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 문제는 우리 나라 공업의 세기적인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지 않고서는 또 자립적 중공업의 건설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행정은 곧 우리 나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게 하는 행정으로도 되였다.

당과 정부는 전후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복구 발전시켜 그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조절 배합시켜 왔다.

이리하여 전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은 우리 나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이미 복구 계단에서 현저히 구축하고 최단 기간내에 이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히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과 그의 공고화 문제는 국내 경제의 자립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되 봉쇄된 《자급 자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국제적 분업의 유리성을 백방으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형제 국가들과의 경제 기술적 협조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용이하게 하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선 막대한 자금과 로력이 드는 중공업의 모든 부문을 창설하여야 할 무거운 부담을 면할 수 있게 되였으며, 형제 국가들과의 국제 분업에 기초하여 자연적 및 경제적 조건으로 보아 그리고 생산 경험과 기술 문제 등으로 보아 보다 유리한 부문들의 발전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한 생산물의 생산은 이를 새로 조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적이며 다면적인 공업을 건설한다 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공업의 모든 부문들을 빠짐 없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 기술—경제적 제 조건으로 보아 보다 적합하고 유리한 부문들을 우선 발전시키고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리로운 수요품에 대하여서는 국제 민주 시장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이 아직 공업화의 기초 축성 단계에 처하여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민주 시장에의 의거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즉 첫째 방향은 현 계단에서는 수요가 적거나 또는 생산하기 어려워서 아직 그 생산을 조직하는 것이 리롭지 못한 수요품에 대하여 이를 잠정적으로 민주 시장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원칙이다. 이는 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 과업과 도달된 생산력 수준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바 점차 자체 생산에 의하여 대체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둘째 방향은 해당 부문의 발전이 자연—경제적 제 조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디까지나 민주 사장에 의거하는 것이 유리한 그와 같은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항구적으로(상대적 의미에서) 민주 시장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원칙이다. 례하면 우리 나라에 그 원료 원천이 없는 생고무, 원유 제품 등과 앞으로도 수요가 극히 적을 것이 예견되는 특수 설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민주 시장에 의거하여 해결할 것이며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국제적 분업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형제적 협조는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을 촉진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1)

근 반 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우리 나라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인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혹심한 후과를 남겨 놓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원료 략탈 및 대륙 침략 준비에 필요한 공업 부문들만을 발전시켰다. 결과에 과거 우리 나라에서 완제품 가공 공업은 거의나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원료 반제품적 및 군수 생산적 중공업 부문들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였었다. 그리하여 중공업내 각 부문들 간, 중공업과 경공업간, 공업과 농업간에는 생산적 련계가 결여되여 있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을 극력 저해하였다. 1944년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이 차지한 비중은 겨우 1.6%에 불과하였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수리 직장적인 것이였다. 조선에서 요구되는 기계 설비들은 일본 기계 제작 공업에 의하여 공급되였다. 흑색 금속 공업은 일본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반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계 제작 공업과 련결되여 있었던 까닭에 금속 공업 내에서 선철, 강철, 강재의 생산 환절은 거의 련결되여 있지 않았다. 1944년 선철 생산량을 100으로 할 때 강철 생산량은 30, 강재 생산량은 15에 불과하였다.

해방전 중공업 부문에서는 선철 생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 금속 공업과, 채취 공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식량 략탈을 목적한 화학 공업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상품 판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선에서 경공업도 발전시키지 않았다. 인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방직 공업 및 식료품 가공 공업은 극히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었으며 신발, 의류, 양말, 문방구, 의약품, 판유리 등의 생산도 보잘 것 없었다. 생활 소비품의 압도적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였다. 그리고 보잘 것 없는 방직 공업, 식료품 가공 공업 등에 요구되는 설비마저 조선내 중공업은 이를 거의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일제하 우리 나라 공업은 원료, 반제품 생산에 치중한 중공업이 기형적으로 발전한 반면에 경공업은 아주 발전하지 못한 극단한 편파성과 락후성을 띠고 있었다. 1944년 공업 총생산액 중 중공업은 70.4%, 경공업은 29.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북반부에서) 량자 간의 이와 같은 비례는 경공업의 극단한 락후성에 기인한 것이였으며 중공업의 식민지적 기형성을 내포한 것이였다.

조선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은 또한 생산 배치의 극단한 불합리성 및 락후한 기술적 장비에서도 표현되였다. 일제하 조선 공업에서 생산력의 지리적 배치의 특징은 자본주의적 공업 배치의 불균형성과 식민지 략탈 정책에서 출발한 일본 본토 경제에의 예속성이 결합된 것이였다. 일제 통치 시기에 조선 공업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인 기술자에 의하여 운영되였으며 얼마 안 되는 조선인 기술자들도 그들의 대부분은 기술자라기 보다는 기능공에 가까왔다.

반(半)봉건적 착취사슬에 얽매여 있던 농업에서는 현대적 기계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시적인 생산 도구가 그대로 사용되였는바 사용된 락후한 생산 도구들인 낫, 삽 등과 같은 것마저 그의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였다. 극히 락후한 처지에 놓여 있던 조선 농업은 일본을 위한 식량 공급 원천이였다.

1940년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 중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업 생산이 52.3%, 농업 생산은 47.7%로 그 비중이 비등하였으나 그러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 일제의 원료적 부속물이였으며 락후한 농업 국가를 면치 못하였다.

해방후 우리 당 앞에는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중요 과업이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이미 민족 경제를 단순히 부흥 발전시키는 것이 아

니라 국영 부문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방향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준비를 진행할 것을 자기의 중심 임무로 규정하였다.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이 기간에 이미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기타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과 방직 공업 등이 급속히 발전되였으며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적지 않게 퇴치되기 시작하였다.

당은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후 복구 건설과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을 명확히 전망하면서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그것은 1953년에 이미 전쟁전 생산 수준을 24.8%나 릉가하였다.

그러나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합에 있어서의 현저한 성과는 전후 복구 건설 행정에서 달성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조선 인민은 전쟁에 의하여 인민 경제 각 분야가 혹심하게 파괴된 폐허 우에서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 타개하고 극히 짧은 력사적 기간에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조선 인민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하게 관철 집행하고 3개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3개년 계획의 수행은 파괴된 생산력을 단순히 복구한 것이 아니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고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현저히 퇴치되였으며 그의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되였다》(조선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서).

이 기간에 대규모적인 전문화된 기계 제작 공장들이 건설되여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가 창설됨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기계 생산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조성되였다. 이 밖에 금속, 화학, 건재 공업 부문들과 전력 및 석탄 공업이 급속히 복구 발전된 결과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신설 확장할 수 있는 우리의 중공업 기지가 창설되였다.

또한 3개년 계획 기간에 직물 생산이 근 10배로 장성한 것을 비롯하여 경공업 각 부문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우리 나라에는 경공업 기지도 창설되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가장 락후하였던 기계 제작 공업과 방직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완제 가공 공업이 발전한 결과 공업의 부문별 구조에서의 기형성은 현저히 퇴치되였다. 또한 복구 행정에서 우리 나라 공업 부문의 기술 발전에서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식민지적인 기술적 락후성이 현저히 퇴치되였으며 내륙 지방에 새로운 공업 지대가 건설되여 생산력 배치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실로 3개년 계획 기간은 단순히 복구 기간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체의 힘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수 있는 공고한 물질—생산적 기초를 축성한 시기로 되였다.

(2)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함으로써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장차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더욱 대규모적 기본 건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물질적 및 기술적 조건을 준비하여야 한다》(조선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서).

이렇게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은 3개년 계획 기간에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 결정적 단계로 된다.

그러면 이 기간에 이루어 지게 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에서의 확고한 성과는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공업화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함으로써 기형적인 중공업으로부터 자립적인 중공업에로의 전환을 완수하며 경공업에서 식민지적 락후성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부족되는 원료를 자체로 해결하게 되는 데서 나타날 것이며,

둘째로 공업에서의 식민지적인 기술적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게 되는 데서 표현될 것이다.

세째로 그것은 또한 농촌 경리 분야에서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의 공고화에 기초하여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는 데서도 표현되게 된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서에 지적되여 있는 중공업 각 부문들의 기본 임무들에서 명백히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각종 생산 수단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가 기본적으로 자체 중공업에 의하여 충족되게 된다.

이것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합에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 기간에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강재에 대한 수요를 70% 정도로 밖에 충족시킬 수 없었던 흑색 금속 공업은 이 기간에 각이한 품종과 규격의 강재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게 되며, 기계 제작 공업은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중 소 기계,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전전 수준을 미처 회복하지 못하였던 전력, 석탄 부문들도 이미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 말에는 전쟁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다. 앞으로도 전력 공업의 발전은 인민 경제의 타 부문에 비하여 계속 선행할 것이며 콕쓰탄을 제외한 석탄 수요는 국내 생산에 의하여 충족되게 된다.

1956년에 전전 수준의 49% 밖에 회복하지 못하였던 화학 공업은 그 후 불과 1년 이내에 전전 수준을 릉가하였고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화학 비료와 인조 섬유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게 된다. 건재 공업은 건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조립식 건설을 더욱 광범히 전개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게 된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부문은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중공업 부문 내부 구조에서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불균형성도 완전히 퇴치되게 된다. 이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에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금속 공업내에서 생산 순환의 균형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즉 5개년 계획 말에 이르러 강철 생산량이 아직 선철 생산량을 릉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후자에 대한 전자는 근 100%라는 근사한 균형치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금속 공업은 원료 반제품 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공업으로부터 국내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과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 확장, 신설 및 광범한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고한 토대로 될 것이다.

지난 시기 아직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그 주력을 부속품 생산 공급에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기계 제작 공업은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부속품을 계속 생산 공급하는 한편 예비품과 공구가 완비된 설비를 공급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이 기간에 건설될 공장, 광산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도 해결하게 된다. 실례로 벌써 최근에 건설된 황해 제철소 1호 용광로와 해탄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이 공급한 각종 기계, 설비, 공구, 부속품들에 의하여 건설되였다. 이 모든 것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이 식민지적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자기의 자립적 토대를 가지게 되며 확대 재생산 실현의 기본 조건을 확고하게 보장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준다. 즉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단순히 량

적으로만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적 내용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켜 수요가 극히 적거나 특수한 설비를 제외하고는 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 자료 생산 부문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기술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지난 기간 석탄 생산의 락후성으로 인하여 석탄 공업과 이를 소비하는 부문간에 조성되였던 불균형도 시정되게 된다.

이리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부문 내부 구조에서의 식민지적 기형성은 완전히 퇴치되고 그들 간의 련계가 일층 긴밀해 지게 된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원료 채취로부터 완제품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행정이 균형적 체계를 갖춘 자립적 중공업이 건설됨에 따라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는 우리가 공업 각 부문간의 호상 관계 및 균형 설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 기계, 설비들에 적지 않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중공업을 건설함에 있어서 중공업 일반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현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우리 나라 중공업은 원료 반제품들을 완제 가공품으로 가공하고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자립적 중공업에로의 발전 방향을 견지하되 당면한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공업, 농업, 주택 건설,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원료, 자재, 기계, 설비, 화학 비료, 동력 등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데 력량을 중점적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자립적 중공업 건설 행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며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지향하는 우리 당의 심심한 배려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경공업은 국내 원료 원천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중요한 한 측면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방직 공업은 1961년에 가서 인구 1인당 20 메터 이상에 해당하는 직물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 나라 방직 공업은 지난 시기 그가 가지고 있던 결정적 약점 즉 원료 원천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국내 섬유 원천에 립각하여 발전하게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청진 방적 공장을 복구 확장하는 등으로 스프 및 인견사 생산을 2만 5천 내지 3만 톤에 달하게 하며 화학 섬유와 기타 아마 섬유 생산을 증대하여 자체로 원료의 대부분을 해결하게 된다.

특히 최근 진행된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전후 농촌 경리와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조성된 새로운 현실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식료품 가공 공업에서와 일용품 생산에서도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대대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다.

이와 같이 5개년 계획 기간에 경공업 부문은 급속히 장성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 구조에서도 질적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으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도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즉 지난 3개년 계획 말에 이미 전후 곤난하였던 식량 사정이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였다면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알곡 총수확고가 376만 톤 이상에 도달하여 우리 나라에서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될 것이다. 축산업은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면화를 비롯한 섬유 원료와 유지 원료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경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 공급을 현저히 개선하게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가 자립적 공업을 가지게 됨은 수출입 구조의 원칙적인 변화에서도 표현되게 된다.

지난 기간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다면 제 1차 5개년 계획 말에 이르러서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며 수출입의 질적 구성이 개선되게 된다. 즉 수출품 구성에서 종전에는 광물, 원료, 반제품 등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면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완제 가공품이 수출에서 더욱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이미 1957년에 벌써 종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쎄멘트를 비롯하여 산형강(山形鋼) 등의 중공업 제품과 판유리, 과실 통조림, 옥수수 전분 등 20 여 종에 달하는 가공 제품 및 농산물을 새로 수출하였다. 수입품 구성에서 전체 수입액의 약 20%를 차지하던 섬유 원료 및 섬유 제품 기타 일련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국내산으로 충족시키게 되며 수입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에 없거나 또는 부족되는 원료, 자재 설비에만 국한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에서의 식민지적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확립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인민 경제의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함이 없이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할 수도 없으며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도 없다》(김 일성,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연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은 년평균 21.5%라는 높은 템포로 장성하게 되는바 부단한 기술적 개조를 진행함이 없이는 공업 부문에서의 이러한 높은 생산 장성 템포를 보장할 수 없으며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늘 농촌 경리 기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가일층 급속히 발전시키는 문제도 결정적으로 기술적 진보에 의거하고 있다.

공업 및 농업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섬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제는 낡은 기술에 토대하여서는 우리 인민 경제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게 되였으며 기술적 개건의 범위가 인민 경제의 보다 광범한 분야를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기술적 개건에서 제기되는 이 방대한 과업을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이 직접 담당하여 수행하게 된다.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은 현대적 기계, 설비들의 생산을 증대하여 공업에서 전면적 기계화의 수준을 일층 제고시키면서 기술 장비의 구성도 점차 개선하도록 보장하게 된다.

기술적 개건과 관련하여 현존 설비들을 광범히 개조하여 현대화하며 선진 기술 공정의 도입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바 용광로 조업에서의 철 꼭쓰의 도입, 자용성 소결광의 적용, 기계 제작 공업에서 주형 쾌속 건조법의 도입, 형 단조의 비중 제고, 류산 생산에서 비등식 배소로의 설치, 소면기에서 금속 침포의 도입, 기름 생산에서 침출식 제유 공정에로의 전환 등은 이 분야들에서의 설비의 생산 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더욱 광범히 기계화하여 광산, 탄광, 건설, 운수 및 기타 인민 경제 부문들에서 소기계화로부터 점차 대규모 기계화에로의 전환이 수행되게 되는바, 탄광, 광산에서는 첸콤베야, 스크레빠에 의한 막장 운반 작업과 로타에 의한 굴진, 막장에 있어서의 적재 작업 및 전차에 의한 갱내 운반 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50% 내지 60%에 달하게 되며 건설에서 적재, 적하 작업, 토공 작업의 기계화 비중은 50% 이상, 몰탈 혼합 작업, 콩크리트 작업의 기계화 비중은 70% 내지 80%에 달하게 된다.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됨에 따라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며 기술적 개조가 점차적으로 광범히 추진될 것이다.

이리하여 기본적으로 복구 계단에 속하였던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기술적 개건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거하여 진행되였다면 개건기에 속하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기술적 개건도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에 기초하여 보다 광범한 령역에서 진행되게 되며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기술적 장비에서의 식민지적 락후성이 완전히 퇴치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개건에서의 질적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새 기술을 습득 구사할 수 있는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이 또한 대규모적으로 전개된다.

해방 이후 특히는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이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서 결정적인 대책을 실시한 결과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자 수는 1953년에 비하면 약 4배로, 1946년 초에 비하면 실로 5—6배로 증대되였다.

그러나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오늘 기술 인재에 관한 문제는 한층 더 중요성을 띠게 되였다.

당은 현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기술자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의 보장 정도를 고려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기계, 광산, 탄광, 건설, 수산 및 운수 부문들과 농업 부문의 기술자 양성 사업을 강화하여 이 기간에 기술자 및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상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최근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3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에게 있어서 법적 의무로 된다. 우리는 이를 능히 초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 나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확고히 구축될 것이며 우리는 《자체의 중공업과 경공업을 구비한 자주적인 공업 토대를 가지게 될 것이며 재해를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선진적인 농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김 일성,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연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에로의 전환을 실현하게 된다.

이 기간에 제 I부류와 제 II부류 생산의 호상 관계에서는 생산 수단 생산이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더욱 우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 중 공업 생산의 비중은 농업 생산의 비중을 현저히 초과하게 될 것이다.

공업의 부문별 구조상 자립성이 강화되는 조건하에서의 이러한 비중 관계는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제고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며 우리 나라가 자립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된다는 뚜렷한 표시로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함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는 도상에서 당면 제기되고 있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빛나는 성과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더욱더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의 앙양

최 철 수

미제의 범죄적인 전쟁 정책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은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남조선에서도 인민들의 맹렬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는 최근 시기에 더욱 앙양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괴뢰 정부를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있다.

미국 신문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까지도 리 승만 괴뢰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심각한 불안을 표시하였다. 《현재 우리는 남조선 정부가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정부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유엔군이 철거한다면 얼마 안 가서 남조선은 전복되여 버릴 것이며 공산주의가 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위기는 금번의 《민의원》 선거에서 잘 표현되였다. 리 승만 도당은 세계에서 류례 없는 테로와 탄압, 사기와 협잡으로써 제 4기 《민의원》 선거를 조작하였으나 결국 《패배 락선의 선풍》을 만났다. 경찰과 테로단의 가혹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기권 및 무효표는 전례 없는 251만 여 표에 달하였으며 이를 합한다면 리 승만 도배에 대한 반대표는 등록된 유권자의 무려 77%에 해당된다.

인민들은 총검의 탄압을 무릅쓰고 테로와 협잡으로 이루어진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고 시위와 폭동들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 2일의 남조선 통신에 의하면 경상남도 울산군에서는 350 여 명의 유권자들이 리 승만 도당에게 투표를 강요하며 사기 협잡을 일삼고 있는 경찰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놈들을 짓밟았으며 경찰 건물을 파괴하였다. 경상북도 월성군 안강면에서는 4천 여 명 군중들이 협잡 《선거》를 반대하여 《자유당》 졸개 및 무장 경찰들과 충돌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선거》 기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선거》 후에도 계속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5월 8일과 9일 대구에서는 리 승만 도당의 횡포한 《선거》 폭압과 협잡을 비난 공격하고 반동적 《선거》의 무효를 선포하는 군중들의 일대 시위가 진행되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리 승만 도당은 더욱 고립화되였으며 멸망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 불란서 에이 에프 피 통신까지도 《이번 선거의 특징은 주로 도시로부터…지방에 이르기까지 리 승만의 자유당에 대한 반대가 확대되였다는 데 있으며…불안과 가일층 심해지는 생활의 곤경때문에 이 불만이 괄목할 만하게 발전된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것을 여실히 말하여 준다.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과 반미 반리승만 기세의 비등은 오늘 그들이 처하여 있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생활적 처지와 국내외 정세의 전변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 인민의 모든 재난과 불행의 근원으로 되고 있으며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집단의 전대미문의 야수적 파쑈 테로 통치는 남조선 땅을 무권리와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남조선 인민들 자신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을 극도

로 증오하고 있으며 그들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오늘 정세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전환기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쏘련의 인공 위성을 비롯한 거대한 과학적 및 기타 성과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북반부에서 달성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 성과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남북간에 조성된 판이한 두 현실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시위하는 반면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악독한 통치가 얼마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가 하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때문에 이를 똑똑히 인식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의 비등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 *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리승만 투쟁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철저한 것은 로동자들의 진출이다.

남조선 출판물들에 발표된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정전 이후 금년 3월까지 로동자들의 각종 투쟁은 317건이나 된다. 이 투쟁에는 제조 공업, 채굴 공업, 전력, 운수 및 미군 부대 근무 로동자 등 각종 부문 로동자들이 망라되였으며 그의 투쟁 전수와 범위도 점차 장성 확대되고 있는바 1954년의 투쟁 건수를 100으로 한다면 1955년에는 125로, 1956년에는 212로, 1957년에는 다시 218로 계속적인 장성을 보이고 있다. 금년에 들어 와서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14건의 투쟁이 전개되였는데 여기에는 5만 명이 넘는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과중한 군사비 지출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괴뢰 정부의 재정 위기를 미봉하는 한편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의 체결 발효로 공공연히 침투하기 시작한 미국 독점 자본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족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의 봉쇄, 근로자들의 임금의 억제 내지 불지불, 로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로동 강도의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악명 높은 《초 긴축 정책》과 《경영 합리화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의 부분적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금년 년초 현재로 남조선 각 기업체들의 미지불 임금은 무려 60 여억 환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로동자들은 예속 자본가들 뿐만 아니라 직접 괴뢰 정부와 미제 침략자들을 상대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금년에 걸쳐 1,204명의 목포 부두 로동자들, 8천 명의 《대한 석탄 공사》 산하 6개 탄광 로동자들, 6천 여 명의 부산 부두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경남 밀양의 《한국 모직 공장》 로동자들, 서울 《대한 후직 회사》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금년 2월 18일 목포 부두 로동자들은 36명의 《로조 분회장》들과 100명의 로동자들로 구성된 자기들의 대표단을 《조선 운수 회사 목포 지점》에 파견하여 5개월 간의 체불 임금 1천 7백만 환의 즉시 지불을 강경히 요구하였으며 《한국 모직 공장》 로동자 603명은 3개월 간이나 밀린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1월과 2월에 두 차례의 총파업을 단행하는 동시에 기업주의 파렴치한 략탈 행위를 반대 배격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경성 전기 주식 회사》의 3천 명 로동자들은 금년 2월 1일 회사측이 임금을 삭감한 데 격분하여 총파업을 선언하였으며 그후 태업으로 들어가 서울시 내의 전차 운행을 마비시켰다.

남조선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의 즉시 지불 및 임금 인상 요구를, 8시간 로동제의 실시, 해고 반대, 로동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투쟁과 결부시키고 있다.

대구 지구 리용사 로조원들은 8시간 로동제의 실시와 단체 계약의 리행 등 요구를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제기하였으며 부산 부두 로동자들은 로임의 2배 인상 요구를 8시간 로동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과 결부시켰다.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완강성과 호상 련대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토건 공사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 간이나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체불 임금의 지불과 임금의 인상, 8시간 로동제의 실시 등을 요구하여 부산 부두 로동자들과 《대한 석탄 공사》 산하 탄광 로동자들은 년래에 걸쳐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괴뢰 정부의 소위 공무원법에서 투쟁을 금지 당하고 있는 철도 로동자들이 3만 명이나 리 승만 도배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1천 2백 명의 철도 로동자들을 일시에 해고 축출한 데 반대하여 항의, 파업 선언, 성명, 실력 행사 결의 등으로 작년 12월 이래 현재까지 계속 투쟁하고 있다. 년초에 해고 당한 인천 《흥한 방직 회사》의 48명 로동자들은 3월 22일 《로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라》, 《부당한 해고 조치를 철회하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괴뢰 정부 《보건 사회부 장관》실에 쇄도하여 롱성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남아 있던 로동자들도 일치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 체불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전개된 토건 로동자들의 투쟁의 경우에 있어서도 광주, 룡인, 대왕 등 서로 딴 지방에 있는 로동자 대표들이 집합하여 공동으로 괴뢰 정부에 항의를 제출하는 등 로동자들의 호상 련대성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의 특징의 또 하나는 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괴뢰 정부 기관들과 그의 직할 기업체 또는 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부문들 및 미군 관계 기관들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두, 석탄, 철도, 전기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문들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다.

실례로 《부산 부두 로조》 산하 《국방부 병기창》 로동자들은 금년 1월 10일 임금 인상과 로동 시간 단축을 결의하고 괴뢰 륙군 당국에 이의 실현을 요구하였으며 제 3 부두 로동자들은 롱성 시위를 단행하였다. 또한 인천에 있는 《한국 교역처》라는 미국인 기업체 산하 600명 로동자들은, 조선말의 사용을 강압 금지하고 로조 활동을 저지하며 구타까지 하면서 굴종을 강요하는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1월 14일 투쟁에 돌입하였으며, 작년 1월부터 부당 해고 반대, 임금 인상 등의 투쟁 구호로 항의, 롱성, 시위, 파업을 계속해 온 인천의 미군 유류 보급창 로동자 600 여 명도 미군 당국을 상대로 장기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 부평, 대구 동촌 지구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조선인 로동자들은 미제 강점자들의 총검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적 멸시와 차별 대우를 반대하며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직접 미군 기관들에서 일하는 로동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부두, 운수, 석탄, 전기 부문들에 있어서도 로동자들의 투쟁은 직접 간접으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전쟁 준비 책동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와 같이 로동 계급이 대중성과 철저성을 발휘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미제와 예속 자본가들의 2중 3중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초보적인 생활적 권리마저 박탈 당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러한 로동 보호 시설도 없이 12—17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로동 임금은 《한국 은행》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의 47%에 불과한 살인적 기아 임금으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년년이 증대되는 괴뢰 정부의 군사 경찰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당은 극히 적은 이 임금 수입마저도 그 중 약 40%를 세금 기타 가렴 잡세로 강탈하고 있으며 지어는 수개월 또는 해가 바뀌도록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보통일로 하고 있다.

취업 로동자들의 처지가 이러할 때 380 여

만 명으로 헤아리는 실업자, 반 실업자의 처지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것인가는 불문가지이다.

바로 남조선 로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처지는 그들로 하여금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궐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투쟁에 발맞추어 남조선 인구의 근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진출도 늘어 가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이 보도한 제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작년 1년 간을 통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략탈과 지주, 고리 대금업자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대중적으로 진출한 농민들의 투쟁은 46건에 달하였다. 이는 1955, 1956 량년 간의 투쟁 건수를 합친 것과 거의 같은 것이며 여기에는 실로 20 여만 명의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그 중 11건의 투쟁에는 최근 년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대규모의 농민들이 망라되였는바 전라북도 수리 조합 몽리 구역내 3만 명의 농민들이 고률의 수세를 반대하여 《수세 불납 동맹》까지 조직하고 투쟁한 것을 비롯하여 1만 명, 8천 명, 6천 명 등이 망라된 광범한 투쟁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이 확대되고 더욱 적극성과 완강성을 띠고 있는 사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농민들에 대한 략탈과 억압이 더욱 가혹해짐에 따라 그들의 생활이 보다 령락되고 있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오늘 남조선 농민들의 중심적 투쟁 요구의 하나는 토지에 대한 문제이다. 1정보 미만의 령세 농가는 지금 남조선 총농가의 74.1%를 차지하고 있는바 그들은 만성적인 기아 상태에 처해 있다.

괴뢰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괴뢰 정부의 군사비 지출액은 년년이 증대되고 있는바 1953년의 그 액수를 100으로 한다면 1954—1955년에는 152, 1956년에는 221.7, 1957년에는 251, 1958년에는 다시 282로 루증되고 있다.

민족 산업이 전면적으로 파괴 령락된 조건에서 급증하는 군사비의 중하는 농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들씌워지고 있어 농민들은 《농지 상환곡》, 《토지 수득세》, 수세, 비료대 기타 수많은 가렴 잡세와 고리 채무에 그나마의 량곡도 전량 또는 대부분을 추수와 함께 략탈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손바닥만한 토지마저도 군용지로 계속 징발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농민들은 량곡과 토지의 수탈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고 있다.

작년도에 남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위한 대중적 투쟁은 14건 이상에 달하였는바 그 중 몇 가지 실례를 들면 대전시 대사동 농민들은 자기들의 경작지를 괴뢰 정부가 략탈하려는데 항거하여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면 성가리 농민들은 고률의 소작료를 반대하는 동시에 경작지의 분배를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제 침략군에 의하여 수백 정보의 토지를 강제 징수 당한 경기도 파주군내 농민들과 농토를 3년 간이나 군용지로 빼앗기고 굶주림을 참다 못 하여 궐기한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농민들을 비롯한 수개면 8천 200 여 명 농민들의 투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투쟁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 외에도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투쟁은 금년에 들어 와서도 계속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5월 2일의 괴뢰 《민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가 농촌에서까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는 표'수가 급격히 증가된 것이라고 남조선 출판물들이 일치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농민들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가 현저히 앙양되고 있음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도 로동자, 농민들의 앙양되는 투쟁에 고무되면서 미제의 전쟁 준비 정책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여 용감히 일떠서고 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이 날과 함께 확대 앙양되고 있는 사실은 남조선 신문들이 부분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들에서도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즉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장화를 반대하며 과학 탐구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여 전개된 학생들의 투쟁은 그 건수와 참가 인원에 있어서 년년이 급격한 장성을 보이고 있는바 우선 그 건수에 있어서 1954년에는 35건, 1955년에는 56건, 1956년에는 59건, 1957년에는 87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투쟁에 참가한 학생수는 발표된 것만 계산하더라도 1954년에는 1만 4,187명, 1955년에는 2만 1,911명, 1956년에는 2만 5,364명, 1957년에는 무려 4만 9,709명이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투쟁은 건수와 참가 인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투쟁 조직 및 투쟁 형태에 있어서도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동맹 휴학, 시위, 롱성, 소동, 삐라 살포, 수강 거부, 항거, 성명, 진정, 교섭 등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도 동맹 휴학과 같은 적극적 형태(1957년도 87건의 투쟁중 61건이 동맹 휴학이였다)가 지배적 형태로 되고 있다. 학생들의 투쟁은 학부형, 졸업생들, 교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들을 적지 않게 관철시키고 있다.

투쟁은 대학, 중 고등 학교들에서는 물론 지어 《국민 학교》에서까지 전개되고 있는바 작년중 《국민 학교》 아동들의 투쟁만 하여도 6건이였으며 이에는 1만 여 명의 아동들이 참가하였다. 경북 수창 국민 학교, 달성 국민 학교, 경남 대상 국민 학교 아동들도 괴뢰군의 병영으로 강제 점거된 교사를 내놓으라고 동맹 휴학, 시위들을 단행하였는바 특히 대상 국민 학교에서는 학부형들까지 폭우를 무릅쓰고 어린이들의 투쟁에 합세하여 시위를 지원하였다.

현 시기에 있어서 남조선 청년 학생들 속에는 점차로 우리 당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정책이 침투 확대되고 있으며 미제의 철거를 요구하는 기세가 높아 가고 있다. 례컨대 리리, 전주시 내 학교들을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 호응하는 벽보들이 나붙고 있었으며 서울 문리과 대학 학생들은 괴뢰 정권을 반대하고 미군의 철거를 주장하는 신문과 벽보들을 발간한 사실들이 있다.

또한 청년들의 징집 기피와 그에 대한 항거 등은 청년들 속에서 반미 반리승만 기세가 높아 가고 있는 례증으로 된다. 괴뢰 《병무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작년도의 징집 기피자 수는 8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1956년 11월부터 1957년 7월에 걸쳐 리 승만 도당이 징집령장을 받고 도주해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서 무려 12만 명을 체포하여 강제 입대시켰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괴뢰 군대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

미국 유피 통신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들어 와서도 징집령장을 받은 청년들의 50%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실시된 《예비병 소집》에도 매번 해당자의 60% 내외가 이에 불응하고 있어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비군》의 훈련 강화 계획은 사실상 파탄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기세는 괴뢰군 내부에서도 만연되고 있다. 동양 통신에 의하면 괴뢰군 사병 및 하사관의 95% 이상이 제대를 열망하고 있다고 한다. 공화국 북반부로 의거하는 괴뢰군이 계속 부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8개월 동안에 5만 4,400명의 괴뢰군이 각종 《범죄자》로 락인되였는바 이들의 절대 다수는 반전 염군 사상에 사로잡혀 《불명예 제대》를 희망한 자들이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을 반대하는 기세는 량심적인 문화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지난 날 《숭미》 사상에 사로잡혀 미제의 교활한 식민지 정책에 기만 당하였던 문화인들 속에까지 확대 강화되여 가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식

민지 통치와 남북 분렬 정책을 비난하며 그로부터 초래된 남조선의 현실을 저주하고 있다.

《동아 일보》에 실린 련재 소설 《슬픈 목가》에서 저자는 리 승만 괴뢰 집단을 쓰리의 집단보다 더욱 부패 타락한 무뢰한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하였으며 비참한 남조선 농민 생활을 폭로하고 행복한 북조선 농민들의 처지에 은연한 동경을 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작품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남조선 문화인들은 남조선의 부패상을 폭로 규탄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이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작했던 언론 탄압에 관한 파쑈적 규정을 반대하여 남조선 전역에서 맹렬히 전개되였던 신문 출판 일'군들의 투쟁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남조선 문화인들의 기세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이 투쟁에 《한국 문화 단체 총련합회》까지가 지지 성명을 보낸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리 승만 도당이 더욱 광범한 인테리 속에서 고립 당하고 있으며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 정책이 더욱 로골화됨에 따라 파산 몰락의 구렁에로 빠져 들어 가고 있는 도시 소부르죠아지와 민족 부르죠아지까지도 미제의 상품 시장화 정책과 리 승만 도배의 가혹한 수탈을 반대하여 민족 산업의 보호 육성과 남북 조선간의 경제 교류를 요구하고 있다.

금년 3월 18일 남조선 각지의 중 소 상공업자 수천 명이 서울에 모여 민족 산업의 보호 육성과 세금의 인하를 요구하여 시위 투쟁을 전개한 것을 비롯하여 대전, 광주, 대구 등 각지에서도 그러한 시위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지업자, 제분업자들을 비롯한 각종 기업가들이 미제의 상품 시장화 정책을 반대 배격하는 성명과 요구서를 괴뢰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인도의 《델리 타임스》지 특파원이 1월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남북 조선간의 경제 문화의 교류를 주장한 우리 당의 제의를 리 승만 도당이 거부한 데 대하여 남조선 중 소 상공업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남북의 경제 교류의 실현을 열망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광범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가 앙양 확대되는 반면에 불안과 공포에 싸인 남조선 지배층 내부에서는 심각한 혼란과 동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내부 알륵은 더욱 심해 가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결탁한 극소수의 지주, 예속 자본가, 모리 간상배들을 제외한 광범한 인민들이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고 있으며 증오하고 있다. 반미 반리승만 기세는 오늘 더욱 널리, 깊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 인민들을 망라한 통일 전선 결성의 현실적 조건들이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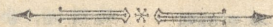
* *

사회 발전의 변증법은 사멸하여 가는 계급들이 력사의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종말이 가까와 오면 올수록 더욱 발악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발악적인 책동은 바로 이 진리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정전 협정과 인민들의 평화 통일의 리념을 무시하고 《북진 통일》의 나팔 밑에 원자 무기까지 반입하여 인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들의 발악적 책동은 인민들의 항거를 더욱 비등케 하고 있으며 미제 및 리 승만 도당들과 인민들 간의 불상용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려지고 있는 모든 사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어떠한 야수적 테로 폭압과 기만적 회유 술책도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과 생활적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과 지향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 승만 괴뢰 정부의 기관지인 《서울 신문》까지도 《산마루터같이 높아진 평화의 풍조를 막을 길이 없다》고 자탄하고 있다.

만약에 조선 인민의 간악한 적인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문제에 대해서 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벌써 오래 전에 통일되였을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도 북조선 인민들과 같이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남조선 인민들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조선 인민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으며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군이 남조선 땅을 강점하고 있는한, 리 승만 역도들이 매국적 정책과 파쑈 통치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한 그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은 멈추어질 수 없으며 더욱더 확대 강화될 것이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이와 같이 비등되고 있는 반미 반리승만 투쟁은 공화국 북반부에 확고부동한 물질 정신적 민주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세계 도처에서 앙양되여 가는 세계 인민들의 반미 운동의 강력한 일환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인민들의 투쟁의 목적인 미군 철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기필코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조선 로동당 창건과 그의 력사적 의의

선 우 몽 령

로동당 창건의 력사적 환경

8. 15 해방으로부터 로동당 창건 시기까지에는 약 1년이 경과하였다. 이 기간 국제 정세는 물론 우리 나라 국내 정세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기간 북조선에서는 공산당의 지도하에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 주권이 수립되여 확고하게 발전 강화되고 있었다.

당과 인민 정권의 지도하에 북반부에서는 력사적인 토지 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 개혁이 실시되였다. 그 결과 북반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옛 시대의 낡은 것, 봉건적 및 일제 식민지 잔재들이 철저히 숙청되고 사회 발전의 자유스러운 길이 열리였으며 민주주의 조국 건설의 물질적 토대가 닦아졌다. 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로동자들은 공장의 주인으로 되였고 녀성들은 우리 력사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인권과 남녀 평등권을 누리게 되였다.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여 모든 인민들이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생산 관계의 변화에 기초하여 로농 동맹은 새로운 경제적 토대 우에서 확고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기초 우에서 각계 각층 인민들을 단합시키는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이 형성되여 강화 발전하게 되였다.

당과 인민 정권의 지도하에 인민 대중에게는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였으며 그 반면에 인민의 원쑤인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토대는 박탈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당도 일층 강화 발전되였다. 력사적인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 3차 확대 집행 위원회 이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의 전 당의 통일과 단결은 확고해졌다. 북반부의 각지에 당 조직이 확대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 면 및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에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조직 체계와 당 규률이 확립되였으며 당 력량도 장성하였다.

민주 개혁의 실시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수준도 일층 장성되였으며 더욱 검열되고 단련되였다.

해방후 1년 간의 총화는 당과 인민 정권의 지도하에 북조선이 인민 민주주의 로선의 기초 우에서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공산당의 정책이 옳고 또 공산당만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당이라는 것을 더욱 광범한 인민 대중이 생활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간에 당과 인민 대중과의 련계는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되였다.

그러나 미제가 강점한 남반부에서는 북반부와는 판이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들어 온 첫날부터 일제 총독정치 대신에 미군의 군정 통치를 선포하고 인민들 자신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 위원회를 무

력으로 해산시켰다. 그 대신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 분자들, 민족 반역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동 세력을 규합하며 비호 조장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가 아니라 미제와 국내 반동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여기로부터 남조선 인민들은 해방 첫날부터 또 다시 온갖 박해와 무권리와 불행을 강요 당하게 되였다.

일제의 수중에 장악되였던 모든 착취 수단들은 미제와 예속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계속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되였다. 농촌에서 봉건적 착취 제도가 계속 보존되였다. 미국의 잉여 상품의 범람으로 인하여 민족 산업은 파산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인민 대중의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탄압 박해하였다. 미제 강점하의 1년 간 남조선의 총화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의 진면모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으며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변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명백해졌다.

그러므로 남반부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는 북반부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을 우러러 보며 그에 고무되면서 남조선에서도 그러한 민주 개혁의 실시와 조국의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투쟁 기세가 더욱 높아져 갔다. 따라서 인민 대중 속에서 공산당의 위신과 영향력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였다.

남북 조선에서 공산당의 영향이 장성되고 그 주위에 광범한 민주 력량이 급속히 단결되여 가고 있은 이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필수적 담보로 되는 반면에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강요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게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성되고 단결되여 가는 민주 력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를 외부로부터 탄압할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한국 민주당, 사회 민주당 및 타락한 공산주의 변절자들, 신민당, 인민당 내의 반당적 우익 분자들을 리용하여 소위 《좌우 합작》을 획책하였다. 이것은 자기들의 침략 정책에 항거하여 단결되여 가는 민주 세력을 분렬하자는 것이였으며, 《좌우 합작》의 파탄의 책임을 공산당에 뒤집어 씌워 공산당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이였다. 간교한 적들은 우리 혁명의 기본 세력인 로동자, 농민 및 인테리 등 근로자들이 여러 정당으로 분리되여 있는 것을 리용하여 이 당들을 서로 대립시키며 그리함으로써 로농 동맹을 파탄시키며 혁명의 기본 력량을 파괴하려 하였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특히 공산당에 대한 각종 비방과 중상을 퍼부으면서 당 기관들과 당원들에 대하여 공공연한 테로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을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새 전쟁 도발 준비를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려는 일관된 목적 밑에서 진행되였다. 그들의 이러한 침략적 야망은 우리 나라를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예견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로골적으로 반대하며 제 1차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킨 데서 더욱 명백해졌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 계획 실현을 위하여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파탄시키면서 더욱 횡포하게 남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과 애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테로를 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산당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1946년 5월에 소위 《정판사 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남조선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비법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이러한 폭행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북조선의 우리 인민 정권에 대한 온갖 비방을 퍼부으며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잠입시켜 우리의 민주 건설과 민주 개혁의 성과를 파괴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혁명 정세는 일층 복잡하게 되였으며 조국 통일 위업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우리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은 일층 명백하여졌다.

로동당 창건의 력사적 환경은 이러하였다.

로동당 창건에 대한 조직 로선과 그 정당성

상술한 바와 같은 엄중한 정치 정세로부터 우리 당 앞에는 일련의 새로운 정치적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파탄시키고 조국의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더욱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이와 동시에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구국 투쟁을 일층 강화할 것이 요구되였다. 이 임무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결정적 담보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그를 핵심으로 하여 남북 조선의 전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총 집결하는 동시에 당이 그들을 이끌고 혁명 투쟁의 모든 부문을 원만히 지도할 수 있도록 자기의 력량과 전투력을 제고하는 것이였다. 남반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당이 비합법 상태에서 벗어나 합법적 활동 조건을 쟁취하여야 하였다. 이런 것들이, 조성된 난관을 해결하는 기본 고리였다. 우선 더 광범한 인민 대중을 결정적으로 쟁취함으로써만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를 더욱 성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남반부에서 적들을 고립시키며 반미 반리승만 구국 투쟁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대중 전취 문제는 당 앞에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게 되였다. 모든 혁명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우리 혁명 승리의 열쇠는 광범한 인민 대중을 전취하는 여하에 달렸었다.

당시의 이러한 정세를 분석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누구든지 광대한 군중을 전취하면 그는 승리자일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승리 뿐만 아니고 근로 대중의 종국적 해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목전 정치 정세와 우리들의 새로운 과업).

미제의 침략 정책과 민주 력량에 대한 분렬 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혁명이 더욱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게 됨으로써 불확고한 중간층들에게서는 동요가 야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반부의 민주 기지가 더욱더 강화되고 미제 침략 정책의 추악성이 날이 갈수록 대중의 면전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폭로되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이 광범한 대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 이 가능성들을 옳게 리용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과업이였다. 이것은 즉 우리 혁명의 운명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우리 당에 부과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당의 능숙한 전술적 대책이 요구되였다.

《일반적으로, 력사는 특수적으로 혁명사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들의 가장 훌륭한 당들이나 가장 자각된 전위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그 내용이 풍부하며 더 다양하고 더 다면적이며 더 활기 있고 더 〈교활〉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실천적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첫째로 혁명 계급은 자기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활동의 모든——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빼여 놓지 말고——형태 또는 방면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둘째로 혁명 계급은 가장 급속하게 또한 돌연히 이 형태와 저 형태를 교체하는 데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공산주의에 있어서 〈좌익〉 소아병》, 조선로동당 출판사 판, 98—99페지).

이러한 정치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은 기동성 있는 새로운 전술적 대책으로써 남북 조선에 있는 근로자 당들과의 합당으로 로동당을 창건하여 당의 계급적 진지를 우리 혁명의 기본 군중 속에 대담하게 확대 강화할 데 대한 로선을 채택하였다. 합당으로써 새로운 조직 형태를 가지고 발전할 데 대한 당의 이 조직 로선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기본 군중들의 도달된 의식 수준을 정확히 타산한 것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혁명의 기본 군중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농민 및 근로 인테리 등이다.

이들은 다 같이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아 온 계급으로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 있어서 공통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 북반부의 농민 및 인테리들은 로동 계급과 함께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 수행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그들의 계급적 및 정치적 각성은 제고되였다.

민주 개혁의 실천적 투쟁 속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과 근로 대중 속에서의 그의 위신이 제고되였다.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은 우리 당의 정책이 자기들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며 오직 로동 계급과 함께 나갈 때만이 승리가 있고 행복이 달성된다는 것을 실지 생활을 통하여 똑똑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혁명의 이 기본 군중들 속에 당의 계급적 진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당의 력량을 강화하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조건이였다. 그러나 당시 당은 이 광범한 근로 대중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로동당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여기에 있어서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첨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 나라에는 맑스—레닌주의 당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 대중이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받음이 부족하였고 이 반면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한 가장 추악한 악선전이 광범히 류포되였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때에 우리가 사회주의의 구호를 들었더라면 인민들은 우리를 무서워하였을 것이며 곁에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김 일성, 1955년 4월 전원 회의 결론). 이러한 력사적 조건들에 의하여 제약된 대중의 의식 수준의 미숙성은 우리 당이 공산당의 조직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은 당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새 사회 건설을 목적하는 선진 계급의 당으로 되기 위해서는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광범한 비로동 계급 근로 대중과 련계를 가지며 지어는 어느 정도 융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또한 당의《… 조직 형태와 사업 방법은 해당한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의 특수성과 이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과업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규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명제들은 로동당 창건의 경우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비프로레타리아 근로 대중이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조건하에서 더우기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당시의 정세하에서 당이 만일 로동 계급의 계급적 울타리를 벗어나 로동당을 창건하지 않는다면 자기 대렬을 강대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곤난하였다. 당시의 제 조건하에서는 오직 당이 로동당을 창건하여 자기의 계급적 진지를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 속에 더욱 확대하고 튼튼히 하는 조건하에서만 로농 동맹을 확고부동하게 강화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기초 우에서만 민족 부르죠아지까지 포함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모든 력량을 단결할 수 있었다. 로동당을 창건하는 것은 또 남반부에서 당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였다. 왜냐 하면 당이 새로운 조직 형태 즉 로동당으로 발전하는 것은 적들이 이미 날조한 탄압의 구실을 분쇄하고 합법적 활동을 쟁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이 강대한 대중적 당으로 확대 강화됨으로써 적들이 용이하게 탄압해 낼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

당시 우리 당과 합당할 수 있은 그러한 근로자 당으로서는 북조선에는 신민당이 있었으며 남조선에는 신민당 및 인민당이 있었다.

이 당들의 투쟁 목적은 공산당의 당면 목적과 공통하였다. 또 실지 이 당들은 해방후 1년 간 북조선에서 민주 개혁을 실시하는 투쟁에서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당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당면 혁명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공통한 목적

을 가진 우리 혁명의 기본 군중들이 각이한 정당으로 분리되여 있는 것은 전 민족적 위업인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는데 불리하였다. 우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적들은 이 정당들 내에 자기들의 앞잡이들을 잠입시키며 혹은 그 정당들 내의 불건실한 분자들을 매수 리용하여 그 정당들을 서로 대립 리간시키며 그리함으로써 로농 동맹을 파괴하고 근로 대중을 분렬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이것은 근로자들 당내에 종파 분자들이 잠입하여 그를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에 리용하려고 책동하는 조건하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였다.

당 외의 적들과 당내의 종파 분자들의 책동이 있는 조건하에서 만일 이 정당들 간에 아무리 사소한 대립이나 리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의 기본 군중들에게 막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것으로 될 것이였다. 합당은 당내외 원쑤들의 이러한 분렬 시도를 분쇄하는 대책으로도 될 것이였다.

우리 당은 1946년 7월 27일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 8차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당을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기본 방침을 채택하였다.

우리 당이 소부르조아 정당인 신민당과 합당하여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중대한 전변이였다.

소부르조아 정당과의 합당은 불가피하게 당내에 소부르조아적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은 이 경우에도 맑스—레닌주의 당으로서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보전할 수 있는 제 조건들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합당 로선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조건들이란 첫째로 공산당이 계승하여 온 과거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확고부동한 전통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검열되고 세련된 당의 지도적 핵심이 확고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당의 전통과 지도적 핵심이 확고한 한 당이 비록 소부르조아 정당과 합당하더라도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성과 조직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당이 이미 해방후 민주 개혁 실시를 위한 투쟁에서 장성되고 검열된 로동 계급의 성분으로 당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려 놓았으며 그들 속에서 새로 많은 간부들을 육성하였다는 그것이다. 해방후 당의 지도하에 급속히 장성된 이 공산주의적 핵심들에 의거하여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로써 당 단체 골간을 꾸리고 전체 당원들 속에서 핵심의 역할을 제고한다면 당내에 광범한 근로 대중을 망라하고도 능히 레닌적 당 조직 원칙을 실시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므로 로동당 창건은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 단결을 위하여 당내에서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의 확고한 고수, 온갖 종파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과 당의 통일 단결의 보장, 전 당원들에게 의무적인 단일한 규률의 확립,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의 강화 등 레닌적 당 조직 원칙과 당 생활 규범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세째로는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과 정치적 각성이 제고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는 그것이다. 아직 사회주의를 접수하리만큼 그의 의식 수준이 장성되지 못한 근로자들까지도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실천적 투쟁과 자기들의 실지 생활 체험으로써 우리 당의 정책이 좋고 자기들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지도가 있는한 이들의 계급적 의식 수준은 유리한 국제 정세 발전의 추향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에 따라 능히 사회주의를 지지하리만큼 급속히 장성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로동당으로 발전하면서도 당이 그들의 의식 수준의 장성 정도를 신중히 타산하는 기초 우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정책을 능히 실시할 수 있으며 또 그의 실현을 통하여 그들의 의식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 조건들이 있으며 또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당이 더 광범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성격에는 어떠한 본질적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당은 타산하였다.

로동당 창건에 대한 이러한 조직 로선은 당시 조선 현실에 부합되는 맑스—레닌주의적 정책이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혁명적 조직 로선이였다. 또한 이것은 당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우리 나라에서의 창조적 적용의 모범이였다.

당 조직 로선 관철을 위한 투쟁

로동당 창건에 대한 우리 당 조직 로선에 근거하여 북조선에서는 1946년 7월 28일과 29일 간에 걸쳐 공산당과 신민당 련석 중앙 확대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서 량 당이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건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였다. 로동당 창건에 대한 량 당 련석 확대 중앙 위원회의 결정은 량 당 각 도, 시, 군, 면 당 단체들과 초급 당 단체의 순서로 내려 가면서 토의되였다. 토의한 결과 극소수의 종파 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량 당 전체 당원들이 합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로동당 창건에 대한 당 조직 로선이 쉽게 관철된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당 외의 원쑤들 뿐만 아니라 당내 종파 분자들의 책동과 기타 일부 그릇된 편향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동반하였다.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책동은 남반부에서 특히 혹심하였다.

남반부에서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자기들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인듯이 가장하고 로동당 창건은 《당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떠들면서 로동당 창건에 대한 당의 조직 로선을 반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당의 정당한 조직 로선을 당원들에게 침투시키지 않고 합당 사업을 의식적으로 태공하였다.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와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합당을 공개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게 되자 박 헌영 도당은 이번에는 《자파 헤게모니야》를 책동하면서 신민당과 인민당의 간부들을 배격하면서 종파 행동을 더 심하게 감행하였다.

한편 최 창익의 고무 추동 밑에 강 진을 비롯한 《엠엘》 종파 분자들은 《대회파》를 형성하고 합당 문제는 당 대회에서 해결되여야 하며 당 대회의 비준이 없는 합당은 당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위반》한다는 구실을 들고 합당을 반대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반동 통치하에서 대회를 소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합당을 파탄시키려는 것이였다. 강 진을 비롯한 《대회파》 분자들은 소위 《사회 로동당》을 조작하여 합당 대신에 당을 더욱 분렬시키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종파적 책동은 인민당 및 신민당 내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해서도 격화되였다.

합당을 반대하는 이러한 시도는 북반부에 있은 일부 종파 분자들과 불견실한 분자들 속에서도 표현되였다.

당 창건을 반대한 일부 분자들은 《어떻게 신민당과 합치느냐》하는 좌경적 배타적 경향을 발로하였다. 이런 자들은 당이 소부르조아 정당과 합당하는 것은 당의 《우경화》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로동당 내에는 맑스—레닌주의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통달한 사람만이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그릇된 견해를 주장하였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이 가장 애국적이고 철저한 혁명 투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민주 혁명 과업 수행에 참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투쟁에서 애국적인 열성을 다 하는 선봉 분자들은 다 로동당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이는 우리 당의 정책을 리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혁명 사업이란 전체 혁명 동지들이 합심하여 전 인민 대중이 단결하여서만 승리한다는 간단한 도리조차 리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착오이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은 종파주의적 경향으로서 우리가 대중적인 정당을 창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경향인 것이다》 (선집, 제 1권, 196페지).

일부 종파 분자들은 소자산 계급의 당인 신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이 되였으니 이제는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당의 지도 리론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경적 편향도 발로하였다. 오 기섭은 창립 대회에서까지 이러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물론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당장 조선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로동당원이 된다고 해서 또 공산당이 소부르죠아지 당과 합당한다고 해서 맑스—레닌주의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산당이 신민당과 합당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혁명을 승리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에 립각하여 보다 더 광범한 당원들을 당에 망라하여 그들을 맑스—레닌주의로 소화하자는 것이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즉 신민당과의 합당은 당의 《퇴보》나 《우경》화가 아니라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승리를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다. 일부 종파 분자들과 기타 불견실한 자들은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운동에서 승리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 이 민주주의적 운동이 맑스—레닌주의적 기치하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혁명의 현 계단이 요구하는 대중적 정당인 로동당원이 됨으로써 더욱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날 이 길을 걷는 데서만 우리들의 민주주의 승리가 있고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의 승리가 있어야만 조선의 완전 독립이 있으며 조선의 완전 독립이 있어야만 오늘날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승리가 있는 것이다》(로동당 창립 대회 결론).

또 어떤 분자들은 이번 합당은 잠시적인 것이며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분리되리라고 하면서 《당내에서 대량적 숙청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반당 요언을 류포하였다. 이것은 합당을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일종의 《음모》인 것처럼 비방함으로써 합당 사업을 파탄시키려는 것이였다.

우리 당이 광범한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을 단결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당이 존재하는한 영원한 정책인 것이며 혁명 운동의 발전에 따라 더욱 발전될 것을 타산한 것이였다. 왜냐 하면 우리 혁명의 기본 군중을 단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과업 수행 시기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로 대중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방면에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 대중들의 복잡하고도 곤난한 장기적 투쟁이다. 이 투쟁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신민당과 공산당의 합동은 필요한 것이다》(동상 194페지).

로동당 창건을 반대하는 이상과 같은 반당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당 중앙 위원회와 그의 지도하에 진행된 전체 당원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북조선에서는 다시 초급 당 단체로부터 면, 군, 도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합당 회의들이 진행되여 통일적 당 단체 지도 기관들이 선거되였으며 그 토대 우에서 창립 대회를 맞이하게 되였다.

로동당 창립 대회

우에서 본 바와 같은 준비에 기초하여 1946년 8월 28일에 평양에서 북조선 로동당 창립 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전 당을 대표하여 801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창립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모든 것을 민주 력량 준비를 위하여》라는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해방후 북조선에서 우리 당이 거둔 성과들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 정치 정세를 분석하면서 로동당 창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론증하였으며 또한 합당 사업에서 나타난 좌우경적 편향들을 상세히 분석 비판하였다. 이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로동당의 당면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의 총

적 임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하루 바삐 통일적 민주주의 완전 독립 국가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를 장애하는 일제 봉건적, 친일적 반동 세력을 철저히 소탕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인민의 정권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 전 조선적으로 조선 인민의 주권을 인민 위원회에 넘겨 가지게 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동상 197—198페지).

계속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 건설의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당의 레닌적 조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두 개의 당을 방금 합쳐 놓았기 때문에 또 당내에 광범한 비프로레타리아 근로 대중들이 들어 오게 되는 조건하에서 당의 통일을 저애하는 일련의 부정적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였다. 종파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이것은 더욱 위험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당을 강유력한 전투적 부대로 만들기 위하여 당 대렬의 통일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규률을 위반하는 등 일체 불순한 경향과 무자비한 사상 투쟁이 요구되였다. 특히 당내에 존재하는 종파 여독과의 투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체 종파주의적 경향과의 투쟁은 오늘 당내 사상 교육에 있어서 특등 임무로 제기되는 것이다》 (동상 199 페지).

다음으로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근로 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민주 력량의 기본 토대를 더 튼튼히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이라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간부 사업에 신중한 주의를 돌려 더욱 성실하게 간부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기의 보고를 결속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당의 강령, 결정, 모든 정책들은 곧 인민 대중의 것이 되게 하며 동시에 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으로 실행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 당에 간곡하게 교시하였다.

대회에서는 두 당의 합당을 만장 일치로 지지하고 해당한 결정과 당 강령 및 규약을 채택하였다.

창립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에는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당시의 근로 대중의 준비된 의식 수준에서 능히 접수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당면 목적이 서술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우리 당 규약에는 당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과 레닌적 당 조직 원칙 및 당 생활 규범들이 구현되였다.

대회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지도 기관을 선거하고 자기 사업을 결속함에 앞서 남조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3당 합당을 지지하면서 그 합당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종파 분자들의 반당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전체 인민 대중이 우리 당 주위에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조선 동포들에게 고함》이란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근로 대중의 전투적 선봉대—로동당이 창건되였다.

로동당은 항일 혁명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다.

그는 자기의 사상 리론적 기초를 맑스—레닌주의에 두었으며 혁명적 강령과 레닌적 당 규약을 가지였다. 그러므로 로동당은 자기의 조직 형태에 있어서 아직 자각적 공산주의자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도 망라하는 대중적 특성을 띠고 발전하지만 그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성격은 확고부동하였다.

❊ ❊

북반부에서 로동당 창건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남조선에서는 반당 분자들의 계속되는 분렬 책동에 의하여 3당 합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형에 비추어 김 일성 동지는 《로동당의 창립과 당면한 제 과업에 대하여》라는 자기의 로작에서 남조선에서 반동파들의 책동과 종파 분자들의 분렬

행동을 비판하면서 종파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합당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는 1946년 11월 16일에 남조선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이 조작한 《사회 로동당》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남조선에서 종파 분자들이 《사회 로동당》을 조작한 것은 적의 분렬 정책에 도움을 주는 엄중한 범죄적 행동이며 우리 당과는 하등의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시종일관한 경고와 비판에 의해서 또 이에 고무된 대중의 적극적 압력에 의해서 1946년 11월에 남조선에서도 당 대회를 열고 로동당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당의 소위 합당은 형식적으로 되였고 공산당을 로동당 간판으로 바꾸어 놓은 데 지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기대한 근로 인민의 대중적 정당으로는 되지 않았다》 (제 3차 당 대회 보고).

로동당 창건의 력사적 의의

광범한 근로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로동당을 창건함으로써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 중의 선진적 분자들이 우리 당내에 많이 들어 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속한 기간내에 수십만의 당원을 가진 강유력한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례하면 로동당 창건 전에 공산당의 당원수가 27만 6,000명이였다면 량 당의 합당 결과 36만 6,000명으로 장성하였으며 제 2차 당 대회 전에 벌써 75만 명으로 장성하였다.

이와 같이 당이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소화시키며 당의 사상 조직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조직적 대책들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량적 장성에 상응하여 당의 전투력과 조직성도 부단히 제고되였다.

자기 대렬을 급속히 광범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며 강화시킨 당의 이 정책이야말로 짧은 기간에 또 그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혁명 과업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당이 자기의 조직자적, 령도자적 역할을 능란하게 할 수 있게 한 기본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이 로동당으로 발전함으로써 당 자체를 확대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혁명의 기본 주력 부대인 로농 동맹을 불패의 것으로 만들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하여 가장 비렬한 비방과 중상을 퍼부으면서 민주 력량에 대한 분렬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던 그러한 시기에 제시된 로동당의 강령은 우리 당원들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는 사상적 기초로 되였다. 1946년에 제시된 로동당 강령의 견인력, 장성 강화된 당의 조직적 력량, 로농 동맹의 강화, 당 중앙 위원회의 일상적인 정확한 정책과 령도——이 모든 것은 당이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여 통일 전선을 확대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만일 우리 당이 제때에 소부르죠아 정당과 대담하게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그렇게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로동당의 창건은 우리 혁명 력량을 분렬하려는 적들에게 치명적 타격으로 되였다. 그 반면에 우리에게는 혁명 승리를 보장하는 기본 요인으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또한 로동당을 창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당내에 잠입하여 그를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에 리용하려던 종파 분자들의 시도를 분쇄하였다.

로동당으로 창건된 이후 당은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하에 당을 파괴하려는 당외의 적들과 당내에 잠입한 간첩 분자, 반당 종파 분자 및 기타 온갖 불순 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폭로 극복하고 오늘은 100 여 만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 발전되였다.

서적 해제 및 평론

고전 문학 예술 분야의 일부 출판물에서 나타난 경향성에 대하여

김 하 명
신 구 현
윤 묵

고전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 문예 정책의 확고한 원칙의 하나로,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의 찬란한 개화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기간 우리 작가, 예술가들과 더불어 출판 일'군들은 고전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당적 과업의 실천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즉 《홍 길동전》, 《춘향전》, 《흥보전》 등을 위시하여 우리 문학사상 대표적인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인민들이 쉽게 리해할 수 있는 체제로 간행되였으며 연암 박 지원의 작품들을 비롯한 한문 표기의 고전 작품들이 적지 않게 번역되여 세상에 나왔다. 이와 함께 문학사적 저술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고전 문화 유산을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관점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저술들의 간행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저작들은 인민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작가, 예술가들의 예술적 숙련을 위한 훌륭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 도서 출판 사업은 아직도 당적 요구에 충분히 수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상한 속도로 증대되는 근로 인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I

우리의 민족 고전 서적의 출판 사업은 광범한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교양하는 당 사상 사업의 주요 고리의 하나이다.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혁명의 수행을 위하여 복무해야 하며 문학 예술 발전에서의 전통과 혁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확고히 립각해야 한다.

우리 당 결정들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에는 고전 유산 계승 사업에서의 당적 원칙과 방향이 명백히 제시되여 있다.

당은 항상 우리 나라의 고귀한 과학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하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 가르치면서 반드시 당해 시기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정당하게 반영된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 요소만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전 출판 사업에서 계급성, 당성 원칙은 바로 이에 귀착된다.

당에 충직한 우리 출판 일'군들, 문평가들은 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사상 전선의 전사로서의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무런 난관과 애로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우리 대렬에 숨어 들었던 혁명의 원쑤들인 반혁명

분자들의 악랄한 책동과의 투쟁은 이를 말하여 준다. 미제의 고용 간첩이며 반당 종파 분자들인 박 헌영, 리 승엽의 졸개—림 화 도당은 이 당적 원칙과는 인연이 없는 허무주의 사상을 전파하기에 광분하였으며 반당, 반혁명 분자들인 최 창익, 박 창옥 등 종파 도당도 또한 그렇게 행동하였다.

기타 몇몇 일'군들의 비당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전 문학 예술 출판 부문에 있어서도 일부 그릇된 경향들이 나타났다. 우리 출판사들에서 발행된 민족 고전 서적들 중에는 당적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우리 당 정책과 전혀 배치되는 내용의 몇몇 작품들을 수록한 것도 있으며 그 작품들의 분석과 해설에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적 관점과는 인연이 없는 수정주의적 편향들이 발로되였다.

《가사집》(편자 고 정옥, 김 삼불. 1955년, 국립 출판사), 《청구 영언선》(편자 리 응수. 1954년, 국립 출판사)을 비롯하여 일부 전설집, 야담집 등에서 그 대표적 실례를 들 수 있다.

《가사집》 서문에서 편자들은, 《인민들은 이 노래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는 그것을 장려한다》. 《그것은 재능 있는 시인들에 의해 창작되였으며 보다 많이는 인민들이 집체적으로 창조한 것인데 거기에는 풍부하고 다양하고 절실하고 진실한 인민들의 사상 감정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선해서 수록한다》고 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정반대되는 적지 않은 가사와 잡가들을 수록하였다. 그 가사들은 일제 어용학자들의 사상을 답습하여 조선 인민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는 배치되는 퇴폐적이며 저속한 시정인들의 렵기적 기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출판물의 당성 원칙에 대한 위반이며 당의 문예 정책에 대한 외곡이다.

그러나 이 선집의 편주자들과 출판 관계 일'군들은 다만 《고전 유산》이라는 데 현혹되여 지어 이에다 그 어떤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하려고까지 하였다. 이 선집들이 대중 서적으로 출판된만큼 특히 교양적 견지에서 작품들이 엄선되였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하여 독자들이 정확하게 리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가사집》의 편주자들은 잡가 일반에 대하여 《봉건 말기 시정인들의 문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극히 모호한 평가를 주고 있을 뿐이다. 이 편주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봉건 말기 시정인들의 문학》은 모두가 《의의 있는 것》으로 되나 이는 인민적, 당적 평가와는 인연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당해 시기 문학 발전의 진보적 경향을 체현하며 문학의 사상 예술적 수준의 제고에 무엇인가 기여하였을 경우를 념두에 두고 있다. 때문에 어떤 노래나 문학 사조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것만 가지고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잡가》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쟌르 일반으로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 작품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집》의 주해자들이 사상 예술적으로 아주 저속한 작품들을 수록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인민적인 것으로, 당 문예 정책에 부합되는 것처럼 강조한 것은 당 정책을 2중적으로 외곡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청구 영언선》에서도 이와 류사한 결함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고전 작품 선집의 편찬에서 지켜야 할 다른 또 하나의 일반적 원칙이 엄중하게 위반되고 있다.

이 책은 그 표제와 내용이 전혀 합치되여 있지 않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8세기 초엽에 시인 김 천택이 편찬한 《청구 영언》은 우선 작품을 곡조 별로 배렬한 것이 그 특성의 하나로 된다. 그런데 《청구 영언선》의 편주자는 원작의 편찬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시대적 순서에 따라 배렬》한다는 명목하에 그 배렬 순서를 전후로 뒤섞어 놓았으며, 실제상 《청구 영언》 편찬 이후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수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주자는 그 서론이나 례언(例言)에서도 《청구 영언》의 본래의 편찬 체제, 그의 문학사적 의의, 그의 편자인 김 천택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은 실질적으로 《청구 영언선》이라는 표제를 부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와 함께 이 시조집은 그 례언에서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작품을 배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편주자가 그 창작 년대를 무시하면서 임의로 작품들을 배렬함으로써 력사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례를 들어 17세기 후반기로부터 18세기 초엽에 창작 활동을 전개한 김 천택과 그의 후배인 김 수장의 작품들의 일부는 그 작품의 《사상적 내용》에 의한다는 명목 밑에 《16—17세기 전반기》의 항목에다 배렬하였다. 그리고 이 작가들의 나머지 작품들은 《17세기 후반기—18세기》의 항목에다 배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류사한 현상을 이 외에도 적지 않게 지적할 수 있는바 이는 매 시기 문학 사조간의 교호 관계, 그 투쟁의 양상(樣相)을 단순화하고 도식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문학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고전 작품 출판에 있어서 이런 신중치 못한 주관주의적 태도는 절대로 용허되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향토 전설집》에 수록된 《무영탑과 영지》 등과 야담집 《돌쇠의 날창》, 《물'속을 기여서 10리》 등에 수록된 일부 작품들도 교양적 의의가 희박하거나 우리의 계급적 립장과는 무관계한 관점에서 서술되여 있다.

전설 《무영탑과 영지》는 원래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전설의 하나이다. 그러나 《향토 전설집》에서는 력사적 사실을 외곡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무영탑과 같은 고귀한 문화 유산에 대하여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손상시키도록 그릇되게 서술되여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무영탑은 조선 인민의 창조적 재능이 아로새겨져 있는 우리 나라 오랜 옛날의 건축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향토 전설집》에서는 마치도 그것이 어느 외국인의 창작인 듯이 사태를 외곡하고 있다. 특히 이 무영탑은 《일국의 부와 인간으로서의 최대한의 지혜와 능력을 기울여서 창조하는 일대 예술인만큼 신라의 공장(工匠)만으로써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장을 불러 왔다는 류의 서술은 그 편자가 당적 견지에서 물러나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독자들은 응당 이 책의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것이다. 《석굴암과 불국사의 다보탑을 창건한 것은 과연 당시 신라 인민들이 아니였단 말인가?》고. 우리는 어떤 기록과 사적들을 리용함에 있어서 항상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엄밀히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무슨 목적으로 남겨진 것인가의 정확한 구명이 없이 일체 낡은 기록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계하게 력사적 사실의 외곡에로 끌려 갈 수 있게 한다. 특히 우리는 지난날의 사대주의자들,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이러저러하게 외곡되였던 력사적 자료들을 엄밀히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설 《해주 부용당의 개구리》나 《약산 동대의 거북 바위와 동자 바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설이 누구를 위하여 바로 어떤 계급의 관점에서 윤색되고 외곡되였는가를 갈라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고전 작품들에 대한 자의적인 현대화나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무시한 제멋대로의 개작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부언해야 하겠다.

근간에 과거의 《야담》 형식으로 간행된 작품 선집들은 이 부문에 대한 주의 깊은 지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야담》은 그 내용상 흥미 있는 이야기'거리와 형식의 평이성으로 하여 일반 대중을 교양함에 있어서 적절한 쟌르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미 두 권의 선집이 간행되였다. 결과는 《야담》 형식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만한 의의와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작품 선집의 필자와 관계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이 작품 선집들의 출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작자들은 높은 당적 책임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작자들은 사료들을 널리 섭렵하지도 않았으며 《야담》의 쟌르상 특성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았다.

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출판된 야담집 《돌쇠의 날창》, 이야기 《물'속을 기여서 10리》 등에 수록된 작품들은 사상 예술적 수준이 일반적으로 저렬하며 부분적 작품들에 있어서는 사상 정치적 결함까지도 발로되고 있다.

《범에 물린 박 생》은 순전히 자기의 출세욕, 리기주의로부터 자기 조국을 반역한 주인공 박 생의 비극적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그를 증오의 빠포스로써 락인 찍지 않고 마치 이런 반역자에게도 어떤 《민족적 량심》이 있는 듯한 그릇된 결론을 주고 있다. 박 생은 《좁디 좁은 조선 땅에서 시끄럽고 귀찮은 일에 시달릴게》 없다고 조국을 버리고 청국으로 갔던 자이며, 그 곳의 장군이 되여 조선을 침략하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화살에 맞아 죽는 자기 조국(조선을 말함——인용자)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일종 쾌감까지 느낀》 역적이다. 이런 자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두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자는 생활의 론리에 어긋나게 작품의 종말에서 그를 감화시키며 마치도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미학적 평가에 맞지 않는다. 다른 작품 《도깨비 이야기》, 《당나귀 알》, 《물'속을 기여서 10리》, 《산삼 세 뿌리》 등이 모두 지난날 일부 건실치 못한 독자층의 렵기적 취미를 노리던 부르죠아 《야담가》들의 견해와 필치 그대로다. 많은 작품들이 주제가 선명하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 지향성이 박약하며 주로 어떤 기이한 에피소드, 렵기적인 사건에 치중하고 왕왕 주인공의 성격이나 사건 발전의 론리를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

우리가 고전 작품을 출판하는 것은 다만 옛날 우리 선조들의 유산을 존중히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새 것을 풍부히 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가지게 할 오늘의 교양적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 《야담》이나 전설이라고 해서 이에서 례외로 될 수는 없다. 계급 사회에서의 두 개의 민족 문화에 관한 레닌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것은 고전 작품 선집의 편집에서도 제 1차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다음으로 이 야담집들에서 발로되고 있는 다른 편향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재한 력사적 사실을 작자가 제멋대로 그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거나 그 력사적 사실을 그릇되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력사적 시대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현대화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물'속을 기여서 10리》라는 작품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력사적 사실인데 작자는 주인공 원 두표라는 이름을 광 호로, 리 원익을 리 권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들이 참여한, 세칭 《인조 반정(仁祖反正)》을 마치 인민을 위한 투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룡마부와 월랑》에서는 신라 시대를 력사적 배경으로 하면서 당시 신라의 《귀족과 량반들은 자식들을 군인으로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꽁무니로 빼 돌려 안전한 곳으로 은신시키고》 오직 각 지방의 인민들만이 조국 방위에 궐기해 나섰다고 쓰고 있다. 인민들이 언제나 력사의 창조자이며 조국의 열렬한 수호자였다는 것은 천만 번 정당하다. 그러나 신라 시대의 군사력의 골간은 군사 귀족이였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당해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 사실적 현상이였다. 실상 이 시기의 많은 설화 작품들은 당시 신라 귀족 출신 청년들의 용감하고 나라에 충직한 무훈담을 수다히 남겨 주고 있지 않는가! 자의적인 《현대화》는 력사적 사실의 외곡에 이르며 교양 사업에서 백해무익하다.

우리는 《야담》을 인민들의 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쟌르로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부르죠아 야담가들이 더럽혀 놓은 때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 있어서 많은 공적을 남긴 애국자들과 학자, 예술가, 영웅들의 업적, 과거 우리 선조들의 애국주의적 행동과 고상한 도덕적 품성, 다양하고 풍부한 인민적 생활 풍속 등을 우리 혁명 과업과 결

부하면서 재미 있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다. 절약과 증산에 대하여, 미신 타파에 대하여, 량반 통치배들의 포학성과 위선성에 대하여, 과거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념원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등 력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야담》 형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당 사상 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의 사상 사업에서는 언제나 목적 지향성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초보적 상식이다. 우리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누구를 위하여 이 사업을 하는가, 이것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적 립장에서 깊이 생각함으로써 바로 당 정책의 실천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II

고전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문예학자, 력사학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중대하다. 때문에 당은 항상 고전 문화 유산을 맑스—레닌주의 사상 관점으로 정확하게 연구 분석할 데 대하여, 그의 선진적인 견해와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천명하며 그들이 극복하지 못한 제한성을 갈라내여 보여 줄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저술들에서는 고전 유산 연구의 미명하에 우리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불순한 사상을 류포 선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특히 최 익한의 《실학파와 정 다산》을 념두에 두고 지적하고저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실학 사상 일반과 특히 정 다산의 진보적 사상의 발생 발전 과정과 그의 사회 력사적 조건을 밝힌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과학적 방법과는 인연이 없는 부르죠아 객관주의적 력사관에 근거하여 17—18세기의 《당쟁》 유익설을 날조하였다.

이 책에서는 실학 사상의 발생과 발전을 우리 나라 봉건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동—그의 물질적 토대의 분석 구명에서 찾는 데는 주목을 돌리지 않았다. 즉 이 시기 대토지 소유 관계의 장성과 그 특징, 상품 화폐 관계의 발전과 그 의의, 봉건적 신분 제도의 분해 과정과 그 력사적 의의 등 이 시기 계급적 대립의 가일층의 첨예화를 조성한 중요한 력사적 내용을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미약하게 또 그릇되게 서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력사적 순차성을 무시하고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로서 전폐 사용의 폐단, 3정 착취의 잔혹성, 균역법의 실시, 대동법의 실시, 당쟁의 격화 등을 고립된 현상으로서 라렬하는 데 그치고 주로 《당쟁》의 계보를 설명하는 데다 힘을 들였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실학 사상 특히는 정 다산의 진보적 사상이 마치도 《당쟁》의 소산물인 것처럼 허위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이 책의 서술에 의하면 경기 일대에 산거한 남인 일파가 당쟁에서 《약자》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현상 불만에서 현상 모순을 비교적 쉽사리 직감케 되였으며》 《필연적으로 실학과 서학의 령역을 걸치게》(동상서 272—273폐지)된 것이다.

이 책에서처럼 문제를 고찰한다면 당시의 집권 당파였던 《서인 로론》에 속하면서 실학파의 거장이 된 홍 대용, 박 지원과 그의 수다한 제자들의 진보적 사상의 발생 발전은 도저히 설명할 도리가 없다. 사회적 의식 형태로서의 사회 사상의 발생과 발전은 항상 물질적 제 조건과 함께 과학 문화 사상들의 복잡한 호상 작용과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저서에서 범하고 있는 주요한 사상 정치적 결함의 하나는 17세기 이후 우리 나라 실학 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마치 기독교가 많은 긍정적 영향이나 준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의 침략적 본성을 요구되는 수준에서 폭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책의 저자는 당시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러운 것으로 한탄하면서 《천주교의 류파는 그 후 수 많은 대학살과 련속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항상 민중의 저층에 침투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혹은 개화 운동에 자극을 주었으며 혹은 민중의 비밀 결사와 신앙 형식에 기술과 경험을 기여하기도 하였다》(289폐지)고 썼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적지 않은 사상 리론적 과오를 내포하고 있는바 그것은 우선 이 책의

저자가 당 정책으로부터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동시에 이 책이 세상에 나가기까지에 관여한 일'군들이 정치적 경각성 없이 무책임하게 사업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에게 적대되는 사상은 교묘하게 이러저러한 기회를 타서 머리를 들려고 한다. 출판 일'군들은 경각성을 높여 이러한 사상이 발부칠 자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우리의 주해본들에서도 이러저러하게 부정확한 사상들이 류포되였는바 《초웅전》,《심청전》,《장화 홍련전》 등의 해제에서와 같이 고전 작품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비속 사회학적 교조주의적 견해를 류포시키고 있는 것도 있으며, 《조국에 대한 지식》에서와 같이 자기 것은 다 좋고 남의 것은 모두 우리 것만 못 하다는 식의 서술도 가끔 발견하게 되며, 한 효의 《조선 연극사 개요》에서와 같이 낡은 부르죠아적 미학 관점에서, 판소리와 같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 형태를 《저급한 예술》로 외곡 규정하는 옳지 못한 경향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상 리론적 결함은 많은 경우에 저자들이 당과 혁명의 리익에 부합되게 써야 한다는 당성 원칙을 망각한 데서, 당에 외면하고 당 정책의 생활적 기초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데서, 맑스—레닌주의 사상 관점과는 인연이 없는 부르죠아 사상 관점과 관련되여 발생한 것이다.

Ⅲ

끝으로 우리는 고전 서적 출판에서 군중 관점을 제고하며 그것이 진실로 인민 대중의 재보로 되게 할 데 대한 높은 당적 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것을 제기하고저 한다.

지난 기간에 우리는 많은 주해본을 출판하였고 인민 대중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한 고전 문화에 더욱 친숙하게 되였다.

이 저술들과 작품들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알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의 과거 력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혁명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승리의 필연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출판된 고전 작품들은 그 주해의 불친절성으로 하여 독자들의 응당한 불만을 야기하였다.

개별적 작품들에 따라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해본들과 번역본들에는 내용상 잘못된 것, 너무 간단하거나 장황한 것, 너무 어려워서 주해에다 다시 주해를 달아야 할 것 등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여야 할 결함들과 부족점들이 잔존한다. 《죽림칠현(竹林七賢)》, 《항자 불살(降者不殺)》, 《욕병생(欲並生)》 등에 한'자 표기만 하여서는 오늘 일반 독자들은 도저히 리해할 수 없다. 《가사집》에서와 같이 많은 공란을 남겨 두면서 이렇게 한 것은 그 주해자들이 해당 작품을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리해시키려는 열의와 당적 책임성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며 이것은 바로 주해자들의 군중 관점에 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난어구의 주해에서만이 아니라 부분적 저술들에서는 그 대상과 출판 목적을 무시하고 대중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서적과 같은 문체로 서술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바, 저역자들과 편집자들은 항상 해당 서적의 출판 목적과 그 대상을 정확히 리해하고 이에 알맞는 형식과 문체로 서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문으로 기사된 고전 작품들의 번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오역들이 있으며 심지어 원 뜻과 전혀 반대되게 번역된 것도 가끔 발견하게 된다. 가령 《정 다산 시집》의 역자 최 익한은 《해읍의 인끈을 풀어 던지니 호당의 배'놀이는 이미 옛일일러라》라고 해야 할 것을 《해읍의 인끈을 넌짓이 풀었고, 해당의 배'놀이는 지금도 그리워라》라고 하여 서정적 주인공의 사상적 지향을 외곡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실례로 된다.

매개 고전 작품들을 인민의 재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알기 쉽고 읽기 쉽게 평이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주해를 달고 번역하며 해설을 부치는 것이 필요하다. 알기 쉽게 쓴다는 것은 진실하게 쓰는 경우와 같이 우리 문필가들의 당적 임무이다.

*　　*

이상에서 우리는 최근 기간 고전 문학 예술 분야의 일부 출판물들에 나타난 경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나타난 경향성들은 모두가 중요하게는 그 저역자들과 편주자들이 우리 당의 문예 정책과 출판물에서의 당성 원칙을 고수하지 못한 데서 초래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바, 이는 일부 해당 저역자, 편주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고전 부문 출판 일'군들이 련대 책임을 느끼면서 고전 출판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종사하는 일'군들에게 당면하게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철저하게 당적 립장에 서서 당 문예 정책을 옳게 파악함으로써 출판물의 당성을 고수하는 데 있으며 우리 당의 세계관이며 모든 사물 현상의 관찰에 있어서의 유일한 과학적 방법론인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 학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출판 일'군들이 당과 함께 가는 길이며 따라서 인민과 함께 가는 길이다.

꼰쏠따찌야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

주 용 목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은, 물질 세계가 인간의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실천 행정에서 인간의 뇌수에 반영된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실천을 인식의 기초로 간주하며 실천과 인식은 불가분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은, 실천의 기초 우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인식 과정을 복잡한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인정한다. 그리하여 인식을 고정 불변의 것으로가 아니라 부단히 상승 발전하는 과정으로 즉 미지(未知)로부터 지(知)에로,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불완전하고 불확고한 인식으로부터 완전하고 확고한 인식에로 상승 발전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상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의 가장 기본적인 견해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는 온갖 관념론적 견해와는 물론, 낡은 형이상학적 유물론의 인식론적 견해와도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관념론적 철학은 세계 자체가 정신적인 것이고 또 인간의 사상과 《세계 정신》은 원래부터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식을 객관적 물질 세계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리념, 《세계 정신》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객관적 물질 세계 자체의 가인식성마저 부인한다. 그럼으로써 관념론은 인식에 있어서 실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도외시하며 인식이 실천의 반영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낡은 형이상학적 유물론도 인식과 실천과의 호상 관계, 인식 과정의 변증법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낡은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인간의 인식을 사회 력사적 실천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사회 력사적 실천과는 유리된 관조적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실천을 추상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인식의 의존 관계를 리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식 과정에서의 실천의 결정적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은 인식론 방면에서의 일체 낡은 유물론의 관조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인식을 사회적 실천과 결부시키고 인식 과정에 변증법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인식 능력, 인식의 원천, 인식 과정 및 인식의 발전 법칙 등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주었으며 어떠한 길을 거쳐야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것은 실천적 활동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의 기본 원칙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칙들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우리는 사물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주관주의적 오유를 피할 수 있으며 사물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인식의 기초로서의 실천

실천이란 객관적 물질 세계의 적극적 개조를 지향하는 인간 활동의 총화이다. 그것은 일정한 력사적 단계에서의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다. 때문에 실천은 곧 사회적 실천이다.

사회적 실천의 형식은 다양하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생산 활동,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 투쟁, 정치 활동, 과학 및 예술 활동 등 기타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의 일체 인간 활동이 포괄된다.

그런데 이 사회적 실천중에서도 생산 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실천 활동이다.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생산 활동은 인간의 인식 및 지식 발전의 기본 원천이다. 인간의 인식 및 지식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축적 또는 발전하고 있다. 즉 인간은 생산 활동 과정에서 자연 현상의 성질 및 그 합법칙성,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점차 알게 되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과의 일정한 호상 관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게 된다.

둘째로 사회적 생산은 사회적 존재의 기초이다. 인간은 이여의 모든 실천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우선 물질적 생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바 이에 있어서 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물질적 생활 자료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없이는 인간은 물질적 생활은 물론 기타의 정치, 문화 생활도 할 수 없다.

세째로 사회적 생산 활동의 방식 즉 생산 방식은 사회의 면모와 성격을 규정한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생산 과정에서 피차간에 반드시 그들 자신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계 즉 일정한 생산 관계를 맺는다. 이 생산 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토대를 이루며 이 토대 우에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사회적 의식 제 형태 즉 정치, 법률, 종교, 예술, 철학적 견해들이 형성되며 또 그런 견해에 상응하는 정치 법률적 기관들이 수립된다. 그러므로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은 사회의 면모를 규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생산 활동은 기타의 일체 실천 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활동인바 이것은 주로 근로 대중의 실천적 활동이다. 근로 대중은 생산 활동의 주체이며 따라서 그들의 실천적 활동은 인류의 인식, 지식을 발생,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논다.

물질적 부의 생산 활동 이외 특히 각종 형태의 계급 투쟁의 실천도 인간의 인식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것은 특히 사회 력사의 발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다.

이와 같이 변증법적 유물론은 실천을 추상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실천을 인간 인식 발전의 기초로 간주한다.

인류의 인식, 지식 발전 행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실천은 인간의 인식, 지식을 발생, 발전, 심화시키는 기초이다. 과학의 발전 력사는 인간의 인식이 사회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토지의 구획을 측정할 데 대한 인간의 실천적 요구는 기하학을 발생시켰으며 17—18세기의 자연 과학자들이 축적한 풍부한 지식과 영국의 목축가 및 원예가들이 축적한 실천적 경험은 다윈주의를 산생시킨 기초였다. 19세기 40년대 이전의 과학 실천이 축적한 풍부한 지식과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 및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의 첨예화 그리고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실천은 맑스주의 리론을 산생시킨 기초였다. 맑스와 엥겔스가 이러한 과학적 리론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은 그들이 천재였다는 점 이외에 주로는 당시의 계급 투쟁과 과학 연구의 실천에 직접 참가한 데 있다. 이러한 실천이 있음으로 하여 맑스주의의 발생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천은 수다한 과학적 발견들과 발명의 기초였는바 그에 따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인식, 지식도 더욱 심화되였다.

인간의 인식의 풍부성과 다면성은 실천의 풍부성과 다면성에 의존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실천적 활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 및 사회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간의 인식, 지식도 심화된다. 례컨대 원시 사회 인류의 인식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그들의 실천적 활동이 아주 낮은 발전 단계에 처하여 있은 까닭이다. 현대 인류의 인식, 지식은 원시 인류의 인식보다 비할 바 없이 풍부하며 다면적이다. 쏘련에서의 3차에 걸친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는 오래 동안 꿈으로만 남아 있었던 우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 사실은 사회 력사 발전이 이미 높은 단계에 처하여 있고 그 발전 과정에서 생산 실천과 정치적 및 문화적 실천이 고도로 발전되였기 때문이다. 인류의 인식은 이와 같이 실천에 의존하여 발전한다.

실천의 방향과 성격은 매개 생산 방식의 류형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산 방식의 류형 속에서도 생산에서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 계급적 처지에 따라 구별되며 그로 인하여 각이한 세계관, 각이한 사회적 의식 제 형태가 나타난다. 이리하여 인식은 계급적 리해 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며 계급적 성격을 띤다.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진보성 여부는 그 이데올로기의 발생 발전의 기초인 당해 실천이 사회 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결정된다. 례컨대 봉건 제도의 붕괴기와 자본주의의 발생 및 그 상승기에 발생한 부르죠아 유물론과 계몽주의 사상이 당해 사회에서 진보성을 띤 것은 봉건 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창설하려는 부르죠아지의 진보적인 실천 활동의 산물이였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온갖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반동성은 사회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저지시키려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반동적 실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철두철미한 혁명성과 과학성은 로동 계급의 실천 활동의 특성에 의하여 규

정된다. 로동 계급의 실천 활동의 특성은 그것이 력사상 가장 진보적인 생산 방식과 련관되였으며 그의 리해 관계가 사회의 무진장한 발전의 요구와 일치된다는 데 있다.

이상 모든 것은 실천이 인식의 발생 발전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뿐만 아니라 실천은 아래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인식, 지식의 진리성 여부를 결정하는 규준으로도 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자연, 사회를 개조하려면 반드시 실천의 기초 우에서만, 그와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만 가능하다. 실천과 유리된 인식은 정확할 수 없으며 하등의 의의도 없는 공허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세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식되는가 하는 문제를 론할 때에는 실천의 결정적 역할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천의 기초 우에서 인식이 어떠한 행정을 거쳐서 발생 발전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인식 과정 및 인식의 기본 단계

인식 과정이란 인간의 의식이 객관적 현실에 무한히 접근하며 객관적 현실의 감성적 자료들을 기초로 그의 본질적 련계를 반영하는 끝없는 과정인바 이 과정은 복잡한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것은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객관 세계 자체가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복잡한 변증법적 과정이며 또 인식의 기초로서의 실천에 의한 객관 세계의 변혁 과정이 변증법적이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실천의 기초 우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인식 과정은 감성적 지각으로부터 시작하여 론리적 사유에로, 다음에는 또 다시 실천에로 이르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객관적 사물 현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인식 과정이 작든지(이를테면 한 사물 혹은 한 사업에 대한 인식) 크든지(이를테면 사회 혹은 혁명에 대한 인식)를 막론하고 반드시 상술한 바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인식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가 있다. 즉 감성적 인식 단계와 론리적 인식 단계이다. 이 두 단계는 각각 자기의 특성들을 갖고 있으며 인식 과정에서 각각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두 단계는 실천의 기초 우에서 호상 밀접히 통일되여 있다.

(I) 감성적 인식 단계

감성적 인식은 인식의 첫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물의 본질과 그 내'적 련계를 알 수 없으며 다만 그의 개별적 속성, 사물들 간의 외'적 련계 및 외'적 현상만을 인식한다. 례컨대 우리가 어떤 지방의 실정을 료해하기 위하여 그 곳에 갔다고 하자. 이 때 우리는 처음 하루 이틀 동안에는 그 지방의 지형, 가옥들을 보며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대한 대략적인 륜곽을 알게 되는바 바로 이러한 인식 상태가 감성적 인식 단계이다.

감성적 인식은 감각, 지각, 표상 등의 형식으로써 객관적 사물을 반영한다. 감각은 외계 사물이 직접 감각 기관에 자극하여 일으킨 형상이다. 지각은 감각 기관에 작용하는 사물의 전체적인 형상이다.

표상이란 우리가 이미 얻은 각종 감각을 종합하여 뇌수 속에서 사물 호상간의 련계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물에 대한 형상을 말한다.

감성적 인식은 인식의 첫째 단계이니만치 이 단계에서는 사물 현상에 대하여 심각히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사물 현상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인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왜냐 하면 감성적 인식은 우리에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주며 따라서 이런 것이 없이는 사물을 가일층 심오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감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물질 상태에 관하여서도, 어떠한 운동 형태에 관하여서도 아무 것도 알 수 없다》(《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288페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객관적 사물 현상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감성적 인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객관적 사물을 인식하려면 우선 그 사물과 접촉하여야 하며 또 어떤 대중적 운동을 료해하려면 우선 그 운동에 참가하는 실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러지 않고서는 객관적 사물 현상을 인식할 수 없다. 물론 이렇다 하여 우리의 인식, 지식이 모두 자체의 직접적 실천에서 얻어 온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며 어떤 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지식이 비록 자기의 직접적 실천에서 얻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실천에서 얻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식 자체를 두고 말한다면 그 원천은 어디까지나 실천에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성적 인식 단계는 사물 현상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다. 오직 감성적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우리는 사물 현상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우선 생동한 감성적 자료를 관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구체적 자료들을 수집, 연구하여야 한다. 맑스는 《자본론》을 집필하기 전에 있어서와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오래 동안 자본주의 사회의 구체적 사실들을 관찰하였으며 자본주의 생산에 관계되는 허다한 조사 통계 자료 및 력사적 문헌들을 수집하였다. 이럼으로써 그는 그러한 불후의 대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감성적 인식의 풍부한 자료를 얻으려면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세밀한 료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실천적 경험이다. 광범한 근로 대중의 경험은 어떤 개인의——아무리 총명한 개인도 포괄하여——경험보다는 비할 바 없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객관 세계에 대한 진지한 료해를 하려면 즉 풍부한 감성적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의 실천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대중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러지 않고서는 자기의 시야를 넓힐 수 없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성적 인식은 인간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극히 필요한 인식 단계이다. 감성적 인식은 사물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형상을 준다. 이것은 감성적 인식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성적 인식은 비록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는 주로 사물의 일면, 사물의 외'적 현상 및 외'적 련계만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고 사물의 내'적 련계 및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며 사물의 제 속성을 개괄하지 못하며 또 사물 발전의 추세를 예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감성적 인식은 왕왕 사물의 본질과 현상이 호상 모순 속에 있는 것을 똑똑히 반영하지 못하며 때로는 어떠한 표면적 현상에 미혹되여 완전히,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것은 감성적 인식의 제한성이다.

례를 들면 감성적 인식, 관찰에만 기초한다면 포유류에 속하는 고래를 어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을, 반대로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례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을 일견하면 즉 감성적 인식으로서만 본다면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에게 그의 로력의 대'가를 전부 지불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란 로동에 대한 완전한 지불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 로임은 로동력의 가치인바 이 로임은 그들이 로력한 대'가의 겨우 30—4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자본가들이 부유해지는 근원과 로동자들이 착취와 빈궁 속에서 헤매게 되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감성적 인식에만 머물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론리적 인식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을 한갓 감성적 인식에만 귀착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드시 감성적 인식을 론리적 인식에 제고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감성적 인식에서 얻은 풍부한 자료를 개괄하여 일반화할 수 있으며,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추상하여 낸 각종 개념을 리용하여 판단, 추리 등 사유 활동으로써 사물 현상에 대한 보다 심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II) 론리적 인식 단계

론리적 인식은 감각, 지각, 표상의 형식으로써가 아니라 개념과 판단 및 추리의 형식으로써 객관적 사물의 본질과 그 내'적 련계 및 그의 발전 추향을 반영한다.

개념은 사물의 본질 및 그와 기타 사물들과의 내'적 련계를 반영한다. 감각과 개념이 다른 점은, 감각이 사물 현상의 외부적 측면만을 반영한다면 개념은 사물 현상의 복잡한 제 속성 중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빼버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반영한다는 데 있다. 례컨대 우리는 감각적 인식으로서는 인간이 5관 4지가 있다는 것, 말할 줄 알며 사고할 줄 안다는 것을 알 뿐이며 인간의 본질 즉 일정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며 따라서 일정한 계급에 속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개념은 사물에 대한 다방면적이고 장구적인 연구의 결과 형성된다. 그러므로 개념의 내용은 불가피적으로 력사적 제한을 받는다. 례컨대 원자의 불가분할성에 대한 낡은 개념은 오늘에 와서는 본질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였다. 원자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은 오늘날 더욱 심화되였다. 그러나 개념의 내용이 일정한 력사적 제한성과 관련되는 부족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념 자체가 하등의 가치도 가지지 못하며 객관적 사물에 대한 비과학적이며 헛된 반영으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자에 대한 낡은 개념은 그 력사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철학

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즉 거기에는 물질은 원자로써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것이 인간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라는 사상이 내포되여 있는 것이다.

반동적인 부르죠아 철학자들은 인간 지식 발전의 점진적 성격과 개념의 신축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새로운 과학적 사상 발전이 항상 그에 적응한 새로운 개념들을 요구한다는 인식의 변증법적 과정을 리해할 수 없으며 또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개념은 사물 현상의 각이한 측면들과 모멘트들을 결합시키면서 사물 자체의 변증법적 과정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개념의 정확성 여부는 그 개념이 객관적 사물 현상을 반영하는 정확성 여하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사유는 일련의 개념을 리용하여 판단과 추리를 진행하면서 사물의 본질적인 측면과 비본질적인 측면을 갈라내며 감성적 인식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사물의 내'적 및 본질적 련계를 반영한다. 례컨대 우리는 전자파나 빛의 초속이 30만 키로메터이라는 것을 직접 듣거나 볼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추상적 사유 활동에 의해서만 인식한다.

사유는 감성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객관 세계의 주관적 형상이다. 따라서 사유의 내용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사유는 사물 현상의 본질적 속성의 총체를 반영하는만큼 사물 현상을 더욱 깊이 반영하며 사물 현상의 내부에 더욱 깊이 접근한다. 그리하여 사물 현상을 전면적으로 일반화하며 그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사유는 그것이 과학적 추상으로써 사물 현상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며 그에 기초하여 사물 현상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과학적 추상의 능력은 인간 사유의 독특한 징표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과학적 추상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객관 세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적 지향성 있게 자연 및 사회를 개조하는 위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유 활동은 언어의 도움에 의하여 진행된다. 언어와 사유는 불가분적으로 련계되여 있다. 즉 사유는 언어로써 표현된다. 언어로써 표현되여 있지 않는 개념이나 사상은 인간의 뇌수에서 발생할 수 없다.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말로써 우리는 이 개념들에 고유한 내용을 표시한다. 언어와 사유의 불가분적 련계에 대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는 빠블로브 학설에 의하여 생리학적으로 고증되였다.

인식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은 그것이 실천 활동의 결과들과 사유 활동의 성과들을 단어와 단어들의 결합으로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후대들이 이를 간접적 경험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즉 인류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은 언어에 의하여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인류는 언어의 덕분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신속하게 축적할 수 있으며 그에 기초해서 현상의 배후에 파묻혀 있는 사물의 본질을 용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의 도움을 받으면서 추상적 사유는 객관 세계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폭로하는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론리적 인식은 개념과 사유의 형식으로써 복잡한 사물 현상 가운데서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사상(捨象)하고 그의 일반적이며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갈라낸다. 즉 감성적 인식이 제공한 풍부한 자료를 과학적 추상에 의하여 개괄하며 그리하여 사물의 본질과 내'적 련계, 그 합법칙성을 반영하며 나아가서는 사물 발전의 전망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레닌은 과학적 추상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철학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본질의 추상, 자연 법칙의 추상, 가치의 추상 및 기타 등등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과학적인 추상은 모두 심오하게 더욱 정확하게 더욱 완전하게 자연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론리적 인식 단계에까지 제고시켜야지 감성적 인식 단계에 머물어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감성적 인식을 론리적 인식에까지 제고시키려면 우선 풍부한 감성적 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성적 자료에 대한 연구 분석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감성적 자료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연히 감성적 인식 단계에 머물어 있게 되며 인식을 사물의 본질 및 그 내'적 련계를 반영하는 론리적 인식에로 제고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이 실정에 대한 료해 사업을 할 때 자료만 기록할 줄 알고 그 자료 가운데서 일반적인 결론을 지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말로 하면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아나 자기의 사업 경험에 일관되여 있는 중심 문제를 개괄하지 못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보아 상술한 종합, 연구, 분석하는 면에서 노력을 적게 하는 까닭이다.

실정을 료해한 자료들이 있고 또 실천적 경험이 있다 하여도 감성적 자료에 대한 연구, 분석 사업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식은 여전히 감성적 단계에서

답보하게 되며 불피코 경험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된다.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이 오늘 현실이 제기하는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절실하게 감득하지 못함으로써 낡은 사업 경험과 사업 방법에 사로잡혀 보수성과 완고성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바로 사실적 자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진지하게 분석 연구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을 반드시 론리적 인식에까지 제고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즉 감성적 자료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분석과 종합, 추리와 판단을 통하여 사물의 합법칙성을 찾아내며 정확한 결론을 얻어내야 한다.

인식의 감성적 단계와 론리적 단계는 호상 불가분적으로 련관되여 있으며 호상 의존하고 있다. 오직 연구와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이 두 단계를 각각 개별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감성적 인식과 론리적 인식은 실천의 기초 우에서 통일되여 있으며 인식 과정의 분리할 수 없는 두 단계이다. 추상적 사유와 떨어진 감성적 지각이나, 감성적 지각과 떨어진 추상적 사유란 있을 수 없다. 만일 추상적 사유가 감성적 지각, 현실 및 실천과 떨어져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기가 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빠진 생각일 것이다.

사람들은 먼저 사물에 대한 감성적 인식을 가지며 상당히 풍부한 감성적 인식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야 감성적 인식을 론리적 인식에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론리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에 의존하고 있다. 론리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의 기초 우에 립각하고 있으며 감각이 제공한 풍부한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추상의 결과이다. 만일 론리적 인식이 감성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관념론이다. 론리적 인식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감성적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론리적 인식이 감성적 인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인식이 실천에 의존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인식이 실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론리적 인식이 감성적 인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감성적 인식과 론리적 인식은 실천의 기초 우에서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주관주의자들은 감성적 인식과 론리적 인식을 분리시키며 한 측면만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홀시하며 또는 인식과 실천을 유리시킨다.

경험주의는 감성적 인식만을 절대화하며 론리적 인식을 경시하며 리론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며 일면적이고 국부적인 자기의 협애한 경험을 과신하며 자기의 협애한 경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한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리론 학습을 경시하며 그리하여 순수한 실무주의자로 전락되며, 사물의 객관적 발전 과정의 전체를 포착하지 못하며,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며, 사업을 전망성 없이 하면서도 작으마한 성과에 만족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급격한 정세의 변동이 도래할 때마다 갈피를 잘 잡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좌》우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경 기회주의는 그 인식론적 근원으로 보아 경험주의와 류사한 점이 있다. 즉 우경 기회주의는 사물의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사물의 내'적 련계를 보지 못하며 일면을 전체로 보고 국부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에 있어서 자기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 존재와 분리시키며 주관을 첫 자리에 놓고 객관적 존재를 홀시한다.

레닌은 제 2 국제당 우경 기회주의자들이 파산된 인식론적 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의 파산의 근본 원인은 로동 운동 및 사회주의 장성의 일정한 한계 형태만을 <들여다 보았으며> 그 형태의 일면성을 잊어버렸으며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불가피적인 것으로 된 급격한 변천을 보기를 겁냈으며, 암기하여 놓은, 일견 론쟁할 여지가 없는 듯한 단순한 진리 즉 셋은 둘보다 많다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한 데 있다. 그러나 정치는 산술보다 오히려 대수에 더 가까우며 초등 수학보다 오히려 고등 수학에 더 가깝다.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모든 낡은 형식은 새로운 내용으로 충만되였으며, 때문에 수'자의 앞에는 새 부호 <마이나스>라는 새 부호가 쳐 있는 것인데 우리의 현명한 제 씨는 <마이나스 3>이 <마이나스 2>보다 많다는 것을 완강히 계속 고집 부렸던 것이다(또한 지금도 계속하여 고집 부리고 있다)》(《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년 판, 107—108페지).

교조주의는 감성적 인식의 중요성을 홀시하고 인식 과정의 제 1 단계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론리적 인식이 믿음성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감성적 인식

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단지 책에서 단편적으로 따 온 일부 명제들에 의거하여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망상하며 또 자기 나라의 구체적 정세와 구체적 실정에 대한 아무러한 분석이 없이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혁명 실천에 대하여 큰 해독을 주는 것이다. 교조주의의 해독성에 대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현실을 연구 분석할 줄 모르고, 사고를 태공하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 틀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훌륭한 맑스-레닌주의 명제들과 형제 당들의 고귀한 경험도 생기를 잃고, 도리여 사업에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이것은 사실상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선진 경험에 대한 경시이며 외곡이다》(1957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이상과 같이 교조주의와 경험주의는 모두 인식상에 있어서 감성적 인식과 론리적 인식의 변증법적 관계를 료해하지 못하고 그를 서로 분리시키면서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측면은 홀시한다. 때문에 교조주의와 경험주의는 모두 주관주의이며 따라서 인식론상에서의 관념론이다. 그것들은 정치적 령역에서는 때로는 《좌》경 기회주의로 표현되고 때로는 우경 기회주의로 표현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인식상에서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실천에 기초한 감성적 인식과 론리적 인식을 호상 통일시켜야 한다.

진리의 규준으로서의 실천

감성적 인식과 론리적 인식을 거쳐 이루어진 우리의 인식의 정확성, 진실성 여부는 오직 실천에 의해서만 실증된다. 왜냐 하면 어떠한 인식, 리론이든지 그 자체로서는 그 진리성을 실증할 수 없으며 오직 객관적 실천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에 의하여 실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과학적 원리라도 실천에 의한 최후적인 검증을 얻기 전에는 다만 가설로서 있을 뿐이며 아직 종국적으로 객관적 진리로 확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실천 과정에서 수차의 반복적인 검열, 수정 또는 보충을 받아야만 확고부동한 공리(公理)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이것은 인간 의식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현실이 인간의 뇌수에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다.

철학상에 있어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도 유물론과 관념론과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즉 하나는 진리는 객관성을 띠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객관적 진리가 있는가, 다른 하나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에 관한 문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진리는 객관성을 띠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은 객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진리가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객관적 현실 세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변증법적 유물론은 진리에는 객관적 진리만이 있으며 주관적 진리란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주관적 관념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은 객관적 진리의 존재를 부인한다. 즉 진리의 객관적 규준을 부인하며 그것을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현대 주관적 관념론인 실용주의는 진리의 《유익성 원칙》을 주장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에 의하여 진리가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목적은 진리와 허구, 지식과 신앙을 교란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미궁에 끌어 넣고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시키려는 데 있다.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또한 진리를 상술한 바와 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순수한 상대주의적 견지에 서고 있다. 그들은 진리의 객관적 규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각 자에게는 각 자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리는 각이한 사람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완전히 상대적이고 아무러한 절대성도 없다고 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상대주의를 견결히 배격한다. 즉 어떠한 객관적 사물을 정확하게 반영한, 진리성을 띤 인식, 지식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이며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나 각이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은 일정한 력사적 단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비록 불충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리성을 띠고 있다면 그 인식은 객관적 사물의 일정한 과정, 일정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즉 물질의 객관적 존재의 절대성은 진리의 절대성의 근거로 된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은 진리의 절대성에 대하여 결코 다음과 같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인식이 객관적 진리를 단번에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의 발전 과정은 무한하며 객관적 사물의 다양성도 무한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것을 단번에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으며 부단한 실천 활동을 통하여 더욱더 완전하게 파악하는 데로 접근하여 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일정한 력사적 조건의 제한과 그리고 객관적 사물 자체의 발전 조건과 실천적 조건의 제한을 받으므로 상대적이며 조건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멸망과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은 자기 활동의 력사적 제한을 받아 제국주의 시기의 특수 법칙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진리는 한 측면으로는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지며 다른 측면으로는 객관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언제나 일정한 력사적 조건의 제한을 받는 까닭에 진리는 또한 상대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는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상술한 바에 근거하여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의 관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실천 과정에서 인간의 인식은 모두 력사적 조건의 제한을 받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매개의 상대적 진리는 모두 객관적 세계의 어느 한 부분이거나 어느 측면의 반영인 까닭에 진리에 접근하여 가는 과정이며 절대적 진리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는 단번에,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상대적 진리의 무한한 축적의 과정을 통하여 그에 접근하게 된다.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상대적 진리의 무한한 량적 축적의 총화로 볼 수 있으며 또 절대적 진리 속에는 상대적 진리가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호상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취급하는 절대적 진리나 상대적 진리는 모든 진리를 영구 불변한 것으로 보는 형이상학자들의 《영원한 진리》나 지식의 상대성을 절대화하면서 객관적 현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온갖 진리는 반드시 구체적 환경과 긴밀히 련관시켜 고찰되여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는 진리인 것이 변화된 다른 환경하에서는 진리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추상적이 아니고 항상 구체적이다. 추상적 진리란 구체적 환경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는 진리이며 구체적 진리란 구체적 환경을 옳게 반영하고 확실한 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진리이다.

진리를 이렇게 리해하는 것은 우리의 혁명 활동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각이한 력사적 조건, 각이한 환경하에서 제때에 적절한 전략 전술 및 구호를 제기하면서 조선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또 인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 발전의 각이한 력사적 조건과 환경하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로 향하는 길을 옳게 가리켜 주면서 그들에게 잘 복무하였으며 또 복무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 당이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혈연적 리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 리유만으로써는 다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이 언제나 일정한 투쟁 조건을 고려하여 투쟁 행정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에 주의를 돌리며 그리하여 언제나 옳은 투쟁 구호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실천 활동에 있어서 당은 이런 또는 저런 진리나 명제를 구체적인 력사적 제 조건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맑스주의적 인식론의 명제를 엄격히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은 언제나 일정한 투쟁 조건을 고려하면서 투쟁 행정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에 주의를 돌리며 각이한 력사적 조건에서 맑스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의 로선, 방침 및 정책은 모두 우리 나라의 실제 정황에 부합된 객관적 진리이다.

당의 로선, 방침 및 정책은 우리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위대한 생활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업 과정에서 자각적이고 견결하게 당의 로선, 정책을 관철,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은 우리 나라의 일정한 력사적 발전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 및 그 합법칙성의 반영인 것만큼 그것은 상대성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객관적 실정의 변화에 따라 자기의 사업 방법 및 행동을 신축성 있게 개변할 것을 가르치며 또한 당의 로선, 정책, 방침을 관철,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결합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리해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또 결합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결합시켜야만 우리는 당의 로선, 정책, 방침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 따라서 그를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칙에 립각하여 우리의 인식, 지식으로 하여금 언제나 정확하게 객관적 실정을 반영하도록 하며 그를 보다 완성된 지식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인식을 기성의 그리고 불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미지로부터 지가 나타나며 또 어떻게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지식이 보다 더 완전하고 보다 더 정확한 지식으로 되는가를 연구하여야 한다》(전집, 제 14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25페지).

기성의 지식을 절대화하거나 낡은 것에 매달리고 새 것, 선진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또는 약간의 사업상 또는 과학상 성과들을 과대하며 그것으로 하여 자고 자대, 교만하여 진다면 우리는 필연코 교조주의적, 경험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며 실천 사업에 해독을 줄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불원간 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 지식의 심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상당한 독자적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심중한 문제 가운데서도 진리를 찾아 낼 수 없다. 노력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　　　*

오늘 우리의 현실은 위대한 전변의 시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객관적 현실은 급속히 전변되고 있으며 그에 적응한 사상 행동, 사업 방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식, 지식이 이 변화를 따라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실천 활동을 원만하게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크나 적으나 간에 오유를 범할 수 있다. 옳은 실천 활동은 객관적 실제 정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토대 우에서만 보장된다.

우리는 우선 진리를 인식하는 길을 실천에서 부단히 개척하여야 한다. 인식, 지식은 과학과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성과에 의하여 부단히 풍부하여 지며 심화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실천 속에 들어 가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인식, 지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실천에서 떠난 지식, 리론은 공허한 것이다. 리론은 시초부터 실천적 목적을 위해서 발생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항상 현실 문제, 실천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리론을 창조하였고 발전시켰으며 수 많은 천재적 로작들을 저술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본성은 세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 이 교시는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혁명적 본질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혁명적 본성으로부터 로동 계급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활동에서 혁명적 리론과 실천과의 불가분적 통일의 사상이 흘러 나온다.

이 사상은 우리의 전체 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리론의 지도가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며 자연 생장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지도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으며 피압박 인민들, 계급들의 모든 해방 투쟁도 선진적 리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생산자, 생산 관리자 자체의 과학적 기술의 습득, 리론적 무장이 인민 경제 발전의 절실한 요구임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와 같이 리론과 실천은 응당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오늘날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자기의 전문 부문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 현실, 실천과 긴밀히 련결시켜 소유하는 것은 새 사회의 건설 도상에 나선 우리들——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실천 활동에서 성과를 달성케 하는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근로자》 제 6 호 (루계 제 151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 쇄 1958년 6월 10일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8년 6월 15일

ㄱ—40 986　　값 45 원

서   내

레닌 전집 제 30 권

4×6판, 700페지 예정, 발행 예정 7월.

레닌 전집 제 30권에는 1919년 9월부터 1920년 4월까지에 집필된 레닌의 저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본 권의 내용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 쏘베트 국가의 건설, 볼쉐위크당 대렬의 강화 등의 문제에 관한 론문, 보고 및 연설들이다. 본 권에는 근로 대중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이 많이 수록되여 있는데 거기에서 레닌은 전선과 후방의 통일을 강화하며 붉은 군대를 지원하며 인민 경제의 복구와 국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견인성, 영웅주의, 자기 희생성 및 강철같은 규률의 정신과 또 자기 력량과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있다. 또 본 권에 수록된 일련의 론문들에서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리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레닌은 쏘베트 민주주의를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대비하면서 《순수한 민주주의》라는 간판하에서 부르죠아 독재를 옹호한 서구라파 사회당원들, 멘쉐위크 및 에쎄르들의 본질을 폭로하였다.

또한 본 권에는 쏘베트 정권의 민족 정책의 본질, 나라의 사회주의적 개건, 공업과 농업에서의 사회주의적 로동 형태의 창설 등에 대한 문제와 로씨야 전기화 계획 작성의 필요성을 론증하는 론문들이 수록되여 있다.

본 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 관리 조직에 관한 문제, 국가 기관에서 로동자 성분을 증대시키는 문제,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대한 문제들이다.

특히 레닌은 유일 관리제와 로동 규률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본 권에는 녀성 문제에 관한 론문, 국제 로동 운동의 수령으로서의 레닌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공산당원들을 교양하는 데 바쳐진 문헌들, 쏘베트 정권의 대외 정책 문제를 론한 문헌 등이 수록되여 있다.

우리의 생활과 위생 문화

국 $\frac{1}{2}$ 판, 36페지 예정, 발행 6월.

이 책은 방금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위생 사업에 대하여 그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가 위생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이 사업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쉬운 말로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였다.

현 계단 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

4×6판, 70페지 예정, 발행 7월.

이 책은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떠한 혁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당면 임무를 실행하여야 하는가를 평이하게 해설한 대중 서적이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이상 서적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함

1958년 6월.